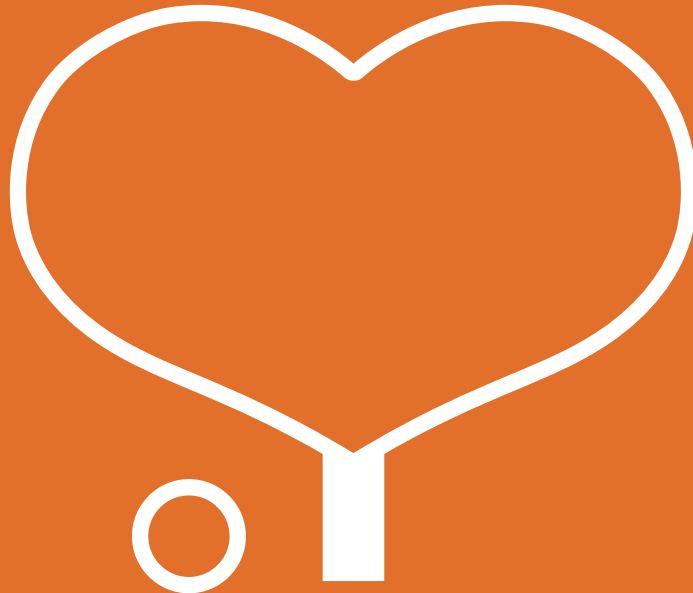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WE CARE_DREAM 임팩트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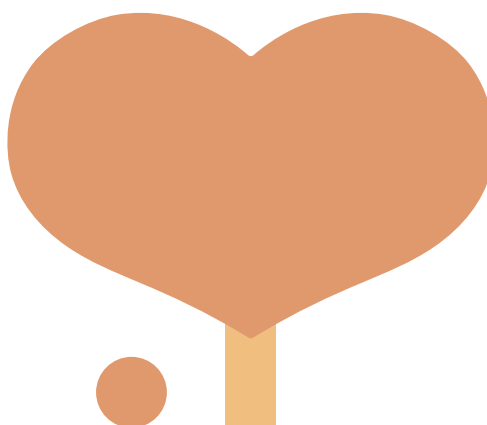
목 차

I. 서론	3
1. 연구 배경과 목적	5
2. 연구 설계	7
II. 선행연구 고찰	9
1. 자립준비청년의 현황	11
2. 자립준비청년의 특성과 어려움	13
3.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16
III. WE CARE_DREAM 사업 현황	21
1. 사업 배경	23
2. 사업 현황과 실적	28
IV. 양적연구 결과	35
1. 연구 개요	37
2. 연구 결과	40
V. 질적연구 결과	87
1. 연구 개요	89
2. 연구 결과	92
VI. 결론 및 제언	137
1. 결과 요약	139
2. 함의와 제언	145
참고문헌	151
부록(설문지)	153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설계



1. 연구 배경과 목적

사회복지 영역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서비스와 정책은 최근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며, 이들은 보호종료아동이나 시설퇴소청소년 등으로 불려왔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시설을 퇴소 청년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조소연, 김수영, 손선옥, 2023).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2,000~2,500명 청년이 가정 외 보호가 종료되고 이들은 이후 5년간 자립 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이를 환산하면 연간 약 10,000명의 청년이 자립지원 대상이 된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현재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제공하고, 주거지원과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며, 복잡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민소영, 장혜림, 차유림, 이현주, 조은영, 2022).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2023년 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약 41%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으며(연합뉴스, 2023. 10. 05). 실태조사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현황을 살펴볼 때, 서비스 및 판매직이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단순 노무직이 10%를 차지하여 대다수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보건복지부,

2024.06.27.).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을 위한 충분한 역량과 자원을 갖추지 못한 채 홀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김지민, 이상정, 2022; 박신애, 최옥채, 2018; 이해연, 서정아, 조홍식, 정익중, 김귀랑, 2007). 자립준비청년은 불안정한 주거와 경제적 환경에서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이태연, 최은숙, 이세정, 2019), 이 과정에서 우울감, 고립감, 무력감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고(이해연 외, 2007; 박소연, 이홍직, 양소남, 김희영, 2021;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이들 2명 중 1명은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이상정, 2020). 이는 보호와 자립 사이의 모호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도와줄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 청년들은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원가정과 친인척 등의 지지를 받지만, 자립준비청년은 원가정과 분리된 후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오랫동안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견인해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한화생명의 후원으로 WE CARE_DREAM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높은 이율의 저축보험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은 3년간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이를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다른 청년들과 만남을 갖고, 봉사활동이나 간담회 등에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현재 1기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2기 사업은 진행중이고 2024년에 3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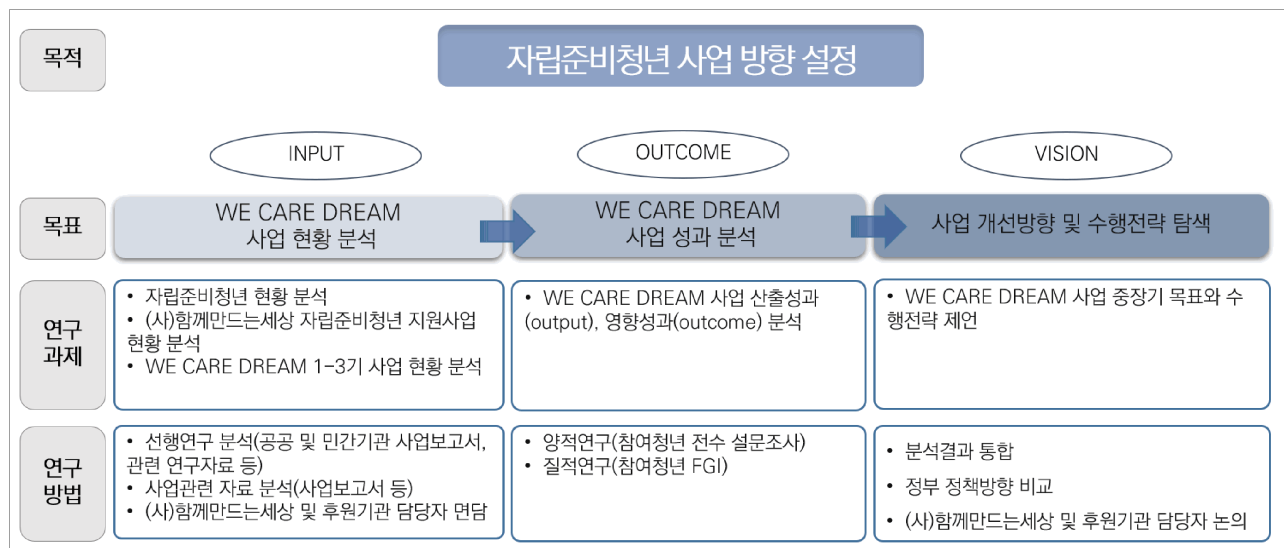
본 연구는 WE CARE_DREAM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현행 정책, 서비스를 조사하였으며, 1기부터 3기까지의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통해 (사)함께만드는세상 자립지원사업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양적연구, 질적연구로 구성된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특성과 지원정책을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연구 보고서와 학술지 논문, 그리고 자립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발행한 자립지원제도 관련 매뉴얼과 주요 정책 개선안이 발표된 보도자료이다. 연구자들은 내용분석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연구자 간 토의를 통해 현행 정책의 쟁점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WE CARE_DREAM 사업 참여자 전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상황을 살펴보고, WE CARE_DREAM 사업 참여 현황과 변화 등을 질문하였다. 이 결과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타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함의를 살펴보았다.

셋째, WE CARE_DREAM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집단은 기수별로 세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전 기수를 통합한 참여자 모임인 멤버십의 리더를 면접하였다. 면접 질문은 참여자들의 시설생활과 사업 참여 전 상황, 사업 참여 과정, 성과, 제언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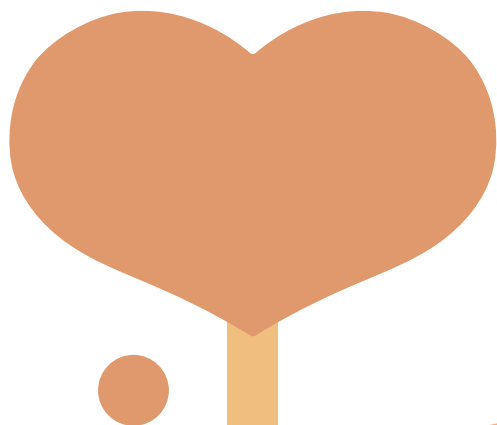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 자립준비청년의 현황
2. 자립준비청년의 특성과 어려움
3.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 자립준비청년의 현황

아동의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 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하며, 이렇게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은 위탁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 가정 외에서 보호받으며, 보호연령인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아동을 ‘보호종료아동’이나 ‘시설퇴소아동’으로 불렀다. 그러나 ‘아동’이라는 용어는 이미 성인이 되어 퇴소한 청년에게 적합하지 않고, 만기퇴소 전 중도에 퇴소한 아동에게는 ‘보호종료’라는 용어가 부적절했다. 따라서 2021년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공식적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렇게 이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공식화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는 타율적으로 보호가 종료되는 것을 넘어서, 청년 스스로 자립을 준비한다는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다양한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은 자립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자주 이동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각 보호체계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수를 합산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수를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년 약 2,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 숫자는 매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에 따

라 보호대상아동의 수도 자연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되어 아동에 대한 분리가 과거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호 후에도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향하는 서비스가 시작된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표 2-1> 자립준비청년 발생 현황(단위: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아동양육시설	992	827	726	717	581
공동생활가정	172	168	157	124	146
가정위탁	1,423	1,373	1,219	899	446
계	2,587	2,368	2,102	1,740	1,173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3; 아동권리보장원, 2023.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전체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립지원 서비스의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범위는 확대되어, 과거보다 서비스 대상이 되는 인원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자립준비청년 정책은 법률적으로 아동복지법상 보호체계를 퇴소한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소관 시설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들에게도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는 청년들도 보호를 받게 된 배경과 퇴소 후 홀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자립준비청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는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이 청년들이 여러 시설에 머무를 때가 많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지만, 대략 연 매년 2만에서 3만 명의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고, 약 1,100명의 청년이 쉼터를 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년원을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소년원에서 출원하는 인원은 매년 약 1,500명 정도이다. 이들 역시 원가족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국가의 자립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호대상아동 대부분은 원가족이 존재하며, 보호조치 요인 중 약 60% 이상이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가족 해체와 갈등에서 비롯된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은 가족과 관련하여 생애 초기에 부정적 경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할 때,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함께 필요할 수 있다(국회입법처, 2023).

둘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중 가정위탁이 31.7%, 양육시설이 31.5%, 공동생활가정이 15.5%로 가정위탁과 양육시설이 많은 비율로 나타난다. 가정위탁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대리 가정위탁’과 친인척이 양육하는 ‘친인척 가정위탁’, 그 외 비혈연 양육자가 양육하는 ‘일반 가정위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리 가정위탁과 친인척 가정위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¹⁾ 조부모와 친인척도 원가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위탁가정은 아동이 친밀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보호종료 후에도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양육의 전문성이나 자원부족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양육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집단이 클수록 아동에 대한 개별적 보호와 관계 형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세가 된 후 보호 종료를 연장하는 청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위탁가정보다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된 청년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²⁾ 이는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오래 생활한 경우 시설의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나 독립된 공간에서 욕구가 크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시설 내 규칙 개선의 필요성과 최소제한대안원칙³⁾을 준수하는 가정형 보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조소연 외, 2023).

2. 자립준비청년의 특성과 어려움

선행연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욕구를 주거와 경제, 교육, 심리·정서·사회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최근 가정위탁 유형은 친인척 보호와 친인척 외 보호를 포함하는 ‘일반가정위탁’과 ‘일시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으로 재정의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기존의 위탁가정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 2) 기존에는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 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보호를 연장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만 24세까지 보호 종료를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 3) 최소제한 대안 원칙(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LRA)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개인을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조치, 환경을 뜻하며, 탈시설화 운동(Deinstitutionalization)으로부터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는 서비스 제공시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해야한다는 원칙을 제공한다(노혜련 외, 2021).

1) 주거 문제

주거는 자립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요소 중 하나다. 살 곳이 있어야 독립이 가능하고 학업이나 직업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소영, 2024; 손선옥, 박현용, 2024). 그러나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은 불안정한 주거 문제를 경험한다(강현아 외, 2009). 2023년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지를 마련하는 문제였으며, 참여자의 약 40%는 주거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보건복지부, 2024.06.27.).

현재, 정부의 주거정책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과 임대비를 지원하는 것, 전환주택을 지원하는 것 등이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53.8%는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약 34.8%의 청년들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스스로 주거비를 지출하며 생활하고 있고, 약 10%는 보증금 없는 월세 집이나 고시원, 학교 기숙사, 친구 집 등 불안정하게 살고 있으며 일정 거처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이상정 등, 2020).

2) 경제 문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상황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2023년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의 약 41%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4.8%보다 8.5배가 높은 수준이다(연합뉴스, 2023. 10. 05). 또한,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시설 퇴소 청년들의 채무 비율은 일반 청년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으며(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 실태조사에도 자립준비청년 5,032명 중 약 68%가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보건복지부, 2024.06.27.). 자립준비청년이 소위 '4대 보험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취업률은 약 40%이고 무업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36%나 된다고 보고되었다(허민숙, 2021). 정규직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 직업 유형도 서비스나 판매직이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단순 노무직이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순 서비스, 노무직 등은 쉽게 직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만, 직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손선옥, 박현용, 2024).

<표 2-2> 2023년 보호종료청년 취업률 (단위: %)

취업 유형	취업률
관리 및 전문직	18.7
사무직	16.9
서비스 및 판매직	38.6
농림, 어업	0.5
기능, 기계	10.1
단순 노무	10.1
기타	5.3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 2023의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자료

자립준비청년이 일을 하더라도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나 인식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보호 중 적립하는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나 자립정착금 등을 통해 목돈을 갖게 된 경우, 이러한 돈을 한꺼번에 써 버려서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김소영, 이신혜, 2020; 김을수, 조소연, 2024). 경제적 자립은 독립적인 삶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이를 스스로 운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교육 문제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3% 정도이지만,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약 22% 정도에 불과하다(국회입법조사처, 2023;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진로를 빨리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며, 장기적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학업을 수행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여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유설희, 2022).

현재, 정부에서는 대학 입학 특례 제도나 등록금 지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학생을 중심으로만 지원책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도 단기간 훈련이 가능한 단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4) 심리·사회 문제

자립준비청년은 퇴소 직후에는 집단생활의 규칙과 통제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혼자라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크게 느끼기도 한다(강현아, 이종은, 2018;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2018). 이들은 원가족이나 시설 생활에서 겪은 부정적 경험으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고(박혜지, 이정화, 2020), 혼자 생활해야 한다는 부담과 불안감이 드러나기도 한다(정익중, 김주현, 2019). 자립준비청년은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청할 곳이나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수준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상정 외, 2020; 장정은, 전종철, 2018; 정익중, 2019), 이러한 심리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도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은 일반 청년에 비해 3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보호종료 후 3~4년 차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의 경험율도 높은 편이었다(이상정 외, 2020; 정선욱 외, 2020). 이런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보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 중 59%가 자립에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동년배나 같은 자립준비청년 친구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식적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3.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1) 주거지원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은 대부분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 대한 주거정책에 준하여 지원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LH영구임대주택' 제도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또는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시세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에 대해서는 ‘LH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있다. 이는 19~39세까지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공급물량 5% 이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입주할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 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이 가능하다.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대출하는 제도도 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19~39세 청년에 대해 일정 금액의 전세금 지원과 이자 감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청년이 주택을 직접 찾으면 임대인과 LH가 계약을 수립하며 LH공사가 전세보증금을 청년에게 낮은 이율로 빌려주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전환주거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자립하기 전에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등에서 1~2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9세~24세까지 거주 가능하다. 전환주거는 대부분 집합 건물 내의 독립 공간에서 생활하며, 주거비 부담없이 공과금 정도를 지불한다. 아동보호체계 퇴소자에 대해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은 최대 5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기업지원으로 운영되는 희망디딤돌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소년쉼터 퇴소자에 대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보통 2인 1실을 사용하고 2년간 거주하며 3년까지 거주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이 취업을 한 경우라도 급여의 80%를 저축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발생해도 거주기간 동안 보장시설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의료보호 1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이용교, 안희란, 2021).

세 가지 정책의 공통된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주거 마련뿐 아니라 주거 관리나 실생활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편이다.

2) 경제적 지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자립정착금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수당, 생계급여가 대표적이다. 먼저 가정 외에서 보호되는 동안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통해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아동발달계좌는 일정 금

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적금 통장으로,⁴⁾ 이 통장은 18세 이후에 수령하고 24세 이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장은 지자체별, 시설별로 가입률, 적립액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사회보장정보원, 2022). 보호 종료 후에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후 받는 일시 지원금으로, 가정 외 보호가 종료되면 지자체별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 현재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있다. 보호종료 후 5년간은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며, 자립정착금은 재산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립준비청년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받는다면, 2024년 기준으로 약 70만 원 내외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2023. 10. 05).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되었던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지역별 격차도 큰 상황이다.

3) 교육지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교육 지원은 국가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등 주로 대학 교육과 관련이 있다. 2024년도부터는 대학교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은 국가근로장학금과 행복기숙사 우선지원 대상이 되고 소득 산정 없이 생활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율은 일반 청년보다 현저히 낮은 편인데,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주로 대학생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로에 대한 준비는 장기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모든 청년에 대한 고용 정책과 연동하여 지원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일 경험 지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 지원의 주 대상은 아동보호체계 및 청소년보호체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4)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적립 금액의 두배(10만 원 상한)까지를 국가가 적립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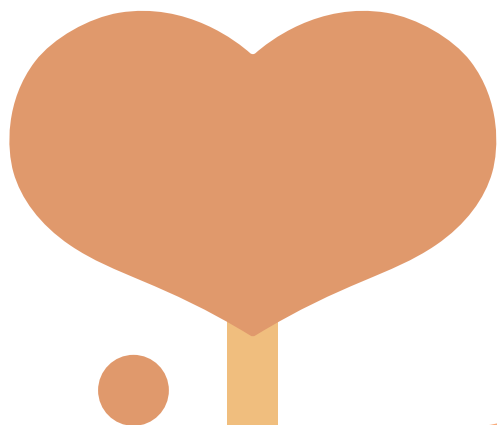
4) 심리, 정서, 사회적 지원

보건복지부는 일반 청년지원사업인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3개월 간 10회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에는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2024. 06. 27). 그러나 서비스의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까지 다른 지원책에 비해 심리, 정서, 사회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WE CARE DREAM 사업 현황

1. 사업 배경
2. 사업 현황과 실적



제3장

WE CARE_DREAM 사업 현황

1. 사업 배경

1) 한화생명의 청년 미래 지원사업 및 사회공헌활동⁵⁾

“Community Builder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WE CARE_DREAM”

(1) 한화생명 사회공헌활동의 발자취

청년 미래 지원사업 「WE CARE_DREAM」은 한화생명의 후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이다. 한화생명은 "더 나은 삶을 함께"라는 사회공헌 미션을 가지고, "내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Community Builder"라는 비전을 실천하며 인재 성장(Grow), 일상의 치유(Care), 가치의 연결(Connect)을 핵심가치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모기업인 한화의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일맥상통하며, 창업 이념인 ‘사업보국’과 ‘신용과 의리’의 한화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반영한다.

(2) 한화생명 사회공헌 주요사업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한화생명은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사각지

5) 이 내용은 한화그룹 및 한화생명 홈페이지 자료와 2024년 한화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4)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대 청년들의(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암경험청년) 건강한 자립을 위해 ‘청년 돌봄 캠페인 WE CARE’를 추진하고 있고, WE CARE_DREAM은 그 일환이다. 2017년 보험사의 강점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출시한 ‘함께 멀리 기부보험’, 2021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을 출시하였고, 이는 WE CARE_DREAM 사업의 기반이 된 상품으로 시설 아동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보장과 같은 필수적인 보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호아동의 마음건강과 발달을 위해 언어/심리/사회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MOM’S CARE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금융 및 ICT 분야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한화생명과 전문기관이 공동개발한 실제 사례 기반 경제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하여 성숙한 금융소비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ICT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베트남 중고교생 대상 정보올림피아드대회 개최, 한-베 ICT 대학 내 핀테크 특성화 전공 및 핀테크 허브(Lab)을 개설하여 ICT 분야 인재 육성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미래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활동

한화생명은 환경보호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재순환 기부캠페인 ‘REVIBE, 지속적인 에코라이프 콘텐츠를 제공하여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커뮤니티 ‘Keep Earth’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2004년 창단한 임직원봉사단은 임직원과 회사 기부금을 매칭한 기금을 활용해 이웃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참여형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사회공헌의 가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멀리’ 비상(飛上)하기

한화생명은 (사)함께만드는세상과 함께 ‘청년 비상(飛上)금’ 사업을 통해 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을 돕고자 자립준비청년에게 재정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하

였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끝난 청년은 자립정착금을 무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비은행권 대출을 받은 후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생명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꿈 지원금과 재무·금융 코치, 진로설계 등을 지원하여,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며,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다.

‘청년 비상(飛上)금’ 사업은 2021년부터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으로 확장하여 연결되었다.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은 한화생명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개발한 저축보험 상품으로, 이는 기존의 현금으로 생계비나 용돈을 지원하는 것의 한계를 개선하여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재편한 것이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후 초기에는 자립정착금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착금이 소진되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이 줄어드는 자립 후 3~5년 이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보험은 3년간의 납입 기간을 두어 현금 수령을 유보하고 목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개발되었다.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은 3년동안 매월 28만 원씩 저축하는 상품으로, 3년 만기시 1,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월 보험료 중 8만 원은 청년 스스로 납입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손해보험 기부금 및 임직원, FP들의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 외에도 3년의 보험 가입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골절 및 깁스 치료, 수술, 화상 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위기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위로, 협력하며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청년 멤버십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청년 및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특화된 사회공헌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의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의 자립과 인재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⁶⁾

“희망을 담보로 청년에게 기회를 빌려주는 (사)함께만드는세상”

(1) 은행 아닌 은행의 출범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사회적 금융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다. 2002년 설립된 이래,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방식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왔다.

(사)함께만드는세상은 2000년대 초반, 무담보·무보증 소액 대출의 유용성을 탐구하는 연구 모임에서 출발했다. 2002년에는 ‘함께만드는세상’이라는 법인을 조직하며 공식 출범했으며, 첫 사업으로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후 다양한 금융기업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했으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이크로크레딧이 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 금융 모델은 저소득층이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여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사)함께만드는세상 무지개가게 사람들, 2008).

(2)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한 동반 성장

(사)함께만드는세상은 한국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을 민간 주도로 처음 도입한 기관 중 하나로, 자본금은 기업의 빈곤층 창업사업 위탁금과 개인 기부금으로 마련되었다. 초창기에는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인식이 낮고 선례가 없어, 자체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통해 사업을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약 2,500개의 창업을 지원하며 소액대출의 사회적 유용성을 입증했다.

초기에는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용한 창업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한부모, 성매

6) 이 내용은 (사)함께만드는세상 홈페이지 자료와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20주년 백서(2024)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때 피해 여성, 탈북민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청년 문제의 심각성과 다변화가 대두됨에 따라 2015년경부터 청년 자립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대학생 재무 교육, 청년 혁신가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3,850명의 대학생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과 신규 학자금 약 180억 원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학자금 대출의 상환율이 90%가 넘었으며, 이를 통해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청년에 대한 희망을 재발견하고 청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더 모색하게 되었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최근 청년 자립 문제가 보호종료청소년(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립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호 중인 청소년에게는 진로 탐색과 재무 금융 기초교육을, 보호 종료 전후에는 미래 설계, 재무금융 교육,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성공적으로 독립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이러한 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안 마련과 사회적 관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립수당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알파라운드센터’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청년에 대한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4)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WE CARE_DREAM

앞서 언급했듯이, (사)함께만드는세상이 한화생명과 협력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청년 비상(飛上)금’ 사업을 통해서다. 이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35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재무·금융 코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는 10명의 청년을 시

작으로, 2019년에는 총 19명, 2020년에는 27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이후 멘토링, 네트워킹, 동아리 활동을 포함해 ‘청년꿈지원사업’으로 확장했으며, 2021년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와 상황에 맞춰 WE CARE_DREAM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WE CARE_DREAM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설계된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으로,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을 제공하며 청년의 미래 설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교육과 소모임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의지를 키우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독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지난 20여 년간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용한 사회적 금융 활동을 통해 자립을 지원해 왔으며, 한화생명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사업 현황과 실적

1) 사업 개요

WE CARE_DREAM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과 다양한 활동을 결합한 사업이다.

사업의 대상은 1기와 2기의 경우,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을 퇴소한 20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으로 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의 개념이 생긴 이후 시기인 3기부터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대상을 특정하였고 지원의 범위도 19세부터 29세까지로 확장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의 범위에는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퇴소자뿐 아니라,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도 해당되므로 사업 대상도 자연스럽게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까지로 확대되었다. 사업 참여자는 홍보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1기의 경우 수도권으로 지역을 한정하였고 2기부터는 전국 단위

의 참여자로 확대하였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소정의 서류와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한화생명을 통해 ‘맘스케어DREAM’이라는 저축보험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까지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매월 8만 원의 보험료를 36회 납부하면 3년 후 1,000만 원 내외의 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보험상품이므로 골절이나 갑스치료, 화상, 수술자금 등의료비 보장이 포함된다. (사)함께만드는세상은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사)함께만드는세상 사무국은 참여한 청년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독려하고, 보험료 미납 시 이를 긴급 지원하기도 한다.

선발된 청년은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보험상품을 약정하게 되며, 이때 교육이나 각종 활동, 혹은 간담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기수마다 다르게 운영되는데, 1기의 경우 2회의 비전 특강이 진행되었고 자신의 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기는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소그룹별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였고 현재 활동하는 3기는 신년회나 여름휴가, 가을 소풍, 송년회 등 참여자간 교류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멤버십이라는 자조 모임을 조직하여 참여자를 중심으로 긴급 지원이나 경조사 등을 챙기고 지원한다.

2) 사업 내용

(1) 사업 실적

제1기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6명에 대해 1억 8천 6백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맘스케어DREAM 저축보험’ 지원금으로 활용되었다. 제1기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퇴소자가 15명, 공동생활가정 퇴소자가 1명, 총 16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였고 8명이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나머지는 고졸 혹은 대졸 후 취업 중이었다. 제1기중 1명은 중도에 종결되었다.

제2기는 2022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총 예산은 3억 8천 7백 4십만 원이다. 제2기에는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 6명, 공동생활가정 퇴소 청년 8명,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 10명 총 24명의 청년이 참여하였고 참여자중 1명은 중간에 참여를 중단하였다. 제2기부터는 지역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청년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였지만 충청도나 대전, 광주, 경북 지역의 청년도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의 50%인 12명은 대학 재학 중이었고 나머지는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 중인 상황이었다.

제3기는 2024년 3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총 예산은 3억 7천 9백 2십만 원이다. ‘맘스케어DREAM 저축보험’ 상품에 신규 가입한 제3기 참여자는 25명이다. 그리고 제3기가 출범하면서 참여자 간 자조 모임인 멤버십 활동도 시작하였다. 멤버십은 기존 참여자와 (사)함께만드는세상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3기는 자동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멤버십 전체 참여자는 47명이고 1~2기 13명, 3기 25명, 타 사업에서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47명의 멤버십 회원 중 양육시설 보호종료 청년은 20명,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청년은 8명,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은 18명이었으며,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도 1명 있었다. 이들의 거주지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16명의 청년이 대학 재학 중이었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상황이었다.

<표 3-1> 사업 현황과 실적

구분	1기	2기	3기	멤버십	계
활동 기간	2021. 1. ~ 2024. 4	2022. 11.~ 2026. 1	2024. 3. ~ 2027. 6	2024. 3. ~	-
참여 인원	16명	24명	25명	타 사업 9명 (1~3기 38명)	74명
사업 예산	168백만 원	387.4백만 원	379.2백만 원	*3기 사업 예산에 포함	934.6백만 원

(2) 세부 사업 내용

본 사업은 저축보험 가입 및 유지, 그리고 참여자간 네트워크를 증진하는 소그룹 및 대그룹 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저축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1기부터 3기까지 공통적으로 진행되었고,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기수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제1기는 “미래비전 나의 꿈 이야기(꿈 영상 제작)”, 제2기는 “Dream Log(봉사활동, 네트워크 활동)”, 제3기는 “멤버십”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사업의 주요 내용

기수	사업 내용	세부 내용
공통	WE CARE_DREAM 저축보험	3년 만기 저축보험 가입 및 유지
1기	미래비전 나의 꿈 이야기	꿈 영상 제작
2기	Dream Log	봉사 활동, 네트워크 활동
3기	멤버십	상조회 구축, 네트워크 활동

① 공통: WE CARE_DREAM 저축보험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 ‘맘스케어DREAM 저축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납입은 매월 자립준비청년 참여자가 8만 원, 후원기관(한화생명,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손해보험)에서 20만 원씩 총당하며, 명절이나 연말에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1기와 제2기의 경우 10만 원씩 2회의 격려지원금이 있고 제3기의 경우 5만 원씩 3회의 격려지원금이 마련되어 있다. 참여자는 3년간 매월 28만 원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제1기 사업은 종료되어 16명의 참여자 중 중간에 참여를 중단한 1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만기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제2기와 제3기는 보험료 납입이 진행 중이다.

② 제1기: 미래비전 나의 꿈 이야기(꿈 영상 제작)

미래비전 나의 꿈 이야기(꿈 영상 제작)는 자신의 꿈에 관해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시작 시와 종결 시 관련 주제에 특강이 이루어졌다. 1차 특강은 “나의 꿈”, 2차 특강은 “나의 비전”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전문 강사를 통해 3년간 10회의 글쓰기(꿈 스토리 및 스크립트 작성)와 영상 제작 관련 교육을 받았고 교육에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취미나 꿈과 관련한 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 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최종적으로 3건의 영상물을 만들었다. 첫 번째 영상은 WE CARE_DREAM 사업에 참여한 계기와 저축보험 상품에 관한 기대, 희망 등을 담고 있고 두 번째 영상은 자신의 꿈을 달성하는 과정에 관해 참여자들이 자체 제작한 Vlog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영상은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관한 인터뷰와 함께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본 사업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 영상들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의 성과공유회에서 발표되었다.

③ 제2기: Dream Log(봉사활동, 네트워크 활동)

Dream Log(봉사활동, 네트워크 활동) 프로그램은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봉사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이다. 봉사활동은 5개 소그룹별로 연 3회씩 총 9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룹별 팀 리더를 5명 선발하였다. 봉사활동은 팀 리더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팀 리더는 조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섭외, 활동하며, 활동에 대한 기획안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봉사활동 시에는 조별로 회당 1백만 원의 활동비와 함께 기관별 50만 원 상당의 감사선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팀 리더는 소정의 활동비와 회의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의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면, 그룹홈 아이들과 요리교실을 진행하고 함께 식사하는 활동, 그룹홈 아동과 여행이나 문화 활동 함께하기,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함께하는 소풍이나 액티비티 즐기기, 환경 지킴이 활동 등이 있었다.

또한, 그룹별로 매년 2회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서로 교류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네트워크 활동 시에도 그룹별로 50만 원의 활

동비를 지원한다. 네트워크 활동에서 참여자들은 함께 식사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봉사활동 기획 회의를 하거나 유리 공예나 도자기 공예 등과 같은 원데이 클래스를 경험해 보기도 했다.

④ 제3기: 멤버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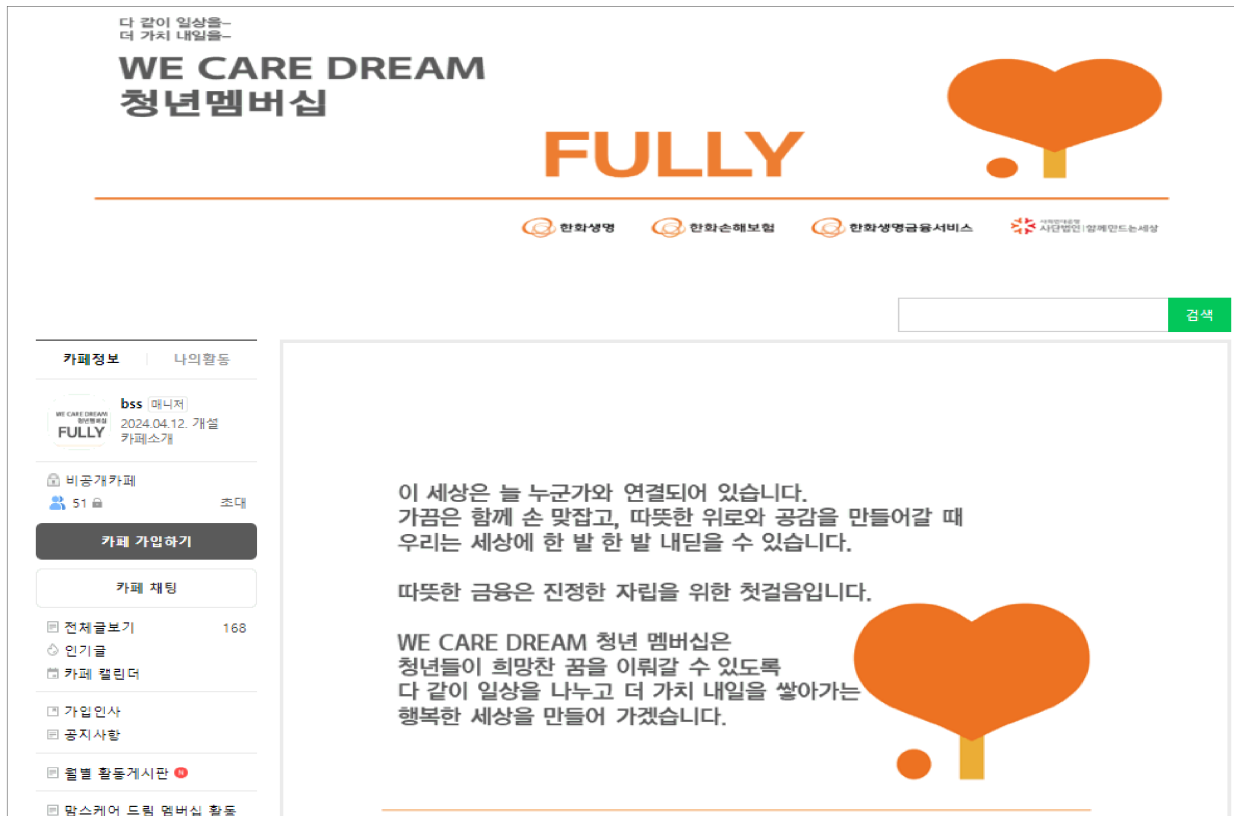
멤버십은 사업 참여자들이 상호회와 같은 모임을 구성한 것이다. 멤버십은 한 청년의 아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기 사업참여자였던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무연고였던 청년의 보험금을 수령할 가족이 전혀 없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오던 청년의 슬픈 마지막이었다. 멤버십의 최초 기금은 이 청년의 보험금으로 마련되었다.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이 일을 계기로 청년들이 서로 안부를 살피며 자발적으로 돕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멤버십을 통해 그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멤버십은 1기부터 3기까지의 참여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제3기가 출범하면서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멤버십 회원은 1, 2, 3기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3기는 자동 가입된다. 그리고 (사)함께만드는세상 내 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도 참여기회를 개방하여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멤버십 가입자는 월 1만 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멤버십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1인당 1만 원씩 추가 회비를 지원하고 있다. 멤버십기금은 회원 중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때, 생일이나 취업, 입학, 결혼, 장례 등 경조사가 있을 때 활용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는 생일 10만원, 설날과 추석 명절에 5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멤버십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채널을 구축하여 참여자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멤버십 회원 전용 카페를 개설하고, 멤버십 리더와 위원을 위촉하여 카페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카페에는 2024년 4월 개설되었고 카페 운영자는 WE CARE_DREAM사업과 관련한 활동 안내와 주요 공지, 설문 조사 등을 업로드한다. 회원들은 지역별로 문화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며, 온라인 카페 내에서 활동을 기획하여 홍보하기도 하고 진행한 활동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본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립준비청

년을 지원하는 타 사업에 대한 안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카페의 첫 화면에는 “다 같이 일상을, 더 가치 내일을”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이 문구를 통해 멤버십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를 엿볼 수 있다.



<그림 3-1> WE CARE_DREAM 청년멤버십 온라인 카페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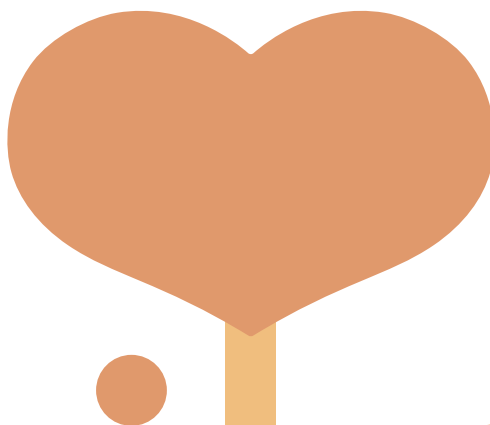
오프라인 활동은 주로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분기별로 참여자들이 만나 문화 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리더와 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활동 후에는 공식 카페에 해당 자료를 공유한다. 2024년 9월에는 멤버십활동의 첫 모임이 있었으며, 이 모임은 아이스 브레이킹과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되었다. 향후에도 여름휴가나 송년 모임, 명절 모임, 체육대회, 소풍 등 매년 3회의 오프라인 모임이 계획되어 있다.

멤버십은 매년 리더를 선발, 위촉하여 해당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리더는 연 1회 정기 총회를 통해 선발하며, 정기 총회에서는 정기 모임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우수 활동 회원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진다.

제4장

양적연구

1. 연구 개요
2. 연구 결과



제4장

양적연구

1. 연구 개요

본 조사연구에서는 WE CARE_DREAM 사업 참여자 총 72명을 대상으로 현재 자립생활실태 및 사업 만족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업 성과와 의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은 67명으로 전체 사업 참여자의 93.1%에 해당한다. 사업 참여자 주거지역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사)함께만드는세상 사무국에서 온라인 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사업 참여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고, 조사 완료 후에는 5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에 걸쳐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67명(1기 15명, 2기 19명, 3기 33명)이 응답하였다.

조사는 ‘청년 개인의 현재 자립생활실태’와 ‘본 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문항에 따라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자유 기술 문항(open question)’을 추가하여 양적 조사를 보완하였고,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함께만드는세상 실무자 3명을 비롯하여 사업 참여 청년 4명을 실무자에게 추천받아 문항 구성과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조사 결과 중 일부는 유사한 자립준비청년 관련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사업 참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사 내용은 지난 2022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한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기초분석보고서 VII: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 2023)⁷⁾을 참고하였고, 일부 내용은 연구진이 보완하거나 개발하여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019년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508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건강, 심리정서, 주거, 경제상태,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 분석함.

<표 4-1> 조사 구성 및 내용

구분	문항	출처	
인구 사회학적 특성	1. 성별	서울시 퇴소아동자립실태조사(2017)	
	2. 생년월일	서울시 퇴소아동자립실태조사(2017)	
	3. 학업 및 취업 여부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2020)	
	4. 학력 4-1. 학비 바뀐 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2019) 일부 수정	
보호 관련 특성	5. 자립 전, 보호 유형(중복)	서울시 퇴소아동자립실태조사(2017)	
	6. 자립 전, 최종 보호 유형	서울시 퇴소아동자립실태조사(2017)	
	7. 보호 종료 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8. 보호 종료 이유 8-1. 중도퇴소 이유	서울시 퇴소아동자립실태조사(2017)	
현재 생활 실태	경제	9. 현재 고용 형태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2020) 일부 수정
		10.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중복)	연구진
		11. 보호 종료시, 지원금액	서울시 퇴소아동자립실태조사(2017)
		12.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23)
		13. 소득 지출 용도(중복)	
		14. 현재 저축액(현금)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기초분석(2023)
		15. 최근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한국복지패널 일부 수정(아동권리보장원)
	주거	16. 업 관련 어려움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2020)
		17. 취업을 위한 노력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2020)
		18. 현재 주거 소유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기초분석(2023)
		19. 현재 주거비용	연구진
	건강	20. 현재 주거비용 부담 정도	서울시 퇴소아동자립실태조사(2017)
		21. 현재 거주지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
		22. 현재 주택 구조, 성능 및 환경	복지패널
		23. 평소 건강 상태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아동패널조사
	심리 정서	24. 장애, 질병 여부 24-1. 진단받은 장애명, 질병명	복지패널 일부 수정
		25. 아침 식사	아동복지패널조사 재구성(아동권리보장원)
26. 점심 식사		아동복지패널조사 재구성(아동권리보장원)	
27. 저녁 식사		아동복지패널조사 재구성(아동권리보장원)	
사회적 관계	28. 삶의 만족도	드림스타트 패널 아동종합실태조사(2018)	
	29. 미래안정성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15세 이상 부가질문)	
	30-1~9. 우울 및 불안	가정위탁아동패널	
	31. 현재 동거인 수	드림스타트	
	32-1~6. 사회적 지지	가정위탁아동패널	
	33-1. 원가족과 만남 33-2. 연락 빈도 33-3. 연락 이유	가정위탁아동패널 일부 수정	
	34-1.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 연락 빈도 34-2. 연락 이유	가정위탁아동패널 일부 수정	

구분	문항	출처
자립 지원 서비스 경험	35-1~3. 자립(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우선순위)	아동복지패널조사(2023) 일부 수정
	36-1~3. 자립(보호종료) 후 어려움 상담자(우선순위)	서울시 퇴소아동자립실태조사(2017)
	37. 자립(보호종료) 후 이용한 서비스(중복)	2020 자립실태조사 일부 수정
WE CARE_DREAM 사업 경험	38. 사업 참여 기수	연구진
	39. 전반적 사업 만족도 39-1. 이유	연구진
	40. 보험료 적절 정도 40-1. 이유	연구진
	41. 보험금 사용처(계획 포함)	연구진
	42. 저축보험 외 참여 서비스(중복)	연구진
	43. 저축보험 외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43-1. 이유	연구진
	44. 저축보험 외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서비스 44-1. 이유	연구진
	45. 사업 참여 전, 한화생명의 사회공헌활동 인지 정도	
	46. 사업 참여 후, 한화생명에 대한 이미지 변화 46-1. 이유	연구진
	47. 사업 참여후, (사)함께만드는세상에 대한 이미지 변화 47-1. 이유	연구진
48. 사업을 위한 제안사항	연구진	

온라인 조사 완료 후 입력된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데이터로 저장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특성, 자립 생활 현황, 사업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의 경우, WE CARE_DREAM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사례 수가 67사례에 불과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업 참여 전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 조사 결과와 비교하며 사업 참여 청년의 현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조사 대상과 규모, 조사 문항, 조사 시기 등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단순 비교에 그쳤다는 점을 밝힌다.

2.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4-2>와 같다. 전체 조사 대상은 67명이었고 그 중, 사업 1기 참여자는 15명(22.4%), 2기 참여자는 19명(28.4%)이었고 3기 참여자가 33명(49.3%)으로 가장 많았다. 3기 참여자 33명 중 9명은 저축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멤버십 활동에만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 31명(46.3%), 여자 36명(53.7%)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다. 조사 참여자 나이는 평균 만 25.5세로 20세~32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보호기간 동안 경험한 보호 서비스 유형은 아동양육시설이 36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생활가정 13명(16.5%), 대리위탁가정 12명(15.2%), 친인척 위탁가정 9명(11.4%), 일반위탁가정 4명(5.1%), 청소년쉼터(2.5%)의 순이었다. 기타(3.8%)로 응답한 경우,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친인척집을 돌아가며 지낸다는 내용이 있었다.

보호종료 당시 보호유형 역시 아동양육시설(43.3%)이 가장 많았고, 대리위탁가정(19.4%), 공동생활가정(16.4%), 친인척위탁가정(11.9%), 일반위탁가정(3.0%)의 순이었고, 그밖에 청소년쉼터, 보호치료시설, 친인척이나 자립지원관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종료 이유는 보호기간 만기퇴소의 경우가 50.7%,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종료한 경우가 41.8%였다. 중도퇴소는 2명으로 부모님과 살게 되거나, 조기 독립하게 되어 중도퇴소로 응답하였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호종료 후 기간은 5년 초과~10년 이하인 경우가 51.5%(34명)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인 경우 43.9%(29명)이었으며 10년 초과인 경우도 4.5%(3명)였다. 1명은 아직 연장보호 중이었다. 보호종료 후 평균기간은 6.9년으로 1년 미만에서 12년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만20세~2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계(%)
전체	67	100.0
참가기수		
1기	15	22.4
2기	19	28.4
3기	33	49.3
성별		
남자	31	46.3
여자	36	53.7
평균 만 나이	25.5세(표준편차 2.34)	
보호유형(중복 응답)		
아동양육시설	36	45.6
공동생활가정	13	16.5
대리위탁가정	12	15.2
친인척위탁가정	9	11.4
일반위탁가정	4	5.1
청소년쉼터	2	2.5
기타	3	3.8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43.3
공동생활가정	11	16.4
대리위탁가정	13	19.4
친인척위탁가정	8	11.9
일반위탁가정	2	3.0
청소년쉼터	1	1.5
보호치료시설	1	1.5
기타	2	3.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50.7
연장보호 후 종료	28	41.8
중도퇴소	2	3.0
기타	3	4.5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43.9
5년 초과~10년 이하	34	51.5
10년 초과	3	4.5
기타(연장보호 중)	1	1.5
보호종료 후 평균 기간	6.9년(표준편차 2.67)	

* 3기 참가자 33명 중 9명은 멤버십 활동에만 참여하고 있음(저축보험 미가입).

조사 참여자 특성에 따른 보호종료 이유를 살펴본 결과, 사업 1기 참가자의 경우 만기퇴소한 경우가 80.0%로 가장 많은 반면, 2, 3기 참여자는 만기퇴소와 연장보호 후 종료된 경우가 비슷한 수준으로 2, 3기 참여자 중 대학(원) 재학 중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표4-5> 참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자 청년은 만기퇴소와 연장보호 후 종료된 경우가 각 48.4%로 같았으나 여자 청년은 만기퇴소(52.8%)가 연장보호 후 종료(36.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보호유형에 따라 보호종료 이유도 차이가 있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받았던 청년의 79.3%가 만기퇴소한 반면, 대리위탁보호를 받았던 청년의 69.2%, 친인척위탁보호를 받았던 청년 모두(100.0%)가 연장보호 후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종료 후 기간이 5년 초과되어 오래될수록 만기퇴소한 경우가 더 많았고, 5년 이하인 경우는 연장보호 후 종료한 경우가 55.2%로 더 많았다.

이에 남자 청년에 비해 여자 청년, 아동양육시설보호를 받았던 청년, 보호종료 후 기간이 오래된 청년이 더 어린 나이에 자립생활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보호종료 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만기퇴소	연장보호 후 종료	중도퇴소	기타	계
전체	67	50.7	41.8	3.0	4.5	100.0
참가기수						
1기	15	80.0	13.3	6.7	0.0	100.0
2기	19	42.1	52.6	5.3	0.0	100.0
3기	33	42.4	48.5	0.0	9.1	100.0
성별						
남자	31	48.4	48.4	0.0	3.2	100.0
여자	36	52.8	36.1	5.6	5.6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79.3	17.2	3.4	0.0	100.0
공동생활가정	11	36.4	36.4	9.1	18.2	100.0
대리위탁가정	13	30.8	69.2	0.0	0.0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0.0	100.0	0.0	0.0	100.0
일반위탁가정	2	50.0	50.0	0.0	0.0	100.0
청소년쉼터	1	100.0	0.0	0.0	0.0	100.0
보호치료시설	1	0.0	100.0	0.0	0.0	100.0
기타	2	50.0	0.0	0.0	50.0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37.9	55.2	0.0	6.9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61.8	29.4	5.9	2.9	100.0
10년 초과	3	66.7	33.3	0.0	0.0	100.0
기타(연장보호 중)	1	0.0	0.0	0.0	100.0	100.0

조사 참여자의 보호종료 후 기간이 5년 초과에서 10년 이하인 경우가 1기 참가자의 66.7%, 3기 참가자의 54.5%로 가장 많았던 반면, 2기 참가자의 경우 5년 이하가 66.7%로 가장 많았다. 남자 청년의 54.8%가 보호종료 후 5년 초과에서 10년 이하에 해당했으며 여자 청년의 경우 5년 이하인 경우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최종보호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참여자의 72.4%가 5년 초과에서 10년 이하였다. 반면, 대리위탁가정과 친인척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참여자는 5년 이하인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리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의 보호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 보호종료 후 기간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5년 이하	5년 초과 ~ 10년 이하	10년 초과	계
전체	66	43.9	51.5	4.5	100.0
참가기수					
1기	15	26.7	66.7	6.7	100.0
2기	18	66.7	33.3	0.0	100.0
3기	33	39.4	54.5	6.1	100.0
성별					
남자	31	38.7	54.8	6.5	100.0
여자	35	48.6	48.6	2.9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20.7	72.4	6.9	100.0
공동생활가정	11	45.5	54.5	0.0	100.0
대리위탁가정	13	69.2	30.8	0.0	100.0
친인척위탁가정	7	71.4	14.3	14.3	100.0
일반위탁가정	2	50.0	50.0	0.0	100.0
청소년쉼터	1	0.0	100.0	0.0	100.0
보호치료시설	1	100.0	0.0	0.0	100.0
기타	2	100.0	0.0	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32.4	61.8	5.9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7	59.3	37.0	3.7	100.0
중도퇴소	2	0.0	100.0	0.0	100.0
기타	3	66.7	33.3	0.0	100.0

* '보호종료 후 기간'의 기타 '연장보호 중'(1건)은 데이터 분석에는 포함하지만 결과표에는 제외하여 제시함. 이후 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2) 학업 및 현재 상황

조사 참여자의 최종 학력을 보면, 대학교 졸업이 53.7%로 가장 많았고 대학 재학 중인 경우가 25.4%였다. 본 사업의 참여자는 대체로 대졸 재학 또는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는 전체의 9.9%이고, 이중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이 13.8%로 많은 편이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교 이상 졸업자 중 연장보호된 청년이 많았는데, 이는 대학 진학 사유로 연장보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5> 학력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계
전체	67	9.0	25.4	53.7	6.0	6.0	100.0
참가기수							
1기	15	33.3	20.0	40.0	6.7	0.0	100.0
2기	19	0.0	26.3	52.6	15.8	5.3	100.0
3기	33	3.0	27.3	60.6	0.0	9.1	100.0
성별							
남자	31	9.7	25.8	54.8	6.5	3.2	100.0
여자	36	8.3	25.0	52.8	5.6	8.3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13.8	24.1	55.2	3.4	3.4	100.0
공동생활가정	11	0.0	45.5	36.4	9.1	9.1	100.0
대리위탁가정	13	7.7	7.7	61.5	7.7	15.4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0.0	12.5	75.0	12.5	0.0	100.0
일반위탁가정	2	0.0	0.0	100.0	0.0	0.0	100.0
청소년쉼터	1	0.0	100.0	0.0	0.0	0.0	100.0
보호치료시설	1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2	0.0	100.0	0.0	0.0	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14.7	32.4	47.1	2.9	2.9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3.6	14.3	64.3	7.1	10.7	100.0
중도퇴소	2	0.0	0.0	50.0	50.0	0.0	100.0
기타	3	0.0	66.7	33.3	0.0	0.0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10.3	24.1	48.3	10.3	6.9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8.8	26.5	55.9	2.9	5.9	100.0
10년 초과	3	0.0	0.0	100.0	0.0	0.0	100.0
기타	1	9.1	24.2	54.5	6.1	6.1	100.0

자립 이후 학비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본 결과, 한국장학재단장학금(50.0%), 국가지원(13.1%) 등 공공지원을 통해 학비를 마련한 경우가 63.1%였다. 아동 보호통합패널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이용한 경우가 91.1%였으나, 이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보호종료 후 기간이 5년 이하인 조사 참여자가 국가지원(10.3%)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65.5%)을 지원받은 경우가 75.8%에 불과하여 공공지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학비 마련 방법(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국가 지원	민간단 체지원	한국 장학재단 장학금	한국 장학재단 대출	학교 장학금	근로 소득	금융기관/ 타인대출
전체	67	13.1	6.0	50.0	7.1	15.5	7.1	1.2
참가기수								
1기	15	0.0	13.3	66.7	0.0	20.0	6.7	0.0
2기	19	15.8	0.0	73.7	10.5	10.5	10.5	0.0
3기	33	24.2	9.1	54.5	12.1	24.2	9.1	3.0
성별								
남자	31	16.1	9.7	58.1	6.5	29.0	6.5	0.0
여자	36	16.7	5.6	66.7	11.1	11.1	11.1	2.8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17.2	3.4	62.1	3.4	13.8	0.0	0.0
공동생활가정	11	9.1	18.2	72.7	9.1	27.3	27.3	9.1
대리위탁가정	13	15.4	0.0	61.5	15.4	23.1	7.7	0.0
친인척위탁가정	8	37.5	0.0	50.0	25.0	12.5	12.5	0.0
일반위탁가정	2	0.0	50.0	100.0	0.0	0.0	17.2	0.0
청소년쉼터	1	0.0	100.0	100.0	0.0	100.0	0.0	0.0
보호치료시설	1	0.0	0.0	0.0	0.0	0.0	0.0	0.0
기타	2	0.0	0.0	50.0	0.0	50.0	0.0	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17.6	8.8	58.8	0.0	26.5	5.9	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17.9	3.6	60.7	17.9	7.1	10.7	0.0
중도퇴소	2	0.0	0.0	100.0	0.0	50.0	0.0	0.0
기타	3	0.0	33.3	100.0	33.3	33.3	33.3	33.3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10.3	0.0	65.5	10.3	10.3	10.3	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23.5	14.7	61.8	5.9	26.5	5.9	2.9
10년 초과	3	0.0	0.0	33.3	33.3	33.3	33.3	0.0

현재 조사 참여자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36.3%는 현재 취업 중이었고 다음으로 취업 준비 중(27.5%), 재학 중(21.3%), 아르바이트 중(8.9%), 진학 준비 중(5.0%)의 순이었으며, 하는 일이 없다고 한 경우는 1명(1.3%)이었다.

<표 4-7> 현재 상태(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재학 중	진학 준비 중	취업 중	아르바이트 중	취업 준비 중	하는 일 없음
전체	67	21.3	5.0	36.3	8.9	27.5	1.3
참가기수							
1기	15	13.3	6.7	53.3	0.0	33.3	6.7
2기	19	31.6	5.3	47.4	21.1	36.8	0.0
3기	33	27.3	6.1	36.4	9.1	30.3	0.0
성별							
남자	31	25.8	9.7	45.2	6.5	25.8	3.2
여자	36	25.0	2.8	41.7	13.9	38.9	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17.2	6.9	44.8	6.9	34.5	3.4
공동생활가정	11	45.5	0.0	45.5	18.2	18.2	0.0
대리위탁가정	13	23.1	15.4	30.8	7.7	46.2	0.0
친인척위탁가정	8	0.0	0.0	50.0	25.0	50.5	0.0
일반위탁가정	2	50.0	0.0	50.0	0.0	0.0	0.0
청소년쉼터	1	100.0	0.0	100.0	0.0	0.0	0.0
보호치료시설	1	0.0	0.0	100.0	0.0	0.0	0.0
기타	2	100.0	0.0	0.0	0.0	0.0	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32.4	8.8	41.2	8.8	29.4	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14.3	3.6	46.4	10.7	42.9	0.0
중도퇴소	2	0.0	0.0	50.0	0.0	0.0	0.0
기타	3	66.7	0.0	33.3	33.3	0.0	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31.0	6.0	34.5	13.8	37.9	3.4
5년 초과~10년 이하	34	23.5	5.9	47.1	5.9	29.4	0.0
10년 초과	3	0.0	0.0	100.0	0.0	0.0	0.0

3) 자립생활 실태

(1) 경제적 상황

①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보호종료 당시 받은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기타 후원금 등 총 지원금을 파악해 본 결과,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미만(25.8%), 1000만 원 이상~1500만 원 미만(21.2%), 15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9.1%)의 순이었고 20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도 있었다. 조사 참여자가 수령한 지원금은 평균 704만 원이었다. 그 중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도 8명(12.1%)이었다.

최종보호유형별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과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이 850만 원 내외를 지원받아 가장 많았고, 공동생활가정 783만 원, 대리위탁가정 570만 원, 친인척위탁가정 342만 원의 순이었다. 시설보호의 경우 자립지원서비스 접근성이 높고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8> 보호 종료 당시 수령한 총 지원금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500만 원 미만	500만~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500만 원 ~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	계	평균 지원금 액(만원)
전체	66	25.8	42.4	21.2	9.1	1.5	100.0	704
참가기수								
1기	15	20.0	40.0	13.3	20.0	6.7	100.0	830
2기	18	27.8	50.0	22.2	0.0	0.0	100.0	591
3기	33	27.3	39.4	24.2	9.1	0.0	100.0	709
성별								
남자	31	29.0	48.4	9.7	12.9	0.0	100.0	667
여자	35	22.9	37.1	31.4	5.7	2.9	100.0	737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17.2	37.9	31.0	10.3	3.4	100.0	843
공동생활가정	11	18.2	45.5	18.2	18.2	0.0	100.0	783
대리위탁가정	13	30.8	46.2	23.1	0.0	0.0	100.0	570
친인척위탁가정	7	42.9	57.1	0.0	0.0	0.0	100.0	342
일반위탁가정	2	0.0	100.0	0.0	0.0	0.0	100.0	850
청소년쉼터	1	100.0	0.0	0.0	0.0	0.0	100.0	300
보호치료시설	1	100.0	0.0	0.0	0.0	0.0	100.0	100
기타	2	50.0	0.0	0.0	50.0	0.0	100.0	75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23.5	41.2	23.5	11.8	0.0	100.0	736
연장보호 후 종료	28	25.0	50.0	17.9	3.6	0.0	96.4	627
중도퇴소	2	0.0	0.0	50.0	0.0	50.0	100.0	1500
기타	3	66.7	0.0	0.0	33.3	0.0	100.0	5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24.1	44.8	17.2	13.8	0.0	100.0	697
5년 초과~10년 이하	34	26.5	38.2	26.5	5.9	2.9	100.0	730
10년 초과	3	33.3	66.7	0.0	0.0	0.0	100.0	466

조사 참여자가 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가 각각 21.4%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 20.6%, 자립수당 18.3%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1건)도 있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8.3%였으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 58.6%, 만기퇴소한 경우 50.0%, 보호종료 후 기간이 오래된 경우 50.0%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4-9> 사회보장급여(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없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수당	기타
전체	67	18.3	21.4	20.6	21.4	18.3	1.5
참가기수							
1기	15	60.0	20.0	26.7	20.0	20.0	0.0
2기	19	31.6	42.1	31.6	52.6	42.1	0.0
3기	33	24.2	48.5	48.5	42.4	36.4	3.0
성별							
남자	31	35.5	35.5	35.5	35.5	38.7	3.2
여자	36	33.3	44.4	41.7	44.4	30.6	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58.6	31.0	24.1	34.5	13.8	0.0
공동생활가정	11	27.3	45.5	45.5	54.5	36.4	9.1
대리위탁가정	13	15.4	38.5	38.5	38.5	53.8	0.0
친인척위탁가정	8	12.5	50.0	50.0	50.0	62.5	0.0
일반위탁가정	2	0.0	50.0	100.0	50.0	50.0	0.0
청소년쉼터	1	0.0	100.0	100.0	100.0	0.0	0.0
보호치료시설	1	0.0	0.0	100.0	0.0	0.0	0.0
기타	2	0.0	100.0	50.0	0.0	100.0	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50.0	38.2	26.5	38.2	26.5	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17.9	42.9	50.0	42.9	42.9	3.6
중도퇴소	2	50.0	0.0	50.0	50.0	0.0	0.0
기타	3	0.0	66.7	66.7	33.3	66.7	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10.3	44.8	34.5	34.5	69.0	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50.0	38.2	44.1	47.1	8.8	2.9
10년 초과	3	100.0	0.0	0.0	0.0	0.0	0.0

② 취업 및 소득

조사 참여자의 현재 고용 상황을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28.4%), 정규직 임금근로자(25.4%)의 순이었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3.0%였으며, 대학교(원) 재학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일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43.3%였다. 남자 청년에 비해 여자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친인척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0> 고용형태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일하지 않음 (재학 중 포함)	계
전체	67	25.4	28.4	3.0	43.3	100.0
참가기수						
1기	15	46.7	13.3	0.0	40.0	100.0
2기	19	15.8	42.1	5.3	36.8	100.0
3기	33	21.2	27.3	3.0	48.5	100.0
성별						
남자	31	25.8	22.6	6.5	45.2	100.0
여자	36	25.0	33.3	0.0	41.7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31.0	20.7	3.4	44.8	100.0
공동생활가정	11	18.2	36.4	0.0	45.5	100.0
대리위탁가정	13	23.1	23.1	0.0	53.8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12.5	50.0	12.5	25.0	100.0
일반위탁가정	2	50.0	50.0	0.0	0.0	100.0
청소년쉼터	1	0.0	100.0	0.0	0.0	100.0
보호치료시설	1	100.0	0.0	0.0	0.0	100.0
기타	2	0.0	0.0	0.0	10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26.5	23.5	0.0	50.0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15.8	26.3	5.3	26.3	73.7
중도퇴소	2	50.0	0.0	0.0	50.0	100.0
기타	3	33.3	33.3	0.0	33.3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17.2	31.0	3.4	48.3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29.4	23.5	2.9	44.1	100.0
10년 초과	3	66.7	33.3	0.0	0.0	100.0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살펴본 결과, 월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30.3%), 100만 원 미만(27.3%), 300만 원 이상(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월 평균 소득은 1,685천원(최소 0원~최대 600만 원)이며 2022년 기준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월 평균 소득액 2,743천원(심채연·정준호, 2024)⁸⁾의 61.4%에 그치고 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6.1%(4명)로 심각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1> 월평균 소득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계	평균소득액(천원)
전체	66	27.3	30.3	33.3	9.1	100.0	1,685
참가기수							
1기	15	20.0	20.0	40.0	20.0	100.0	2,128
2기	19	26.3	31.6	42.1	0.0	100.0	1,513
3기	32	30.3	33.3	24.2	9.1	97.0	1,579
성별							
남자	30	23.3	30.0	36.7	10.0	100.0	183
여자	36	30.6	30.6	30.6	8.3	100.0	155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8	28.6	25.0	28.6	17.9	100.0	187
공동생활가정	11	9.1	54.5	36.4	0.0	100.0	157
대리위탁가정	13	38.5	7.7	46.2	7.7	100.0	162
친인척위탁가정	8	25.0	37.5	37.5	0.0	100.0	170
일반위탁가정	2	50.0	50.0	0.0	0.0	100.0	55
청소년쉼터	1	0.0	100.0	0.0	0.0	100.0	177
보호치료시설	1	0.0	0.0	100.0	0.0	100.0	230
기타	2	50.0	50.0	0.0	0.0	100.0	67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3	27.3	33.3	27.3	12.1	100.0	170
연장보호 후 종료	28	28.6	25.0	42.9	3.6	100.0	164
중도퇴소	2	50.0	0.0	0.0	50.0	100.0	200
기타	3	0.0	66.7	33.3	0.0	100.0	161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20.7	34.5	34.5	10.3	100.0	171
5년 초과~10년 이하	34	32.4	29.4	29.4	8.8	100.0	162
10년 초과	3	0.0	0.0	100.0	0.0	100.0	239

8) 2022년 기준, 수도권으로 이동한 19세~34세 이하 청년 연간 총소득은 2,743만 원,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은 2,034만 원인 것으로 조사됨(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 48-61)

조사 참여자가 가장 우선 지출하는 항목을 살펴본 결과, 식비·생필품비(38.4%), 주거비(28.3%), 교육비(15.1%)의 순이었고, 그 외에 여가문화비(6.9%), 의복·미용비(6.3%), 의료비(5.0%)로 주로 생계비와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남자 청년에 비해 여자 청년의 주거비 비율이 높았고, 아동양육시설과 친인척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경우 주거비, 대리위탁가정과 친인척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경우 의료비와 여가문화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2> 지출(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식비/ 생필품비	의복/ 미용	여가 문화비
전체	67	28.3	15.1	5.0	38.4	6.3	6.9
참가기수							
1기	15	66.7	33.3	13.3	80.0	33.3	13.3
2기	19	73.7	36.8	10.5	94.7	10.5	21.1
3기	33	63.6	36.4	12.1	93.9	9.1	15.2
성별							
남자	31	54.8	32.3	16.1	90.3	12.9	19.4
여자	36	77.8	38.9	8.3	91.7	16.7	13.9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75.9	41.4	6.9	89.7	10.3	6.9
공동생활가정	11	54.5	18.2	9.1	100.0	18.2	18.2
대리위탁가정	13	61.5	30.8	23.1	92.3	23.1	38.5
친인척위탁가정	8	87.5	37.5	25.0	87.5	12.5	25.0
일반위탁가정	2	50.0	50.0	0.0	100.0	0.0	0.0
청소년쉼터	1	100.0	0.0	0.0	100.0	0.0	0.0
보호치료시설	1	0.0	0.0	0.0	100.0	100.0	0.0
기타	2	0.0	100.0	0.0	50.0	0.0	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67.6	38.2	5.9	88.2	11.8	11.8
연장보호 후 종료	28	75.0	28.6	21.4	92.9	17.9	25.0
중도퇴소	2	50.0	50.0	0.0	100.0	0.0	0.0
기타	3	0.0	66.7	0.0	100.0	33.3	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75.9	48.3	17.2	86.2	17.2	20.7
5년 초과~10년 이하	34	55.9	26.5	8.8	94.1	11.8	14.7
10년 초과	3	100.0	33.3	0.0	100.0	33.3	0.0

조사 참여자의 총 저축액을 살펴본 결과, 2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26.2%), 500만원 미만(18.5%), 1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미만(18.5%), 15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미만(6.2%)의 순이었다. 평균 저축액은 1630만원으로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의 결과 902.9만원에 비해 약 1.8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자 청년, 대리·친인척·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받았던 청년, 보호종료된 후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10년 초과된 청년의 저축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4-13> 총 저축액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500만 원 미만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500만 원~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	계	평균 저축액 (만 원)
전체	65	18.5	26.2	18.5	6.2	30.8	100.0	1,630
참가기수								
1기	15	13.3	6.7	26.7	6.7	46.7	100.0	1,829
2기	18	16.7	38.9	27.8	0.0	16.7	100.0	1,092
3기	32	21.9	28.1	9.4	9.4	31.3	100.0	1,840
성별								
남자	30	16.7	20.0	23.3	10.0	30.0	100.0	1,862
여자	35	20.0	31.4	14.3	2.9	31.4	100.0	1,432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8	17.9	14.3	17.9	3.6	46.4	100.0	2,119
공동생활가정	10	0.0	40.0	10.0	20.0	30.0	100.0	1,374
대리위탁가정	13	30.8	38.5	15.4	0.0	15.4	100.0	1,001
친인척위탁가정	8	0.0	50.0	50.0	0.0	0.0	100.0	812
일반위탁가정	2	50.0	0.0	0.0	50.0	0.0	100.0	775
청소년쉼터	1	0.0	0.0	0.0	0.0	100.0	100.0	8,000
보호치료시설	1	100.0	0.0	0.0	0.0	0.0	100.0	40
기타	2	50.0	0.0	0.0	0.0	50.0	100.0	1,894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2	21.9	15.6	15.6	6.3	40.6	100.0	1,860
연장보호 후 종료	28	17.9	39.3	25.0	3.6	14.3	100.0	1,202
중도퇴소	2	0.0	50.0	0.0	0.0	50.0	100.0	2,900
기타	3	0.0	0.0	0.0	33.3	66.7	100.0	2,329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8	25.0	32.1	25.0	7.1	10.7	100.0	1,2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14.7	17.6	14.7	5.9	47.1	100.0	2,040
10년 초과	2	0.0	50.0	0.0	0.0	50.0	100.0	1,250

조사 참여자 중 현재 취업 중인 참여자는 36.3%였으며, 재학 중인 청년을 포함한 63.7%는 취업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67.7%로 가장 많았고, 관련 경험 쌓기(15.4%), 구직정보 찾기(9.2%), 기타(3.1%)의 순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반면,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취업을 위한 노력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직업훈련	관련 경험쌓기	구직정보 찾기	준비하지 않음	기타	계
전체	65	67.7	15.4	9.2	4.6	3.1	100.0
참가기수							
1기	14	64.3	0.0	28.6	7.1	0.0	100.0
2기	19	63.2	31.6	0.0	5.3	0.0	100.0
3기	32	71.9	12.5	6.3	3.1	6.3	100.0
성별							
남자	29	65.5	13.8	6.9	6.9	6.9	100.0
여자	36	69.4	16.7	11.1	2.8	0.0	100.0
최종보호유형							
이동양육시설	28	71.4	7.1	14.3	7.1	0.0	100.0
공동생활가정	11	54.5	27.3	0.0	9.1	9.1	100.0
대리위탁가정	12	75.0	16.7	8.3	0.0	0.0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75.0	25.0	0.0	0.0	0.0	100.0
일반위탁가정	2	100.0	0.0	0.0	0.0	0.0	100.0
청소년쉼터	1	100.0	0.0	0.0	0.0	0.0	100.0
보호치료시설	1	0.0	0.0	100.0	0.0	0.0	100.0
기타	2	0.0	50.0	0.0	0.0	5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64.7	11.8	11.8	8.8	2.9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6	73.1	19.2	7.7	0.0	0.0	100.0
중도퇴소	2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3	50.0	50.0	0.0	0.0	50.0	15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8	60.7	21.4	7.1	3.6	7.1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3	72.7	12.1	12.1	3.0	0.0	100.0
10년 초과	3	66.7	0.0	0.0	33.3	0.0	100.0

취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취업의 어려움은 학력·기술·자격 부족이라고 하는 경우가 26.9%로 가장 많았고, 적성을 잘 모른다는 경우도 22.4%로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직종 관련 경험 부족을 제시한 경우가 19.4%였고 보수 7.5%, 취업 정보 부족 6.0%, 근로환경·시간 등이 맞지 않는 경우 6.0%, 외모·신체적 결함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취업 준비를 위한 돈 부족, 학업 성적 부진 등의 기타(9.0%)의 경우도 있었다.

<표 4-15> 취업 어려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취업정 보부족	적성 잘 모름	직종 관련 경험 부족	근로환경·시간등이 맞지 않음	보수가 맞지 않음	학력, 기술, 자격 부족	외모/신체적 결함	기타	계
전체	67	6.0	22.4	19.4	6.0	7.5	26.9	3.0	9.0	100.0
참가기수										
1기	15	6.7	26.7	26.7	0.0	6.7	26.7	0.0	6.7	100.0
2기	19	5.3	31.6	21.1	5.3	0.0	26.3	0.0	10.5	100.0
3기	33	6.1	15.2	15.2	9.1	12.1	27.3	6.1	9.1	100.0
성별										
남자	31	3.2	16.1	16.1	9.7	12.9	25.8	3.2	12.9	100.0
여자	36	8.3	27.8	22.2	2.8	2.8	27.8	2.8	5.6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0.0	24.1	20.7	0.0	6.9	34.5	3.4	10.3	100.0
공동생활가정	11	18.2	9.1	27.3	27.3	9.1	0.0	0.0	9.1	100.0
대리위탁가정	13	7.7	15.4	23.1	7.7	15.4	30.8	0.0	0.0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0.0	37.5	12.5	0.0	0.0	37.5	0.0	12.5	100.0
일반위탁가정	2	50.0	0.0	0.0	0.0	0.0	50.0	0.0	0.0	100.0
청소년쉼터	1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보호치료시설	1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기타	2	0.0	50.0	0.0	0.0	0.0	0.0	0.0	5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5.9	17.6	20.6	0.0	11.8	32.4	2.9	8.8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7.1	25.0	17.9	14.3	0.0	25.0	3.6	7.1	100.0
중도퇴소	2	0.0	50.0	50.0	0.0	0.0	0.0	0.0	0.0	100.0
기타	3	0.0	33.3	0.0	0.0	33.3	0.0	0.0	33.3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3.4	34.5	24.1	3.4	3.4	20.7	0.0	10.3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8.8	14.7	17.6	8.8	8.8	26.5	5.9	8.8	100.0
10년 초과	3	0.0	0.0	0.0	0.0	33.3	66.7	0.0	0.0	100.0

③ 사회적 박탈 정도

조사 참여자의 지난 1년간 사회적 박탈정도를 살펴본 결과, 67명 중 1개 이상의 사회적 박탈을 경험한 참여자는 33명(49.3%)이었고, 10점 만점 기준 평균 2.00이었다.

사업참가기수 중 2기 참가자가 1.70으로 가장 낮았고, 1기 참가자가 2.43으로 가장 높았다. 최종보호유형 중 사회적 박탈 정도가 높았던 경우는 아동양육시설(2.58)이었고 공동생활가정(2.00), 대리위탁가정(1.70), 친인척위탁가정(1.33)의 순이었다. 시설보호 경험자(2.58), 만기퇴소한 경우(2.31), 정부의 자립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보호 종료 후 5년이 초과에서 10년 이하인 경우(2.44)의 사회적 박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6> 사회적 박탈(평균)

(단위: 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	2.00	1.44
참가기수			
1기	7	2.43	1.13
2기	10	1.70	.82
3기	16	2.00	1.83
성별			
남자	12	2.00	.85
여자	21	2.00	1.7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2	2.58	2.11
공동생활가정	3	2.00	.00
대리위탁가정	10	1.70	.82
친인척위탁가정	6	1.33	.52
일반위탁가정	1	1.00	-
보호치료시설	1	3.00	-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16	2.31	1.82
연장보호 후 종료	16	1.69	.95
기타	1	2.00	-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2	1.91	.92
5년 초과~10년 이하	9	2.44	2.35
10년 초과	1	1.00	-

*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VII-자립준비청년 설문문항에 본 연구진이 추가한 '㉠ 은행이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문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임.

조사 참여자가 경험한 사회적 박탈은 은행이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15.0%로 가장 많았고,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사지 못하는 경우 12.0%,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스 등이 끊긴 적이 있는 경우 11.0%, 냉·난방을 못한 경우 8.0%,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 8.0%, 학비·학원비 등 교육비를 내지 못한 경우 7.0% 등이었다.

<표 4-17> 사회적 박탈(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집세 연체	공과금 연체	보험급여 자격박탈	먹을 것 사지못함	교육비 연체	냉난방 못함	치료 못함	카드비 연체/ 정지	돈을 빌림	신용 불량
전체	33	1.0	11.0	1.0	12.0	7.0	8.0	8.0	2.0	15.0	1.0
참가기수											
1기	7	0.0	20.0	6.7	26.7	0.0	13.3	20.0	6.7	20.0	6.7
2기	10	0.0	10.5	0.0	10.5	21.1	15.8	10.5	0.0	21.1	0.0
3기	16	3.0	1.8	0.0	18.2	9.1	9.1	9.1	3.0	24.2	0.0
성별											
남자	12	0.0	9.7	0.0	12.9	6.5	12.9	12.9	0.0	22.6	0.0
여자	21	2.8	22.2	2.8	22.2	13.9	11.1	11.1	5.6	22.2	2.8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2	3.4	20.7	3.4	13.8	15.8	10.3	17.2	6.9	17.2	3.4
공동생활가정	3	0.0	9.1	0.0	18.2	0.0	18.2	0.0	0.0	9.1	0.0
대리위탁가정	10	0.0	15.4	0.0	23.1	7.7	23.1	15.4	0.0	46.2	0.0
친인척위탁가정	6	0.0	0.0	0.0	25.0	37.5	0.0	12.5	0.0	25.0	0.0
일반위탁가정	1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청소년쉼터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보호치료시설	1	0.0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16	2.9	20.6	2.9	14.7	8.8	17.6	14.7	5.9	20.6	0.0
연장보호 후 종료	16	0.0	14.3	0.0	21.4	0.0	7.1	10.7	0.0	25.0	3.6
중도퇴소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1	0.0	0.0	0.0	33.3	0.0	0.0	0.0	0.0	33.3	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2	0.0	20.7	3.4	17.2	17.2	13.8	10.3	3.4	34.5	0.0
5년 초과~10년 이하	9	2.9	14.7	0.0	14.7	5.9	11.8	14.7	2.9	14.7	2.9
10년 초과	1	0.0	0.0	0.0	33.3	0.0	0.0	0.0	0.0	0.0	0.0

(2) 주거 상황

조사 참여자가 자립 후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89.6%가 혼자 살고 있었고 2인 이상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10.4%였다. 최종보호유형 중 대리위탁가정에서 보호받았던 청년이 2인 이상 같이 사는 경우가 23.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혼자 사는 경우는 아동양육시설 보호 종료된 청년이 93.1%로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동거인 수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혼자 살고 있음	2인 이상 같이 살고 있음	계
전체	67	89.6	10.4	100.0
참가기수				
1기	15	100.0	0.0	100.0
2기	19	84.2	15.8	100.0
3기	33	87.9	12.1	100.0
성별				
남자	31	90.3	9.7	100.0
여자	36	88.9	11.1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93.1	6.9	100.0
공동생활가정	11	81.8	18.2	100.0
대리위탁가정	13	76.9	23.1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100.0	0.0	100.0
일반위탁가정	2	100.0	0.0	100.0
청소년쉼터	1	100.0	0.0	100.0
보호치료시설	1	100.0	0.0	100.0
기타	2	100.0	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85.3	14.7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96.4	3.6	100.0
중도퇴소	2	100.0	0.0	100.0
기타	3	66.7	33.3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89.7	10.3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88.2	11.8	100.0
10년 초과	3	100.0	0.0	100.0

조사 참여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 소유 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LH·SH를 포함한 본인 명의로 구한 집에 살고 있었고(89.6%), 양육시설·그룹홈·자립생활관 등 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3.0%, 회사나 학교의 기숙사에서 지내는 경우 3.0%, 친구나 지인의 집에서 지내는 경우 1.5%였다. 한편,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3.0%(2명)로 여전히 주거지가 불안정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지 해결은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조사에서 본인 명의로 구한 집을 제외한 11.4%는 모두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갖고 있다. 시설, 기숙사, 친구나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더라도 모두 이용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주거지를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거 불안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4-19> 주거지 소유 유형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시설 (양육시설, 그룹홈, 자립생활관 등)	기숙사 (회사, 학교 등)	본인 명의로 구한 집 (LH, SH 지원 등)	친구, 지인의 집	주거 일정하지 않음	계
전체	67	3.0	3.0	89.6	1.5	3.0	100.0
참가기수							
1기	15	0.0	6.7	93.3	0.0	0.0	100.0
2기	19	0.0	0.0	100.0	0.0	0.0	100.0
3기	33	6.1	3.0	81.8	3.0	6.1	100.0
성별							
남자	31	0.0	6.5	87.1	0.0	6.5	100.0
여자	36	5.6	0.0	91.7	2.8	0.0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0.0	0.0	93.1	3.4	3.4	100.0
공동생활가정	11	0.0	0.0	90.9	0.0	9.1	100.0
대리위탁가정	13	0.0	7.7	92.3	0.0	0.0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12.5	0.0	87.5	0.0	0.0	100.0
일반위탁가정	2	0.0	0.0	100.0	0.0	0.0	100.0
청소년쉼터	1	0.0	0.0	100.0	0.0	0.0	100.0
보호치료시설	1	0.0	0.0	100.0	0.0	0.0	100.0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0.0	2.9	94.1	0.0	2.9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3.6	3.6	89.3	3.6	0.0	100.0
중도퇴소	2	0.0	0.0	100.0	0.0	0.0	100.0
기타	3	33.3	0.0	33.3	0.0	33.3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6.9	6.9	82.8	0.0	3.4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0.0	0.0	94.1	2.9	2.9	100.0
10년 초과	3	0.0	0.0	100.0	0.0	0.0	100.0

현재 지내고 있는 주거지의 구조·성능 및 환경 상황을 확인한 결과,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응답한 경우 23.3%로 가장 많았고,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한 경우 20.3%,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우 18.0%,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춘 경우 18.0%,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에 노출되지 않는다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조사 참여자들이 자신의 주거지 환경에 만족하는 경우는 20% 미만으로 주거지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4-20> 주거지 환경(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양호한 재질 (내열·내화·방열· 방습)	적절한 방음·환기· 채광·난방	소음·진동, 악취·대기 오염 안전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	전기·화재 안전설비/ 구조
전체	67	23.3	20.3	14.0	18.0	18.0
참가기수						
1기	15	46.7	46.7	33.3	46.7	46.7
2기	19	52.6	57.9	21.1	31.6	21.1
3기	33	69.7	51.5	45.5	54.5	60.6
성별						
남자	31	51.6	51.6	35.5	45.2	48.4
여자	36	66.7	52.8	36.1	47.2	44.4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62.1	44.8	34.5	51.7	41.4
공동생활가정	11	54.5	54.5	27.3	27.3	45.5
대리위탁가정	13	46.2	61.5	53.8	38.5	53.8
친인척위탁가정	8	62.5	75.0	37.5	62.5	37.5
일반위탁가정	2	100.0	0.0	0.0	50.0	100.0
청소년쉼터	1	100.0	0.0	100.0	100.0	100.0
보호치료시설	1	100.0	100.0	0.0	0.0	0.0
기타	2	50.0	50.0	0.0	50.0	5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65.5	44.1	32.4	47.1	38.2
연장보호 후 종료	28	52.9	57.1	39.3	42.9	53.6
중도퇴소	2	0.0	50.0	0.0	0.0	0.0
기타	3	100.0	100.0	66.7	100.0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58.6	51.7	31.0	37.9	44.8
5년 초과~10년 이하	34	58.8	47.1	38.2	52.9	50.0
10년 초과	3	66.7	100.0	66.7	66.7	33.3

조사 참여자의 주거비용은 2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8.4%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 이상에서 40만 원 미만 19.4%, 50만 원 이상 14.9%, 10만 원 미만 13.4%, 4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13.4%의 순이었다. 사업 1기 참가자(33만 원), 여자 청년(30만 원), 아동양육시설보호 종료 청년(32만 원)의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주거비용은 28만 원으로 시설이나 가족과 지내 주거비가 없는 경우부터 최대 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 결과, 월세 평균비용이 14.4만 원인 것과 단순 비교해 본다면 약 2배 정도 주거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1> 월 평균 주거비용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10만 원 미만	10만 원~20만 원 미만	20만 원~ 30만 원 미만	30만 원~ 40만 원 미만	40만 원~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계	평균 비용 (만 원)
전체	67	13.4	10.4	28.4	19.4	13.4	14.9	100.0	28
참가기수									
1기	15	0.0	0.0	40.0	20.0	33.3	6.7	100.0	33
2기	19	15.8	15.8	21.1	26.3	10.5	10.5	100.0	26
3기	33	18.2	12.1	27.3	15.2	6.1	21.2	100.0	26
성별									
남자	31	12.9	16.1	32.3	22.6	6.5	9.7	100.0	25
여자	36	13.9	5.6	25.0	16.7	19.4	19.4	100.0	3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0.0	10.3	37.9	20.7	13.8	17.2	100.0	32
공동생활가정	11	18.2	9.1	9.1	27.3	27.3	9.1	100.0	28
대리위탁가정	13	23.1	7.7	30.8	15.4	0.0	23.1	100.0	26
친인척위탁가정	8	25.0	0.0	37.5	25.0	0.0	12.5	100.0	24
일반위탁가정	2	0.0	100.0	0.0	0.0	0.0	0.0	100.0	14
청소년쉼터	1	0.0	0.0	0.0	0.0	100.0	0.0	100.0	40
보호치료시설	1	0.0	0.0	0.0	0.0	100.0	0.0	100.0	40
기타	2	100.0	0.0	0.0	0.0	0.0	0.0	100.0	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11.8	8.8	32.4	11.8	20.6	14.7	100.0	29
연장보호 후 종료	28	10.7	10.7	25.0	28.6	7.1	17.9	100.0	28
중도퇴소	2	50.0	0.0	0.0	50.0	0.0	0.0	100.0	15
기타	3	33.3	33.3	33.3	0.0	0.0	0.0	100.0	13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20.7	10.3	13.8	27.6	6.9	20.7	100.0	28
5년 초과~10년 이하	34	8.8	8.8	38.2	14.7	17.6	11.8	100.0	27
10년 초과	3	0.0	33.3	33.3	0.0	33.3	0.0	100.0	29

조사 참여자의 주거비 부담정도를 살펴본 결과,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59.7%(약간 부담+매우 부담)로 부담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40.3%(거의 부담되지 않음+전혀 부담되지 않음)보다 더 많았다. 주거비 부담정도는 평균 1.67(4점 만점)이었고,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사업 1기 참가자(1.73), 여자 청년(1.78),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청년(1.79), 보호종료 후 기간이 5년 이하인 청년(1.83)의 주거비 부담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주거비 부담정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	약간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	13.4	26.9	38.8	20.9	100.0	1.67(.96)
참가기수							
1기	15	0.0	33.3	60.0	6.7	100.0	1.73(.59)
2기	19	10.5	21.1	42.1	26.3	100.0	1.84(.96)
3기	33	21.2	27.3	27.3	24.2	100.0	1.55(1.09)
성별							
남자	31	12.9	41.9	22.6	22.6	100.0	1.55(.99)
여자	36	13.9	13.9	52.8	19.4	100.0	1.78(.93)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6.9	27.6	44.8	20.7	100.0	1.79(.86)
공동생활가정	11	18.2	18.2	36.4	27.3	100.0	1.73(1.10)
대리위탁가정	13	7.7	38.5	30.8	23.1	100.0	1.69(.95)
친인척위탁가정	8	12.5	37.5	37.5	12.5	100.0	1.50(.93)
일반위탁가정	2	50.0	0.0	0.0	50.0	100.0	1.50(2.12)
청소년쉼터	1	0.0	0.0	100.0	0.0	100.0	2.00
보호치료시설	1	0.0	0.0	100.0	0.0	100.0	2.00
기타	2	100.0	0.0	0.0	0.0	100.0	0.0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14.7	17.6	47.1	20.6	100.0	1.74(.96)
연장보호 후 종료	28	7.1	35.7	32.1	25.0	100.0	1.75(.93)
중도퇴소	2	50.0	0.0	50.0	0.0	100.0	1.00(1.41)
기타	3	33.3	66.7	0.0	0.0	100.0	0.67(.58)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13.8	20.7	34.5	31.0	100.0	1.83(1.04)
5년 초과~10년 이하	34	14.7	32.4	38.2	14.7	100.0	1.53(.93)
10년 초과	3	0.0	33.3	66.7	0.0	100.0	1.67(.5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 경우가 52.2%(매우 만족+만족하는 편),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10.5%(전혀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는 편)로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주택 만족도는 평균 3.57(5점 만점)이었다.

<표 4-23> 거주 주택 만족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 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	1.5	9.0	37.3	35.8	16.4	100.0	3.57(.92)
참가기수								
1기	15	0.0	20.0	46.7	33.3	0.0	100.0	3.13(.74)
2기	19	0.0	0.0	36.8	36.8	26.3	100.0	3.89(.81)
3기	33	3.0	9.1	33.3	36.4	18.2	100.0	3.58(1.00)
성별								
남자	31	3.2	6.5	35.5	41.9	12.9	100.0	3.55(.93)
여자	36	0.0	11.1	38.9	30.6	19.4	100.0	3.58(.94)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0.0	10.3	48.3	24.1	17.2	100.0	3.48(.91)
공동생활가정	11	0.0	9.1	45.5	45.5	0.0	100.0	3.36(.67)
대리위탁가정	13	7.7	7.7	30.8	23.1	30.8	100.0	3.62(1.26)
친인척위탁가정	8	0.0	0.0	12.5	75.0	12.5	100.0	4.00(.53)
일반위탁가정	2	0.0	0.0	50.0	0.0	50.0	100.0	4.00(1.41)
청소년쉼터	1	0.0	0.0	0.0	100.0	0.0	100.0	4.00
보호치료시설	1	0.0	0.0	0.0	100.0	0.0	100.0	4.00
기타	2	0.0	50.0	0.0	50.0	0.0	100.0	3.00(1.41)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2.9	5.9	47.1	29.4	14.7	100.0	3.47(.93)
연장보호 후 종료	28	0.0	7.1	28.6	42.9	21.4	100.0	3.79(.88)
중도퇴소	2	0.0	50.0	0.0	50.0	0.0	100.0	3.00(1.41)
기타	3	0.0	33.3	33.3	33.3	0.0	100.0	3.00(1.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3.4	10.3	31.0	41.4	13.8	100.0	3.52(.99)
5년 초과~10년 이하	34	0.0	8.8	41.2	32.4	17.6	100.0	3.59(.89)
10년 초과	3	0.0	0.0	66.7	33.3	0.0	100.0	3.33(.58)

(3) 건강 및 일상생활

조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평소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8.2%(매우 건강+건강한 편),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9%였고, 29.9%는 보통이라 응답하였다. 평소 건강 정도는 평균 3.49(5점 만점)로 비교적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24> 평소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		11.9	29.9	55.2	3.0	100.0	3.49(.75)
참가기수								
1기	15		13.3	26.7	60.0	0.0	100.0	3.47(.74)
2기	19		10.5	31.6	52.6	5.3	100.0	3.53(.77)
3기	33		12.1	30.3	54.5	3.0	100.0	3.48(.76)
성별								
남자	31		16.1	19.4	58.1	6.5	100.0	3.55(.85)
여자	36		8.3	38.9	52.8	0.0	100.0	3.44(.65)
최종보호유형								
이동양육시설	29		10.3	41.4	44.8	3.4	100.0	3.41(.73)
공동생활가정	11		0.0	36.4	63.6	0.0	100.0	3.64(.50)
대리위탁가정	13		15.4	15.4	61.5	7.7	100.0	3.62(.87)
친인척위탁가정	8		12.5	25.0	62.5	0.0	100.0	3.50(.76)
일반위탁가정	2		50.0	0.0	50.0	0.0	100.0	3.00(1.41)
청소년쉼터	1		0.0	0.0	100.0	0.0	100.0	4.00
보호치료시설	1		0.0	0.0	100.0	0.0	100.0	4.00
기타	2		50.0	0.0	50.0	0.0	100.0	3.00(1.41)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11.8	32.4	55.9	0.0	100.0	3.44(.70)
연장보호 후 종료	28		10.7	25.0	57.1	7.1	100.0	3.61(.79)
중도퇴소	2		0.0	50.0	50.0	0.0	100.0	3.50(.71)
기타	3		33.3	33.3	33.3	0.0	100.0	3.00(1.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10.3	20.7	69.0	0.0	100.0	3.59(.68)
5년 초과~10년 이하	34		14.7	32.4	47.1	5.9	100.0	3.44(.82)
10년 초과	3		0.0	10.0	0.0	0.0	10.0	3.00(.00)

한편, 특정 장애나 진단받은 질병이 있는지 파악해 본 결과, 장애나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4%(17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뇌종양, 다낭성난소증후군, 다리운동기능장애, 메니에르, 미주신경성실신, 이석증, 위염, 자궁경부암, 천식, 측추관협착증, 통풍, 퇴행성디스크, 크론병 등’으로 대체로 만성적인 증상을 갖고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질병이었다.

<표 4-25> 장애·질병 유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다	없다	계
전체	67	25.4	74.6	100.0
참가기수				
1기	15	6.7	93.3	100.0
2기	19	26.3	73.7	100.0
3기	33	33.3	66.7	100.0
성별				
남자	31	25.8	74.2	100.0
여자	36	25.0	75.0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13.8	86.2	100.0
공동생활가정	11	9.1	90.9	100.0
대리위탁가정	13	46.2	53.8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50.0	50.0	100.0
일반위탁가정	2	50.0	50.0	100.0
청소년쉼터	1	0.0	100.0	100.0
보호치료시설	1	0.0	100.0	100.0
기타	2	50.0	5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17.6	82.4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32.1	67.9	100.0
중도퇴소	2	50.0	50.0	100.0
기타	3	33.3	66.7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27.6	72.4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23.5	76.5	100.0
10년 초과	3	0.0	100.0	100.0

(4) 심리·정서적 상황

조사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 보았다. 삶의 만족도는 0~10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6.40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다.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 조사에서는 평균 5.40이었던 것에 비해 본 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여자 청년(6.11),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청년(5.91), 중도퇴소 청년(6.0), 보호종료 후 기간이 10년이 지난 청년(6.0)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26> 삶의 만족도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	6.40	1.06	
참가기수				
1기	15	6.40	1.06	
2기	19	6.32	1.42	
3기	33	6.45	1.67	
성별				
남자	31	6.74	1.63	
여자	36	6.11	1.26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6.41	1.55	
공동생활가정	11	5.91	1.30	
대리위탁가정	13	6.46	1.61	
친인척위탁가정	8	6.75	1.28	
일반위탁가정	2	7.50	.71	
청소년쉼터	1	6.00	.	
보호치료시설	1	7.00	.	
기타	2	5.90	2.69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6.32	1.44	
연장보호 후 종료	28	6.57	1.50	
중도퇴소	2	6.00	1.41	
기타	3	6.00	2.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6.34	1.31	
5년 초과~10년 이하	34	6.47	1.62	
10년 초과	3	6.00	1.73	

조사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살펴 보았다. 미래 안정성은 0~10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가 안정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참여자의 미래 안정성 정도는 평균 6.04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다.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 조사에서는 평균 5.10이었던 것에 비해 본 사업 참여자의 미래 안정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자 청년(5.89),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청년(5.73), 중도퇴소 청년(5.0)이 상대적으로 미래 안정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27> 미래 안정성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	6.04	1.91
참가기수			
1기	15	5.93	1.58
2기	19	6.16	1.71
3기	33	6.03	2.19
성별			
남자	31	6.23	1.82
여자	36	5.89	2.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6.03	2.01
공동생활가정	11	5.73	1.10
대리위탁가정	13	6.15	2.34
친인척위탁가정	8	6.00	2.33
일반위탁가정	2	7.50	.71
청소년쉼터	1	8.00	.
보호치료시설	1	5.00	.
기타	2	5.50	.71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5.82	1.78
연장보호 후 종료	28	6.39	2.17
중도퇴소	2	5.00	.00
기타	3	6.00	1.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6.14	1.71
5년 초과~10년 이하	34	6.06	2.12
10년 초과	3	6.00	1.00

조사 참여자의 우울 및 불안 정도를 살펴 보았다. 우울 및 불안 정도는 0~9 점(합산 총 27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참여자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평균 10.19였다.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 조사에서는 평균 9.70이었던 것에 비해 본 사업 참여자의 우울 및 불안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여자 청년(11.56)이 남자 청년(8.61)에 비해 우울 및 불안 정도가 더 높았고, 2기 사업 참여자(9.68), 친인척위탁가정 보호종료 청년(9.13), 연장보호 후 종료 청년(9.43), 보호종료 후 10년 초과한 청년(9.67)의 우울 및 불안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친인척 등의 인적 자원의 확보되고 연장보호 또는 보호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년의 우울 및 불안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8> 우울 및 불안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	10.19	4.05
참가기수				
	1기	15	10.87	2.70
	2기	19	9.68	4.28
	3기	33	10.18	4.47
성별				
	남자	31	8.61	4.06
	여자	36	11.56	3.57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10.55	3.99
	공동생활가정	11	10.09	4.09
	대리위탁가정	13	10.23	4.62
	친인척위탁가정	8	9.13	4.19
	일반위탁가정	2	7.00	.
	청소년쉼터	1	15.00	.
	보호치료시설	1	9.00	.
	기타	2	11.00	5.66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10.74	3.89
	연장보호 후 종료	28	9.43	4.33
	중도퇴소	2	11.00	2.83
	기타	3	10.67	4.51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10.52	4.08
	5년 초과~10년 이하	34	9.97	4.30
	10년 초과	3	9.67	.58

(5) 사회적 관계

조사 참여자가 원가족과 연락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1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10.4%가 6개월에 한번 정도, 7.5%가 3개월에 한번 정도, 6.0%가 1년에 한번 정도 연락하고 있었다. 1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볼 때, 여자 청년,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청년,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청년이 원가족과 상대적으로 적게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가족과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는데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 조사에서는 거의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2.0%인 것에 비해 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아동보호통합패널 조사참여의 경우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192명)이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청년(99명)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던 것에 반면, 본 조사 참여자 중 가정위탁보호 종료 청년은 23명으로 전체 34.3%에 불과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9> 원가족 연락 빈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1년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6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3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1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계
전체	67	38.8	6.0	10.4	7.5	37.3	100.0
참가기수							
1기	15	60.0	0.0	6.7	6.7	26.7	100.0
2기	19	26.3	5.3	5.3	15.8	47.4	100.0
3기	33	36.4	9.1	15.2	3.0	36.4	100.0
성별							
남자	31	32.3	6.5	12.9	6.5	41.9	100.0
여자	36	44.4	5.6	8.3	8.3	33.3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58.6	3.4	6.9	3.4	27.6	100.0
공동생활가정	11	45.5	18.2	9.1	9.1	18.2	100.0
대리위탁가정	13	0.0	7.7	15.4	7.7	69.2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0.0	0.0	12.5	25.0	62.5	100.0
일반위탁가정	2	50.0	0.0	0.0	0.0	50.0	100.0
청소년쉼터	1	100.0	0.0	0.0	0.0	0.0	100.0
보호치료시설	1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2	50.0	0.0	50.0	0.0	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50.0	0.0	8.8	5.9	35.3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17.9	10.7	14.3	10.7	46.4	100.0
중도퇴소	2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3	66.7	33.3	0.0	0.0	0.0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24.1	3.4	17.2	10.3	44.8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52.9	8.8	5.9	2.9	29.4	100.0
10년 초과	3	33.3	0.0	0.0	33.3	33.3	100.0

* 원가족에는 부모 외에 조부모, 친인척이 해당됨

조사 참여자가 원가족과 연락할 때 95.0%가 일상적인 안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5.0%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상담하기 위한 경우였다. 이를 통해 조사 참여자들이 원가족과 연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30> 원가족 연락 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일상 안부 전달	고민 상담	계
전체	40	95.0	5.0	100.0
참가기수				
1기	6	100.0	0.0	100.0
2기	13	100.0	0.0	100.0
3기	21	90.5	9.5	100.0
성별				
남자	20	95.0	5.0	100.0
여자	20	95.0	5.0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2	91.7	8.3	100.0
공동생활가정	6	100.0	0.0	100.0
대리위탁가정	12	100.0	0.0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100.0	0.0	100.0
일반위탁가정	1	100.0	0.0	100.0
청소년쉼터	0	0.0	0.0	0.0
보호치료시설	0	0.0	0.0	0.0
기타	1	0.0	10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16	93.8	6.3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3	95.7	4.3	100.0
중도퇴소	0	0.0	0.0	0.0
기타	1	100.0	0.0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1	95.2	4.8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16	93.8	6.3	100.0
10년 초과	2	100.0	0.0	100.0

* 원가족에는 부모 외에 조부모, 친인척이 해당됨

원가족을 제외하고 조사 참여자가 보호받았던 시설과 위탁부모와 얼마나 연락하고 지내는지를 살펴 보았다. 1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하는 경우가 26.9%로 가장 많았고 6개월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번 정도 연락하는 경우가 각각 16.4%, 3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하는 경우가 11.9%였다. 1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볼 때, 여자 청년,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청년,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청년이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 적게 연락하고 있었다.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경우는 28.5%로,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의 결과 25.0%보다 다소 높았다.

<표 4-31> 시설 선생님, 위탁부모 연락 빈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1년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6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3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1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계
전체	67	28.4	16.4	16.4	11.9	26.9	100.0
참가기수							
1기	15	13.3	26.7	26.7	6.7	26.7	100.0
2기	19	26.3	15.8	21.1	10.5	26.3	100.0
3기	33	36.4	12.1	9.1	15.2	27.3	100.0
성별							
남자	31	25.8	19.4	9.7	9.7	35.5	100.0
여자	36	30.6	13.9	22.2	13.9	19.4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24.1	24.1	24.1	17.2	10.3	100.0
공동생활가정	11	54.5	0.0	18.2	0.0	27.3	100.0
대리위탁가정	13	38.5	15.4	0.0	15.4	30.8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12.5	12.5	25.0	0.0	50.0	100.0
일반위탁가정	2	0.0	0.0	0.0	0.0	100.0	100.0
청소년쉼터	1	0.0	0.0	0.0	0.0	100.0	100.0
보호치료시설	1	0.0	100.0	0.0	0.0	0.0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23.5	14.7	23.5	17.6	20.6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25.0	21.4	10.7	7.1	35.7	100.0
중도퇴소	2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3	66.7	0.0	0.0	0.0	33.3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27.6	6.9	17.2	13.8	34.5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32.4	20.6	14.7	11.8	20.6	100.0
10년 초과	3	0.0	66.7	33.3	0.0	0.0	100.0

* 위탁부모는 대리위탁부모(조부모), 친인척위탁부모는 제외한 일반위탁부모가 해당됨

보호종료 후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 연락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일상 안부 전달이 62.5%로 가장 많았고, 25.0%가 자립 및 혜택 관련 정보 공유, 8.3%가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고민 상담, 2.1%가 현금 및 현물 지원과 기타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원가족과 연락 이유에 비해 보다 다양한 이유로 연락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자 청년은 일상 안부 전달 외에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연락하였고, 만기퇴소 청년은 자립 및 혜택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연락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32> 시설 선생님, 위탁부모 연락 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일상 안부 전달	고민 상담	정보 공유	현금, 현물 지원	기타	계
전체	48	62.5	8.3	25.0	2.1	2.1	100.0
참가기수							
1기	13	76.9	7.7	15.4	0.0	0.0	100.0
2기	14	71.4	0.0	21.4	0.0	7.1	100.0
3기	21	47.6	14.3	33.3	4.8	0.0	100.0
성별							
남자	23	60.9	4.3	30.4	4.3	0.0	100.0
여자	25	64.0	12.0	20.0	0.0	4.0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2	63.6	4.5	27.3	0.0	4.5	100.0
공동생활가정	5	80.0	0.0	20.0	0.0	0.0	100.0
대리위탁가정	8	75.0	0.0	25.0	0.0	0.0	100.0
친인척위탁가정	7	57.1	0.0	42.9	0.0	0.0	100.0
일반위탁가정	2	50.0	50.0	0.0	0.0	0.0	100.0
청소년쉼터	1	0.0	0.0	0.0	100.0	0.0	100.0
보호치료시설	1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2	0.0	100.0	0.0	0.0	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26	50.0	11.5	30.8	3.8	3.8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1	81.0	0.0	19.0	0.0	0.0	100.0
중도퇴소	0	0.0	0.0	0.0	0.0	0.0	0.0
기타	1	0.0	100.0	0.0	0.0	0.0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1	66.7	19.0	14.3	0.0	0.0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23	65.2	0.0	26.1	4.3	4.3	100.0
10년 초과	3	33.3	0.0	66.7	0.0	0.0	100.0

* 위탁부모는 대리위탁부모(조부모), 친인척위탁부모는 제외한 일반위탁부모가 해당됨

조사 참여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살펴 보았다. 사회적 지지는 0~3점(합산 총 18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11.66이었다. 여자 청년(11.17)이 남자 청년(12.23)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더 낮았고, 중도퇴소한 청년(9.50)이 연장보호 후 종료한 청년(12.07)이 만기퇴소한 청년(11.50)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더 낮았다. 또한 보호종료 후 10년이 지난 청년(10.67)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더 낮아 보호종료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사회적 지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	11.66	2.39
참가기수			
1기	15	11.33	2.38
2기	19	12.26	2.00
3기	33	11.45	2.60
성별			
남자	31	12.23	2.73
여자	36	11.17	1.96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11.66	2.42
공동생활가정	11	11.73	1.79
대리위탁가정	13	11.85	3.21
친인척위탁가정	8	11.50	1.20
일반위탁가정	2	14.00	4.24
청소년쉼터	1	9.00	.
보호치료시설	1	10.00	.
기타	2	10.50	2.12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11.50	1.88
연장보호 후 종료	28	12.07	2.84
중도퇴소	2	9.50	3.54
기타	3	11.00	2.65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11.72	1.81
5년 초과~10년 이하	34	11.71	2.92
10년 초과	3	10.67	.58

(6) 자립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 참여자가 자립(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을 우선순위 3순위로 질문하였다. 1·2·3순위를 모두 합산한 결과 자립 후 겪는 어려움은 생활비·학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부족이 26.1%로 가장 많았고, 취업 정보·기술·자격 부족(15.6%),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11.1%), 지역자원 정보부족(5.5%), 아프거나 긴급할 때 도움 청할 곳 부족(5.5%), 인간관계 어려움(5.0%), 돈 관리 어려움(5.0%), 음식 만들기·빨래·장보기 등 일상생활 어려움(4.5%),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조사 참여자가 응답한 생활비·학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부족의 어려움을 제외하고 각 집단 특성별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면, 남자 청년은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14.3%)이 여자 청년(8.3%)에 비해 더 컸으며, 여자 청년은 거주할 집 문제(24.1%), 아프거나 긴급할 때 도움 청할 곳 부족(7.4%)의 어려움이 남자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최종보호유형별로 보면,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은 돈 관리 어려움(12.1%),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21.2%)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대리위탁가정 보호종료 청년은 지역자원과 정보 부족(10.3%)을, 친인척위탁가정 보호종료 청년은 취업정보·기술·자격 부족(25.0%)과 지역 자원과 정보 부족(8.3%)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이유별로 살펴보면, 만기퇴소한 청년의 경우 지역 자원과 정보 부족(7.0%),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14.0%)를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보호종료 후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거주할 집 문제(21.2%)와 돈 관리 어려움(7.1%)을, 5년 초과~10년 이하인 경우는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15.7%)이 자립 후 겪는 주요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지립 후 어려움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취업 정보, 기술, 자격 부족	인간관계 어려움	거주할 집 문제	일상생활 (음식, 빨래, 장보기 등) 어려움	지역 자원, 정보 부족	아프거나 긴급할 때 도움 청할 곳 부족	돈 관리 어려움	시설이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 부족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계
전체	67	15.6	5.0	20.1	4.5	5.5	5.5	5.0	1.5	26.1	11.1	100.0
참가기술												
17기	15	13.3	6.7	11.1	4.4	8.9	6.7	6.7	4.4	22.2	15.6	100.0
27기	19	26.3	5.3	22.8	1.8	3.5	1.8	3.5	0.0	29.8	5.3	100.0
37기	33	10.3	4.1	22.7	6.2	5.2	7.2	5.2	1.0	25.8	12.4	100.0
성별												
남자	31	15.4	6.6	15.4	6.6	5.5	3.3	4.4	2.2	26.4	14.3	100.0
여자	36	15.7	3.7	24.1	2.8	5.6	7.4	5.6	0.9	25.9	8.3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14.9	6.9	20.7	3.4	4.6	6.9	5.7	1.1	23.0	12.6	100.0
공동생활가정	11	15.2	3.0	6.1	9.1	3.0	3.0	12.1	3.0	24.2	21.2	100.0
대리위탁가정	13	15.4	2.6	23.1	2.6	10.3	5.1	0.0	2.6	30.8	7.7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25.0	4.2	25.0	4.2	8.3	4.2	0.0	0.0	29.2	0.0	100.0
일반위탁가정	2	16.7	0.0	33.3	16.7	0.0	0.0	0.0	0.0	33.3	0.0	100.0
청소년쉼터	1	0.0	33.3	33.3	0.0	0.0	0.0	0.0	0.0	0.0	33.3	100.0
보호치료시설	1	0.0	0.0	33.3	0.0	0.0	0.0	33.3	0.0	33.3	0.0	100.0
기타	2	0.0	0.0	25.0	0.0	0.0	25.0	0.0	0.0	50.0	0.0	10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14.0	6.0	18.0	5.0	7.0	6.0	5.0	1.0	24.0	14.0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19.0	4.8	23.8	3.6	4.8	3.6	4.8	1.2	28.6	6.0	100.0
중도퇴소	2	16.7	0.0	0.0	0.0	0.0	16.7	0.0	0.0	33.3	33.3	100.0
기타	3	0.0	0.0	22.2	11.1	0.0	11.1	11.1	11.1	22.2	11.1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16.5	5.9	21.2	3.5	5.9	5.9	7.1	1.2	27.1	5.9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14.7	4.9	18.6	5.9	5.9	4.9	2.9	2.0	24.5	15.7	100.0
10년 초과	3	11.1	0.0	22.2	0.0	0.0	11.1	11.1	0.0	33.3	11.1	100.0

조사 참여자가 자립(보호종료) 후 어려움을 의논하는 상대를 우선순위 3순위로 질문하였다. 1·2·3순위를 모두 합산한 결과, 주요 의논 상대가 따로 없어서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고, 시설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 또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와 의논하는 경우가 각각 13.9%였다. 그 뒤를 이어 원가족 또는 거주했던 시설의 선생님이 각각 7.5%, 위탁부모나 후원자 3.0%, 기타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절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립준비청년이 어려움을 해결할 때 의논 상대가 없어 혼자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집단 특성별로 주요 의논 상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 청년(49.1%)이 남자 청년(31.2%)에 비해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반면, 남자 청년은 시설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18.3%), 원가족(9.7%)이 의논 상대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종보호유형이 아동양육시설인 경우 시설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가 의논 상대인 경우가 21.8%, 시설의 선생님인 경우가 14.9%로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많이 응답하였다. 대리위탁가정과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원가족이 의논 상대인 경우가 15.4%와 16.7%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이유가 만기퇴소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시설이나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를 의논 상대로 한다는 경우가 각각 16.7%, 11.8%로 높았고, 시설의 선생님인 경우도 12.7%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원가족(12.6%), 이성친구나 배우자(12.6%),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10.3%)가 주요 의논 상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자립 후 어려움 의논 상대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혼자 해결	원가족	시설, 시설자조모임 등의 친구/선후배	사회에서 만난 친구/선후배	이성친구 /배우자	(거주하는) 기숙사, 자립생활관 등의 선생님	(거주했던) 시설의 선생님	위탁부모/ 후원자	기타	계
전체	67	40.8	7.5	13.9	13.9	9.5	3.0	7.5	3.0	1.0	100.0
참가기수											
1기	15	35.6	4.4	17.8	17.8	6.7	0.0	13.3	2.2	2.2	100.0
2기	19	42.1	10.5	12.3	14.0	12.3	3.5	5.3	0.0	0.0	100.0
3기	33	42.4	7.1	13.1	12.1	9.1	4.0	6.1	5.1	1.0	100.0
성별											
남자	31	31.2	9.7	18.3	14.0	9.7	3.2	7.5	4.3	2.2	100.0
여자	36	49.1	5.6	10.2	13.9	9.3	2.8	7.4	1.9	0.0	100.0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40.2	3.4	21.8	12.6	3.4	1.1	14.9	1.1	1.1	100.0
공동생활가정	11	39.4	3.0	12.1	18.2	18.2	0.0	6.1	0.0	3.0	100.0
대리위탁가정	13	41.0	15.4	5.1	12.8	12.8	7.7	0.0	5.1	0.0	100.0
친인척위탁가정	8	41.7	16.7	4.2	16.7	16.7	4.2	0.0	0.0	0.0	100.0
일반위탁가정	2	33.3	0.0	16.7	16.7	0.0	0.0	0.0	33.3	0.0	100.0
청소년쉼터	1	33.3	0.0	0.0	0.0	0.0	33.3	0.0	33.3	0.0	100.0
보호치료시설	1	66.7	0.0	0.0	0.0	33.3	0.0	0.0	0.0	0.0	100.0
기타	2	50.0	16.7	16.7	16.7	0.0	0.0	0.0	0.0	0.0	100.0
보호종료 이유											
민기퇴소	34	39.2	6.9	16.7	11.8	5.9	2.9	12.7	2.9	1.0	100.0
연장보호 후 종료	28	40.5	9.5	11.9	16.7	11.9	3.6	2.4	3.6	0.0	100.0
중도퇴소	2	50.0	0.0	16.7	16.7	16.7	0.0	0.0	0.0	0.0	100.0
기타	3	55.6	0.0	0.0	11.1	22.2	0.0	0.0	0.0	11.1	10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41.4	12.6	8.0	10.3	12.6	4.6	6.9	2.3	1.1	100.0
5년 초과~10년 이하	34	37.3	3.9	19.6	16.7	7.8	2.0	7.8	3.9	1.0	100.0
10년 초과	3	55.6	0.0	11.1	22.2	0.0	0.0	11.1	0.0	0.0	100.0

조사 참여자가 자립 과정에서 이용했던 자립지원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디딤씨앗통장 77.6%, 자립정착금 74.6%, 자립수당 71.6%, 국민기초생활보장 70.1%였다. 조사 참여자의 50% 이상이 이용한 서비스는 등록금 대출 및 장학금 59.7%, 문화지원 59.7%이었다. 그밖에 사례관리 38.8%, 멘토링 26.9%, 심리상담 25.4%, 청년자산형성지원 22.4%, 취업지원 20.9%, 진로탐색 및 상담 14.9%, 긴급 지원금 13.4%, 법률지원 9.0%, 주택임차보증금대출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들은 직접적인 경제지원과 같은 가시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사례관리, 멘토링, 심리상담 등의 비가시적 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참여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년은 여자 청년에 비해 취업지원서비스 이용률이 12.9%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여자 청년은 자립수당 수령률이 63.9%에 그쳤으며, 멘토링(19.4%), 법률지원(5.6%), 정보제공(2.8%)의 이용률이 낮았다. 최종보호유형별 결과를 보면, 아동양육시설인 경우 자립수당이 55.2%에 그쳤는데 이는 조사 참여자 중 보호종료 기간이 5년이 지난 시설보호종료 참여자 비율이 79.3%(23명)으로 자립수당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의 경우 자립정착금(63.6%), 임대주택 및 주거지원(36.4%)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사례관리(63.6%), 심리상담(46.2%) 등은 타보호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위탁가정의 경우 디딤씨앗통장(46.2%), 국민기초생활보장(46.2%), 등록금 대출 및 장학금(46.2%), 진로탐색 및 상담(7.7%) 등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청년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보호종료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은 대리·친인척위탁가정 보호종료 참여자 비율이 79.0%(14명)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보호종료 이유별로 보면, 만기퇴소한 경우 자립수당 67.6%,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2.9%로 이용률이 낮았는데 만기퇴소한 청년 중 보호종료 기간이 5년이 지난 비율이 67.6%(14명)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호종료 후 기간이 5년 이하인 참여자들은 디딤씨앗통장 62.1%, 등록금 대출 및 장학금 48.3%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36>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자립 수당	자립 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청년 자선 형성 지원	자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긴급 지원금	등록금 대출/ 장학금	임대 주택 및 주거 지원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	진로 및 탐색 및 상담	취업 지원	멘토링	사례 관리	심리 상담	문화 지원	법률 지원	각종 교육	정보 제공	
전체	67	71.6	74.6	77.6	22.4	70.1	13.4	59.7	62.7	6.0	14.9	20.9	26.9	38.8	25.4	59.7	9.0	3.0	6.0	
참가자																				
17]	15	46.7	80.0	80.0	40.0	66.7	13.3	53.3	66.7	13.3	13.3	33.3	20.0	26.7	13.3	40.0	6.7	0.0	6.7	
27]	19	84.2	68.4	73.7	15.8	78.9	10.5	57.9	68.4	5.3	15.8	15.8	26.3	57.9	15.8	68.4	10.5	10.5	10.5	
37]	33	75.8	75.8	78.8	18.2	66.7	15.2	63.6	57.6	3.0	15.2	18.2	30.3	33.3	36.4	63.6	9.1	0.0	3.0	
성별																				
남자	31	80.6	74.2	80.6	25.8	67.7	12.9	54.8	64.5	3.2	12.9	12.9	35.5	38.7	22.6	54.8	12.9	6.5	9.7	
여자	36	63.9	75.0	75.0	19.4	72.2	13.9	63.9	61.1	8.3	16.7	27.8	19.4	38.9	27.8	63.9	5.6	0.0	2.8	
최종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9	55.2	86.2	93.1	24.1	72.4	20.7	62.1	69.0	6.9	13.8	20.7	20.7	34.5	20.7	51.7	6.9	0.0	6.9	
공동생활가정	11	72.7	63.6	90.9	36.4	90.9	27.3	81.8	36.4	0.0	27.3	18.2	54.5	63.6	27.3	72.7	18.2	9.1	9.1	
대리위탁가정	13	100.0	84.6	46.2	0.0	46.2	0.0	46.2	69.2	15.4	7.7	30.8	23.1	38.5	46.2	69.2	7.7	7.7	7.7	
친인척위탁가정	8	87.5	50.0	50.0	25.0	62.5	0.0	37.5	50.0	0.0	12.5	12.5	12.5	25.0	12.5	50.0	0.0	0.0	0.0	
일반위탁가정	2	100.0	100.0	100.0	0.0	100.0	0.0	100.0	100.0	0.0	0.0	0.0	50.0	100.0	0.0	100.0	0.0	0.0	0.0	
청소년쉼터	1	0.0	0.0	100.0	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0.0	100.0	100.0	100.0	0.0	0.0	
보호치료시설	1	0.0	0.0	100.0	100.0	10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기타	2	100.0	50.0	50.0	50.0	50.0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보호종료 이유																				
만기퇴소	34	67.6	88.2	85.3	17.6	76.5	11.8	61.8	64.7	2.9	17.6	20.6	23.5	44.1	23.5	55.9	5.9	2.9	8.8	
연병호 후종료	28	82.1	67.9	71.4	21.4	60.7	14.3	50.0	60.7	7.1	14.3	21.4	32.1	35.7	28.6	60.7	10.7	3.6	3.6	
중도퇴소	2	0.0	0.0	100.0	0.0	50.0	0.0	100.0	50.0	5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기타	3	66.7	33.3	33.3	100.0	100.0	33.3	100.0	66.7	0.0	0.0	33.3	33.3	33.3	33.3	100.0	33.3	0.0	0.0	
보호종료 후 기간																				
5년 이하	29	93.1	79.3	62.1	24.1	62.1	6.9	48.3	65.5	6.9	13.8	17.2	27.6	55.2	24.1	58.6	6.9	6.9	6.9	
5년 초과-10년 이하	34	58.8	70.6	91.2	23.5	79.4	17.6	70.6	58.8	5.9	17.6	23.5	29.4	29.4	29.4	61.8	11.8	0.0	5.9	
10년 초과	3	33.3	100.0	66.7	0.0	33.3	33.3	66.7	100.0	0.0	0.0	33.3	0.0	0.0	0.0	33.3	0.0	0.0	0.0	

4) WE CARE_DREAM 사업에 대한 인식

(1) 사업 만족도

조사 참여자에게 WE CARE_DREAM 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업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고, 만족하는 경우는 86.6%(만족하는 편+매우 만족)였으며 평균 4.31(5점 만점)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는 더 높았다.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보험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조사 참여자는 이 사업을 “두 번째 디딤씨앗통장”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저축보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주었고 현재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WE CARE_DREAM 사업은 저축보험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 활동은 자립준비청년의 고립감·불안감을 해소하는 장치가 되고 있으며, 지역별 커뮤니티 활동, 멤버십 활동 등은 소속감·유대감·연대감을 갖게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이 사업을 통해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커뮤니티 활동, Dream Log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봉사활동과 자치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운영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다. 아울러 저축보험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는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이 사업을 3년 동안 “밀착 커버”하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3년 동안 청년들이 저축보험을 유지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실무진의 노력과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섯째,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한화생명파(사)함께만드는세상은 청년이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운영하는 사업 방향 덕분에 청년들은 사업 참여자가 갖게 되는 부담보다는 주도성을 발휘

하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었다. 여섯째, 청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실무진의 노력 때문이다. 청년들은 실무진의 친절한 태도, 원활한 소통, 진심을 다해 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체계적인 사업 관리 등에 만족하였다. 청년들은 WE CARE_DREAM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멤버십 활동에만 참여하는 청년 중 저축보험과 멤버십 활동이 함께 결합되지 않은 것을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저축보험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4-37> 전반적 사업 만족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	0.0	3.0	10.4	38.8	47.8	100.0	4.31(.78)
참가기수								
1기	15	0.0	0.0	0.0	33.3	66.7	100.0	4.67(.49)
2기	19	0.0	0.0	10.5	31.6	57.9	100.0	4.47(.70)
3기	33	0.0	6.1	15.2	45.5	33.3	100.0	4.06(.86)

매월 청년이 부담하는 저축보험료는 대체로 적절한 금액이라고 응답하였다. 보험료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2기 참여자가 다소 낮았다(4.16). 2기 사업부터 지역을 지방도시, 농산어촌 등을 확대하면서 지방 거주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8> 보험료 적절성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	4.5	7.5	26.9	50.7	10.4	100.0	4.51(1.08)
참가기수								
1기	15	0.0	6.7	33.3	60.0	0.0	100.0	4.53(.64)
2기	19	10.5	10.5	26.3	47.4	5.3	100.0	4.16(1.34)
3기	33	3.0	6.1	24.2	48.5	18.2	100.0	4.70(1.05)

저축보험 만기 시, 보험금 사용 계획을 살펴본 결과, 주거비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았고, 교육비(21.1%)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기타(17.5%)에는 창업, 투자, 재적금·저금 등 자산을 쌓기 위한 기초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포함되었다.

<표 4-39> 보험금 용도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주거비	교육비	식비/ 생필품비	여가 문화비	기타	계	
전체	57	57.9	21.1	1.8	1.8	17.5	100.0	
참가기수								
1기	15	33.3	26.7	6.7	6.7	26.7	100.0	
2기	17	70.6	29.4	0.0	0.0	0.0	100.0	
3기	25	64.0	12.0	0.0	0.0	24.0	100.0	

그동안 저축보험 외에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49.2%가 참여한 멤버십 온라인 활동이었고, 비전특강(27.0%), 멤버십기금 조성(25.4%), Dream Log 네트워크 활동(23.8%), Dream Log 봉사활동(22.2%), 멤버십 커뮤니티 활동(22.2%), 나의 꿈 이야기(20.6%), 위기지원(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축보험 외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사업 참가기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사업에서 기수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자기가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WE CARE_DREAM 사업은 수행 과정 중 참여자 구성의 변화와 청년 욕구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키고 있어 참가기수별로 프로그램의 초점과 진행 내용이 달랐다. 예를 들어, 1기 참여자는 비전 특강과 나의 꿈 이야기, 2기 참여자는 Dream Log 활동, 3기 참여자는 멤버십 활동에 참여하였다.

<표 4-40> 보험 가입 외 참여 프로그램(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비전 특강	나의 꿈 이야기	Dream Log 봉사활동	Dream Log 네트워크 활동	멤버십기금 조성/지원	멤버십 커뮤니티활동	멤버십 온라인 활동	위기지원	계	
전체	63	27.0	20.6	22.2	23.8	25.4	22.2	49.2	12.7	100.0	
참가기수											
1기	15	66.7	80.0	13.3	20.0	6.7	6.7	6.7	33.3	100.0	
2기	16	12.5	6.3	75.0	75.0	18.8	18.8	12.5	18.8	100.0	
3기	32	15.6	0.0	0.0	0.0	37.5	31.3	87.5	0.0	100.0	

저축보험 외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된 프로그램은 멤버십기금조성 및 지원(18.5%)과 멤버십 온라인 활동(18.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전특강(15.4%), Dream Log 네트워크 활동(12.3%)이었다. 도움된 프로그램의 결과도 참가기수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1기 참여자의 경우 비전특강(40.0%), 2기 참여자는 Dream Log 네트워크 활동(35.3%), 3기 참여자는 멤버십 온라인 활동(36.4%)을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기타(6.2%)에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수별로 다른 프로그램 경험을 하였으므로, 통계적 수치보다는 참여자가 왜 그런 응답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서술형 질문에 대해 조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비전 특강’과 ‘나의 꿈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고 싶은 것을 구체화할 수 있었고 함께 참여한 청년들과 서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며 동기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Dream Log’ 프로그램에서는 청년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유대감을 키우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일상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우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며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생겼다고 하였다. 또한 리워드 등을 통해 저축보험을 유지하고 저축보험을 지속하려는 동기가 상승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4-41> 도움된 프로그램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비전 특강	나의 꿈 이야기	Dream Log 봉사활동	Dream Log 네트워크 활동	멤버십기금 조성/지원	멤버십 커뮤니티활동	멤버십 온라인 활동	위기 지원	기타	계
전체	65	15.4	4.6	7.7	12.3	18.5	9.2	18.5	7.7	6.2	100.0
참가기수											
1기	15	40.0	20.0	6.7	13.3	6.7	0.0	0.0	13.3	0.0	100.0
2기	17	0.0	0.0	23.5	35.3	11.8	5.9	0.0	17.6	5.9	100.0
3기	33	12.1	0.0	0.0	0.0	27.3	15.2	36.4	0.0	9.1	100.0

저축보험 외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프로그램 별로 참여자의 서술식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 꿈 이야기는 자신의

꿈과 비전 스토리를 작성하고 꿈과 비전을 촬영하여 영상으로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영상 제작을 위한 새로운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촬영, 편집 등에 투여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부담되고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멤버십 온라인 활동은 오프라인에서의 멤버십 커뮤니티 활동과 중복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 멤버십기금 조성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3기 참여자의 10.0%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시작된 초기여서 응답자 중 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적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결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의 성과와 유용성을 평가하기는 이르며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4-42> 도움되지 않은 프로그램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비전 특강	나의 꿈 이야기	Dream Log 봉사활동	Dream Log 네트워크 활동	멤버십기금 조성/지원	멤버십 커뮤니티 활동	멤버십 온라인 활동	위기 지원	기타	계
전체	63	0.0	11.1	1.6	4.8	4.8	3.2	14.3	0.0	60.3	100.0
참가기수											
1기	15	0.0	40.0	6.7	6.7	0.0	0.0	0.0	0.0	46.7	100.0
2기	18	0.0	0.0	0.0	11.1	0.0	5.6	11.1	0.0	72.2	100.0
3기	30	0.0	3.3	0.0	0.0	10.0	3.3	23.3	0.0	60.0	100.0

(2) 지원 및 수행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 참여자에게 사업 참여 전후 한화생명과 (사)함께만드는세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질문하였다. 먼저 사업 참여 전에 한화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9%(알고 있는 편+매우 잘 알고 있음)에 불과하였다.

<표 4-43> 사업 참여 전, 한화생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몰랐다	거의 모르는 편이었다	알고 있는 편이었다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계
전체	67	31.3	41.8	22.4	4.5	100.0
참가기수						
1기	15	13.3	53.3	33.3	0.0	100.0
2기	19	40.0	66.7	20.0	0.0	100.0
3기	33	86.7	66.7	46.7	0.0	100.0

모든 조사 참여자가 사업 참여 후에는 한화생명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하였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에 참여하면서 WE CARE_DREAM 사업이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부합한 사업임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3년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화생명은 타기업에 비해 선제적으로 자립준비청년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한화생명의 사회공헌활동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응답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 한화생명은 “국뽕기업”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표 4-44> 사업 참여 후, 한화생명에 대한 이미지 변화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변하지 않았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	계
전체	67	0.0	0.0	3.0	97.0	100.0
참가기수						
1기	15	0.0	0.0	0.0	100.0	100.0
2기	19	0.0	0.0	0.0	100.0	100.0
3기	33	0.0	0.0	6.1	93.9	100.0

WE CARE_DREAM 사업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에 대한 조사 참여자의 인식도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함께만드는세상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 외에 다양한 청년의 경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담당실무자가 청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에서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자립청년지원에 대한 진심이 전달되었다고 하였다.

<표 4-45> 사업 참여 후, (사)함께만드는세상에 대한 이미지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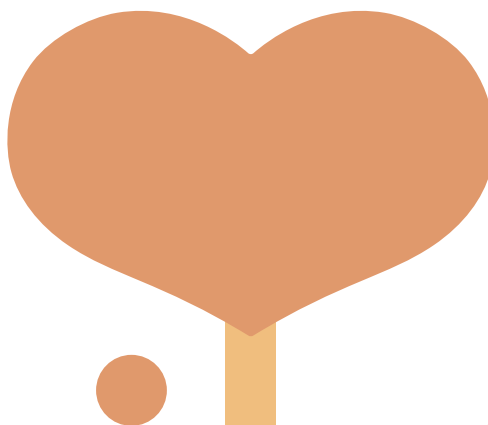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변하지 않았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	계
전체	67	0.0	0.0	4.5	95.5	100.0
참가기수						
1기	15	0.0	0.0	0.0	100.0	100.0
2기	19	0.0	0.0	0.0	100.0	100.0
3기	33	0.0	0.0	9.1	90.0	100.0

그 외에 WE CARE_DREAM 사업을 위한 보완점을 파악해 본 결과, 저축보험 관련하여 저축보험료 증액, 저축보험이 만기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예 저축보험료 활용을 위한 금융교육, 결혼과 출산, 구직과 이직을 위한 커리어 설계 등) 프로그램 강화, 자립수당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30대 이후 사각지대 청년으로 사업 대상 확대 등을 개선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제5장

질적연구

1. 연구 개요
2. 연구 결과



제5장

질적연구

1. 연구 개요

1) 연구 과정

본 연구에서는 집단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알아보고 이를 주제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 대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4회의 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접 집단은 기수별로 구분하고 멤버십 리더 그룹에 대한 면접도 별도로 진행하였다. 또한, 본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함께만드는세상 직원과 한화생명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면접 전 연구의 목적과 면접 방식,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참여와 중단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인터뷰는 집단별로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이루어졌고,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문자나 메일을 통해 소통하였다. 참여자는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총 17명의 청년이었으며, 1기 3명, 2기 5명, 3기 5명, 멤버십 리더 4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가 13명, 여자가 4명으로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생연도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다양했으며, 보호유형은 양육시설이 8명, 공동생활가정이 4명, 가정위탁이 5명 있었다. 학력은 인터뷰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 졸업자가 14명이고 대학 재학생이 2명, 대학 중퇴자가 1명이고, 취업 여부는 취업한 사람이 11명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6명이었다.

인터뷰에서는 참여자의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생활 경험, 보호종료 전 자

립준비 상황, 자립 후 생활, WE CARE_DREAM 사업 참여 계기와 경험, 기타 의견을 질문하였다. 자립 전후의 생활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고 본 사업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연구참여자 기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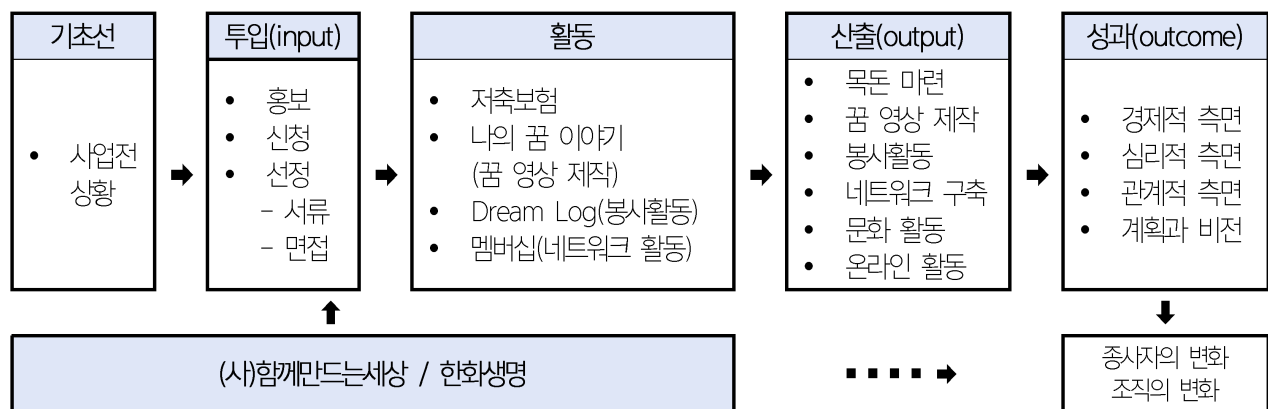
연번	참여자명	기수	생년	성별	보호유형	학력	취업여부
1	참여자1	1	1998년	여	양육시설	대졸	취업
2	참여자2	1	2000년	남	양육시설	대학중퇴	취업
3	참여자3	1	1996년	여	양육시설	대졸	취업
4	참여자4	2	1995년	남	가정위탁	대졸	취업
5	참여자5	2	1997년	남	가정위탁	대졸	취업준비
6	참여자6	2	2000년	남	공동생활가정	대졸	취업
7	참여자7	2	2002년	남	공동생활가정	대졸	취업준비
8	참여자8	2	1997년	남	공동생활가정	대졸	취업
9	참여자9	3	2000년	남	양육시설	대졸	취업
10	참여자10	3	1995년	남	가정위탁	대졸	취업
11	참여자11	3	1995년	남	가정위탁	대졸	취업
12	참여자12	3	2001년	여	공동생활가정	대재	취업준비
13	참여자13	3	1997년	남	양육시설	대재	취업준비
14	참여자14	멤버십	1995년	남	양육시설	대졸	취업
15	참여자15	멤버십	1999년	여	양육시설	대졸	취업준비
16	참여자16	멤버십	1996년	남	양육시설	대졸	취업
17	참여자17	멤버십	2001년	남	가정위탁	대졸	취업준비

2) 분석 과정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전사록을 여러 번 읽고 코딩하여 의미 단위를 찾고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들은 1차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 회의를 통해 범주의 구성을 조율,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제를 도출하고 해석하였다. 자료 분석 시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보다는 사업 참여 과정의 쟁점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맥

락을 알아보고 차기 사업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1차 분석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업 참여 전’과 ‘사업 참여 과정’, ‘사업 참여 후’로 정리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사업에 도움이 된 맥락을 구체화하기 위해 ‘논리모델’의 틀을 적용해 재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논리모델은 ‘기초선-투입-활동(과정)-산출-결과’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할 때 활용하는 분석모델이다. 논리모델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프로그램의 책무성(accountability)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한 틀로 빈번하게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선은 사업 시작 전의 상황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함께만드는세상의 상황과 후원기관인 한화생명의 상황,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상황을 의미한다. 투입 과정은 서비스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화생명과 (사)함께만드는세상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에 대한 홍보, 신청, 선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해당된다. 활동(과정)은 실제 사업이 수행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사)함께만드는세상을 통해 계획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함하며, 이 내용은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내용 등을 통해 파악한 것을 토대로 참여자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산출은 사업 참여자나 제공한 서비스(프로그램 횟수나 시간 등), 창출된 비용 등을 주로 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포함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는 본 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립의 최종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측면의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림 5-1> 논리모델에 따른 분석 틀

2. 연구 결과

<표 5-2> WE CARE_DREAM 사업의 성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1) 사업 참여 전	(1) 탈출을 꿈꾸며 막연하게 그려보는 자립	① 복잡한 집단생활, 낯선 사람과의 동거
		② 규칙이 빠진 학교
		③ 반복된 폭력 방관하는 어른
		④ 상처투성이지만 그리운 가족
		⑤ 서로 다른 잣대와 경계
	(2) 자립 준비는 복불복	① 시설 선생님의 도움으로 준비
		② 자립? 뭔지도 모름
		③ 형식적 교육
		④ 홀로, 혹은 어깨너머로 눈치껏 준비
(3) 스스로 서는 것(自立)의 어려움	① 갑자기 얻은 자유와 혼란	
	② 홀로 있는 고독과 외로움	
	③ 잦은 이사, 불안정한 주거	
	④ 돈 없는 서러움	
2) 사업 참여 과정	(1) 끊임없는 탐색과 도전	① 노력한 만큼 획득하는 정보
		② 후원도 부익부 빈익빈
	(2) 긴 호흡으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	① 저축보험 : 천천히 쌓아가기
		② 영상제작 : 나의 비전 나의 꿈 알아가기
		③ 봉사활동 : 다른 사람을 살피고 배워가기
④ 멤버십: 나를 보여주며 다가가기		
3) 사업 성과와 성과의 맥락	(1) 나를 챙기고 보살핌	① 목돈 마련
		② 든든한 보장
		③ 저축 습관을 키움
		④ 경제 계획을 구체화함
	(2) 나를 찾음	① 나를 더 알게 됨
		② 안정감을 느낌
		③ 삶의 동기와 열정이 생김
	(3) 타인을 통한 배움과 나눔	① 다른 사람을 돌아봄
		②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움
		③ 청년 주도로 활동함
	(4) 청년이 함께 걸음	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만남
		② 더 넓은 관계로 확장

1) 사업 참여 전

(1) 탈출을 꿈꾸며 막연하게 그려보는 자립

본 사업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청년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설 생활을 중심으로 자립 전의 생활을 살펴보았다. 시설의 생활은 위탁가정과 많은 부분이 다르므로, 가정위탁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청년들은 자립 전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중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청년은 모두 조부모나 친인척 가정에서 살았으므로,⁹⁾ 생활 환경이 일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나 사회적 편견에 관한 내용은 시설퇴소 청년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① 복잡한 집단생활, 낯선 사람과의 동거

자립준비청년의 시설에서 생활은 ‘복잡한 집단생활과 낯선 사람과의 동거’로 시작되었다. 지역이나 시설,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00명 이상의 아동이 한 시설에서 살았고, 규모가 큰 시설은 1,00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어떤 시설 안에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있었고 교회나 병원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시설에 사는 아동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 안에서 보냈고,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학년당 한 100명 이내로 잡으면 애들까지 다 합치면 800명 900명. 초중고 다 있어. (중략)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는 구조적인 병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고 터져서 시설이 사라졌어요. (참여자16)

사실은 이제 원래 초등학교 있는 시설도 있는데 저희 시설이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안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거고, 외부에 나가는 게 조금 너무 워낙 이제 그냥 거기서 태어나버렸으니까. 그거 다 따지면 이제 13년이 넘었거든요. (참여자1)

9) 우리나라 위탁가정 중 대부분이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이다.

시설 안에서 개인적인 선호나 취향은 존중되기 어려웠다. 워낙 많은 수의 아동이 함께 생활하다보니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참여자14)

왜냐면 내가 ‘난 지금 나가서 외출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난 지금 햄버거를 시켜 먹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하나하나 사소한 행동을 할 때마다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 그런 생활을 평생 저도 99년도부터 17년도까지 지냈으니까. (참여자14)

시설에서 살았을 때는 한 방에 한 10명씩 단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조금 위에 언니들 위주로 조금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였고. (참여자15)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짜여져 있는 하루 하루의 일상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이 다 똑같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한 13명 14명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이제 저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같이 지냈어요. 한 집에서.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완전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집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 집 이렇게 따로 있었지만 제가 저를 기준으로 제가 중학교 가 제가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 이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런 거 상관없이 한 집에서 이렇게 그냥 큰 집에서 살았던 초등학교 때 살았어. (참여자14)

시설의 사회복지사와 보육사는 계속 변경되었다. 보육사는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 역할을 하는데, 양육자의 잦은 변경은 아동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까지는 이제 같은 보육사가 이렇게 키워주기는 해도 그 보육사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또 저희는 각 방에 아이들 30명이 있으면 수녀님 한 분 그리고 보육사 한 분이셨는데 수녀님하고 보육사가 계속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도 바뀌어요. (참여자16)

아이들의 용돈은 매우 부족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3만원 이하의 용돈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 했다. 이는 시설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고 각종 학용품들도 제공해주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바깥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 때는 이제 한 달에 용돈 한 1만 원에서 2만 원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쪽 갔던 것 같아 한 달에 1만 원. 근데 그것도 이제 저축을 시키고. 그리고 여가 시간이라 함은 이제 밖으로는 거의 잘 못 나가게 해요. (참여자16)

시설이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시설 안에 초등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모든 생활시설들이 다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 안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던 말이에요. 근데 그런 통제받는 게 너무 싫어서 약간 목소리 내다가 쫓겨났죠. (중략)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 안에 시설 안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는 시설 밖에 일반 중학교 있잖아요. 땡땡이로 가는. 근데 개네들이랑 친해지려면 이제 돈이 있고 개네들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맨날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참여자1).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은 기독교나 천주교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 많았다. 주말에는 교회에 가는 일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고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들이 종교 예식으로 이루어지곤 했다. 시설에서 사는 아동의 종교에 대한 선택권은 거의 없었다.

종교는 종교에 대한 선택권은 없었고요. 시설 재단의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했었고 가끔 가끔 이제 레지스터스처럼 가끔 이제 ‘내가 왜 내가 왜 믿어야 돼?’ 약간 이런 애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 애들은 이제 교육(연구자 주: 벌이나 반성문, 타임아웃)을 받게 돼요. 애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착해져요(웃음).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약에 천주교를 버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택한다 하면은 수궁을 못해주세요. (참여자16)

(주말) 오전에 이제 교회를 가고 점심 먹고 이제 팀별로 30분씩 이제 성경 교육도 받고 이제 그거를 다 해야지만 외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참여자14)

② 규칙이 딱센 학교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시설은 마치 “집 같지가 않고 규칙이 딱센 학교(참여자 2)”와 같이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있는 곳이었다. 외출 시간이나 휴대폰 사용, TV 시청 등이 제한되거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들이 많았고, 규칙을 어길 경우 벌을 받기도 했다.

한 아파트에서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그 6명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

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뒷정리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분담이 되고 또 주말은 청소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 평일에는 요리랑 청소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긴 했는데 그렇게 엄청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 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가정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여자12)

이게 통금 시간이 8시. 8시까지만 해도 이해해요. 7시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학교 갔다 오면은 빨리 끝나면 4시인데 4시 반인데 친구들이랑 이제 PC방 게임 1시간 2시간 하면 시간 지나고 축구 학교에서 축구 한 번 하면은 8시는 금방이니까. 그 전에 당연히 못 들어가는 애들이 많았죠. (참여자2)

저희 시설이 소유한 ○○면이라는 이제 농장이 있는데 ○○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 안 듣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정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혼이 나고 이 교육을 받고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또 또 어떻게 보면은 집단이 그렇게 흘러가려면 또 어쩔 수 없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어쩔 수 없던 게 참 개인적으로 후에 봤을 때는 너무 조금. (참여자16)

③ 반복된 폭력 방관하는 어른들

연구참여자 중에는 시설에서 종사자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다. 종사자의 폭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작되면서 사라지긴 했지만, 시설에서의 폭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에 먼저 입소하거나 연장자인 선배로부터의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에서 3년 넘게 살며 많이 맞아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애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 패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군대에 약간 군대식이었어요. 특히 남자 거기에 남학생 건물이 있고 여학생 건물이 따로 있는데 남학생 건물은 이제 조금 더 폭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탈선한 친구도 좀 많았어요. (참여자2)

(폭력은)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맞았거든요. 한번은 제가 어린이집을 등교하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거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이 저를 불러서 걸음이 이상하니까 바지 한 번 내려보라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그런다고’. 그때도 밥 먹다 체해서 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생활관에서 선생님한테 밤새 맞았고. 약간

그런 게 저뿐만 아니라 사실 아마 지금 뉴스를 찾아봐도 나올 정도로 되게 크고 심한 학대였는데. (참여자9)

저희 완전 어릴 때는 위에 더 큰 형들이 있었는데 저 위에 형들도 엄청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2층짜리 난간에 거꾸로 매달 밤새 거꾸로 매달아놓고 그런 경우도 좀 많았고. (중략) 저희가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이라 공모는 시설에서 5년 거주를 하면 군대를 안 간다고 하잖아요. 저희 군대를 안 가는데 저희끼리의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로는 이제 '우리는 군대에서 받을 부조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저희는 심하게 좀 맞았었고. 형들 그러니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걸 말씀드리자면 어떤 형이 자기가 용돈을 썼는데 자기가 쓴 거 기억 못하고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범인이 나올 때까지 빠따로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참여자14)

이런 폭력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대물림되곤 했다. 선배에게 맞으면서 분노를 느꼈던 아이들은 자신이 선배가 되어 더 심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친했던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어린 시절 되게 많이 맞았던 언니예요. 근데 그 언니가 항상 저한테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언니들의 그런 폭력 안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언니들이 다 나가고 퇴소를 하고 그 언니가 이제 맏언니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 언니가 똑같이 폭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자15)

폭력의 문화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매사에 눈치를 보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기도 했다. 어떤 경우는 반대로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을 지속하기도 했다.

보육원 생활을 해봤던지라 멧집이 강해지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일주일 단위로 형들한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이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 이런 게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13)

시설의 종사자들은 아이들 간의 폭력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는 어릴 때 자신이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자립하고 나서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경우는 심각한 폭력 사건이 일어나 언론 보도와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학대’이고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했다.

인권 감사라고 하죠. 그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서. 이제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목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들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어차피 젊으면 20대 후반 많아요. 30대 40대 분들이신데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덩치 180 넘어가고 덩치는 이제 남자 고등학생들이 팀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당 선 안에서 그냥 묵인해주고 선생님도 선생님의 혼자 사회복지사 한 명에서 이제 남자 15명을 케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묵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14)

그때 다 대학교 갓 졸업한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20대 초반 이모들이었어요. 선생님들. 근데 그 선생님들이 폭력을 하는데 언니들이 누가 봐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나는 ‘내가 기장을 못 잡지만 너네들이 좀 기장을 좀 잡아줘’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저희 시설은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당시에 되게 악절이었던 언니들이 언니들은 변하지 않아요. (참여자15)

시설 내의 폭력문제가 외부에 알려져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시설 외에는 갈 곳이 없고, 시설은 그나마 적응하여 살아가는 유일한 ‘집’이기도 했으므로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나온 경찰이나 기자들을 적대시하고 시설을 옹호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시설 원장이나 종사자들은 아이들이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신고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통고 조치¹⁰⁾ 하기도 했다.

그때 너무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데, 이제 조금 살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곧 나가야 되는데. 큰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서. (중략) 그래서 그러면 안되는거지만, 조금 우리를 도와주러 막 검사랑 경찰들이 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적으로 보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어. (참여자9)

다들 다 신고하고 경찰에 이렇게 알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설에서도 안에서도 근데 그때 저희 시설에서는 보통 시설이 망가지는 걸 원하진 않잖아요. 원장님이나 그쪽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그러니까 애들한테 협박을 했어요. ‘너네는 다른 우리 시설이

10) 소년법상 통고란,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소년법 제4조제3항). 가정외보호 청소년인 경우, 대리양육자이자 보호자인 시설장에 의해 통고되어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하거나 구금 보호조치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김희진, 2020).

망가져 가지고 다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은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겁나서 신고를 안 하거나 저희는 그리고 신고를, 진짜 대표 그걸 뚫고 신고를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통 거기를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폭력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교도소 가기 전에 무슨 보호시설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자: 보호치료시설) 네. 거기로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는 거죠. (참여자15)

④ 상처투성이지만 그리운 가족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원가족이나 부모와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들은 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부모와의 연락을 단절해야 했고, 부모와 연락이 되더라도 다른 아동의 눈치를 보며 연락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고하였다.

그냥 제가 그 상황(시설에 가는 상황)을 예전에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시설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3)

소수예요. 그 연락하는 애도 소수고 그리고 구조상 우리나라 아동 복지 구조상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미 이제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연락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중략) 거의 정보가 단절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시설로 맡기고 간 사람이나 이제 거의 안 찾아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여자2)

그 사람 애들은 아무도 없었는데 저만 있었으니까 질투를 많이 받았죠. (중략) 집에 가면 좋았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시설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중략) 뉴발, 아이리버 이런 거 저만 사서 시설에 갖고 오니까 애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저희 오지 말라고 경고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건을 뺏기기도 하고, 같은 방에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한 선배들이 달라 보여서 그냥 주고 저도 눈치 보이니까 애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었고 그랬죠. (참여자1)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이 있더라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고 했다. 자주 연락하지 않고 만날 수 없었던 가족 간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만나도 서로 불편하고

서떡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에 있을 때부터도 그냥 왔다 갔다 왕래하 시면서 신경 써주셨고 어머니는 이제 저랑 연락만 우리 제가 세 남매거든요. 그래서 세 남매들이랑 연락은 하는 정도 네 그 정도에 있습니다. (참여자6)

(아버지와는) 이제 만남을 종종 했지만 현재는 잠시 중단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삶에 지금 책임을 져야되는 상태이지 아버지까지 지금 돌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이제 왕래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시설을 퇴소하기 전까지는. 제가 사실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정이 생기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다시 만나는 어린 시절에도 엄마에 대한 좋은 경험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가보다는 동생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연락을 취하고 지금까지 계속 왕래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자7)

위탁가정에서 자란 청년의 경우에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대체로 어색하고 소원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부모와 함께 산 청년들은 “어릴적부터 할머니를 대신해서 의사결정 해야하는(참여자4)” 경우가 많았고 언젠가는 조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큰 집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집을 자주 나갔어 가지고, 그때 그래서 연락이 났다가 한 번씩 안 났다가, 안 났다가 거의 한 번씩 났다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완전 자주 연락하는 자극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참여자5)

할머니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 또 그러니까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거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결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돼서 그런지 자립 후에는 그냥 매일이 독립의 연속이고 좀 더 마음으로는 부담이 덜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할머니의 부담에서 할머니를 챙겨야 되고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자4)

⑤ 서로 다른 잣대와 경계

시설에서의 생활은 사실상 ‘만나는 어른에 따라’ 달라지곤 했다. 시설에서는 보육사가 아동의 생활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였으므로, 어떤 보육사를 만나는가

에 따라 생활은 달라졌다. 시설장이나 후원자, 자립전담요원에 따라서도 이들의 생활과 진로 등이 좌지우지되곤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에서는 특정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기보다 어른들의 개인적 가치나 신념, 책임감, 전문성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고 이야기 했다.

잘 만나는 반은 예를 들어 밤에 클래식도 틀어주고 거기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과 있으니까 외부에서 ‘후원자라 해야되나?’ 그런 분들이랑도 네트워킹도 좋으니까. 그 반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뭔가 외부 활동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잘 못 만나면 이제 다 단절되고 완전히 뭐냐 보육사님의 말이 곧 법이었어 가지고 그거 안 들으면 진짜 짤없이 맞거나 아니면 반성문 쓰고 아니면 그 벌을 계속 졌어요. (참여자1)

선생님이 차등도 하고 저희 시설은 유독 후원자님들이 많이 골랐어요. 사진을 (보고) 그래서 제가 입양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사람을 골라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후원도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저희 시설은 네 선생님들이 그 후원자분들을 되게 홍보를 하면서 데리고 오시긴 하지만 보통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입장은 다 후원자님들의 선택이었거든요. 사진을 보고 ‘이 친구 좀 괜찮는데 내가 이 친구 후원자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에 몰리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참여자15)

시설 밖에서도 시설아동에 대한 잣대는 매번 다르게 작동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에 위축되기도 했고, 실제로 드러나게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 싫어 자신이 시설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기도 했고, 위탁가정에서 살던 연구참여자 중에도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저는 학교에 중고등학교 때 최대한 밝히는 게 싫어가지고 거의 몰랐을 거예요. 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근데 그만큼 저 자신을 많이 숨겼죠. (참여자1)

중학교 올라가면 어느 초등학교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친구들끼리 뭉쳐요. 너 ○○초 나왔냐? ○○초 나왔냐? 했는데 초등학교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저희는 (초등학교가) 시설 안에 있었으니까. (연구자: 거기 나왔다 그러면 시설이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막 이제 막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들킬 수밖에 없죠. (참여자2)

초·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부모님 성함 적고 직업 적는 그런 카드 저는 그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따로 지내다 보니까 엄마 이름을 적기도 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적기도 뭐하고 고모, 고모부 이름 적기도 뭐하고. 그래 가지고 뭔가 그것을 친구들한테 보여준 게 약간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11)

(2) 자립 준비는 복불복

① 시설 선생님의 도움으로 준비

시설에는 자립전담요원이 1명씩 배치되어 아동의 자립 준비를 돕게 되어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가정에는 자립전담요원이 없으므로, 종사자의 관심이나 역량에 따라 자립준비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는 자립전담요원이나 시설의 보육사로부터 자립할 때 준비할 것에 관해 안내받고 정착금 신청, 집 계약 등을 할 때 동행하거나 도움받기도 했다.

자립을 준비할 때는 저는 일단 시설이랑 그다음에 이제 자립 전담을 도와주는 요원분께서 자립하기 6개월 전부터 이제 저랑 매칭이 돼서. (참여자7)

LH 전세 임대해서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학교 근처에 같이 알아봐 주시고 계약 도와주시고 이랬어요. 자립정착금 500만 원으로 옵션 없는 빌라였어가지고 필요한 가전제품이랑 이런 가구들 그리고 생활용품들 이런 걸 다 썼던 것 같아요. (참여자12)

(시설에서 살 때) 그러니까 저는 시설에서 다 해줬거든요. 통장 만드는 것부터 내가 돈을 어디다가 보관하고 카드는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근데 퇴소하고 나서 이모한테 ‘근데 저 퇴소하면 어디로 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어요.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집 알아봐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집은 어떻게 알아봐요?’ 이런 식으로 이모가 제가 말을 하니까 ‘아니 LH를 그럼 내가 알아서 전화를 해줄 테니까, 네가 집을 구해봐’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참여자15)

시설에서 퇴소하기 전 1-2주 자립체험관에 입소하여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본 청년도 있었다. 어떤 시설은 시설 내에 ‘자립관’을 마련하여 퇴소 직전의 고등학생들이 생활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스스로 밥을 해먹고 청소, 빨래를

해야 한다. 이곳을 경험한 청년들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고, 이런 체험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퇴소하기 전에 이렇게 뭘 맨날 단체로 같이 살다가 방 하나를 이렇게 따로 주고 거기서 자취하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한 한 달 정도 체험하는 기간을 줘요. 그 기간이 제가 했을 때는 한 달이었는데, 지금은 1년 정도는 됐다고 하는데 그런 기간을 줘서 거기서 이제 식사만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간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3)

시설 소속으로 되어있는 자립생활관이라고 그러니까 시설 밖에 이제 원룸처럼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들끼리 이제 같은 동갑들끼리 남자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한 달 동안 좀 생활해 보라고. 한 달에 정해진 생활금을 주고, 이제 장도 너네가 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 다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 2~3주의 기간이 자립을 경험해 본다는 기간이기보다는 엄청나게 행복한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참여자14)

② 자립? 뭘지도 모름

연구참여자들의 자립준비는 그야말로 ‘복불복’이었다. 어떤 청년은 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자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낸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시설에서 살 때부터 종사자와 함께 차근차근 자립준비를 해서 독립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양상을 보면, 양육시설보다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자립준비를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시설유형에 따른 특징이라기보다 시설의 분위기나 어떤 종사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에 저희 기수만 해도 이렇게 제도 지원들이 많이 나올 때가 아니었어서 LH 주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있었는데 홍보되지 않았어서 다 몰랐었던 상태. (중략) 제가 조기 퇴소했잖아요. 근데 저희 시설에서 그런 (자립) 교육을 고3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2 때 나가서 전혀 못 받았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퇴소하기 전에 자립 정착금 그 당시에 500이었거든요. LH 있고. 이렇게까지 어렵고 이런 걸 알았다더라면 저는 꼭 참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만기퇴소를 했을 거예요. (참여자1)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 조금 사고가 있었어 가지고 급하게 그동안 있었던 기존 사람들을 급하게 내보내는 입장이어서 저도 약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떠밀려 가듯이 퇴소를 한 입장이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랐었어요. (참여자15)

다만 분명한 것은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에서는 교육을 통해 ‘자립’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다는 청년이 있었지만,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사전에 ‘자립’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청년이 많았고 심지어 자신이 ‘보호대상아동’이고 ‘가정외보호’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부모나 친인척과 함께 사는 위탁가정의 아동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손가정이나 부모가 없는 아동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는 이게 가정위탁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얘기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도 없고. 어릴 때부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자랐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냥 큰아버지 댁에서 그냥 자라왔다 이 정도만 그 정도만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자랐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나 이런 지원이 있는 걸 몰랐어서. (참여자5)

저도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가정위탁보호 체계 안에 있다’라는 거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서 내가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21살이 막 됐을 때 21살 한 2월경이나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4)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 연락이 와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때 알았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참여자10)

연구참여자 중에는 정보를 접하지 못해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때도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정보가 취약하거나 전혀 접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가정위탁은 가정에서 모든 게 약간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부모님이 그런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장학 제도나 정보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설 쪽 친구들은 자라면서 시설에서 이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

음에 같이 신청을 하거나 서로 이끌어주고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게 네트워크도 존재하고 하는데 위탁쪽은 자라면서 스스로 모든 거를 찾아보고 알아내고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는 저도 불과 한 2~3년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고 지금 28살인데 그러니까는 이러한 제도를 뒤늦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여자5)

저는 이제 좀 후회스러운 게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대 저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만약에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그런 사업들을 알았더라면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알았으니까 저는 이제 자립 준비 4년 이제 작년쯤에 거의 이게 뭔지 알았고, ‘제가 대학생 때 만약에 그런 걸 알았더라면 지금 학자금 대출을 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그런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해라든가 그런 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 (참여자10)

③ 형식적 교육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중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연령별, 수준별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현재 모든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기술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 자기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자산 관리 기술, 진로탐색 기술, 직업생활 기술, 사회진출 기술의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 지침에 따르면 모든 시설 아동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참여자 중 이 프로그램의 명칭을 기억하거나, 자신이 이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거의 없었다.

그냥 금융 관련 범죄 예방이라든가 그거 밖에 기억이 안 나요. 대충 진짜 한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찍고 바로 체크 체크하고 보내는 데 이런 것들이. (중략) 사실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자립 전담 요원이 없었어 가지고 그냥 안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필수 교육 같은 것만 하고 사진 찍고 만족도 조사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전부여서 사실 들은 정보가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참여자6)

준비 과정은 그냥 시설에서 되게 어떤 교육이나 강의를 듣고 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나 봐요. 서류를 내야 선생님 입장에서 서류를 내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 고3 때부터 ‘금연 교육 이거 들어라. 무슨 유괴 이거 들어라 약물. 그거 들으라’ 해서 듣고 나와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냥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그냥 생활 밀착형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여기 세탁기 돌리는 거 밥 얹히는 거 개인 위생 이런 거. (참여자12)

대부분의 청년은 시설에서 이루어진 자립 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자립에 대한 기술은 자립 후 현실에서 “부닥치면서(참여자15)” 배웠다고 했다.

저는 교육을 받긴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나가기 전에 요리나 아까 했던 것처럼 자립 생활하는 경험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뭔가 이거는 자립을 위한 교육이야라고 뭔가 설명을 하고서 차근차근 뭔가 알려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해야 돼서 그냥 일단 들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퇴소하고 사실 저는 부닥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중략) 저희 나갔던 언니들도 다 직접 부딪히면서 배웠대요. (중략) 집을 어떻게 관리비는 어디다 내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며 약간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하면서 친구들 생활하는 거 보고 주변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하고 약간 그런 거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참여자15)

저희 시설은 금융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여러 교육을 시켜주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한 번 듣고 이게 체화가 안 되면 내게 안 돼버려요. 그러면은 진짜 딱 졸업해서 나가면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겪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에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후속적으로 계속 뭔가 교육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 번 딱 하고 ‘이제 됐지? 너희 다 이해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여자16)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그러한 교육마저도 진행되는 일이 없었다. 위탁가정에서 살았던 청년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선생님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았다(참여자4)”고 기억하고 있었다.

딱히 많이 도움을 못 받았어요. 퇴소 전에는 퇴소 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위탁이다 보니까는 위탁 선생님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거든요. 저희 생존 여부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냥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참여자5)

④ 홀로, 혹은 어깨너머로 눈치껏 준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온전히 혼자 자립 준비를 해온 청년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 많았다. 이들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인식하고 시설에서 퇴소하기 전 최대한 많은 것을 준비하기 원했다.

저는 18살 때부터 고민을 했고요. 보호 종료되기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나가서 해야 될 것들 마련해야 될 집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준비했었고. (참여자4)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물품을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용돈도 조금 벌어야 돼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냥 계속해서 돈도 꾸준히 모으고 그 정보 업데이트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자립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더 있는지 계속 알아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LH를 구하러 여주에 살았는데 화성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갔어. (참여자9)

자립준비의 필요성을 미리 인식한 청년들은 시설에 있을 때 선생님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어깨 너머로(참여자15)” 자립생활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자립생활을 익히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먼저 자립한 선배의 경험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퇴소 후 어려움이 있을 때 시설 선배에게 먼저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고 정보를 구하곤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문가나 어른들의 조언보다 최근에 자립한 선배들의 조언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정말 저는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생활하실 때 그런 하셨던 부분들 어깨 너머로 배웠던 것 같아요.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장을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공과금 같은 거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체득한 스타일이라서. 이게 정말 저에게는 정말 진짜 생활적으로 그냥 보고 배웠다. (참여자15).

조금 더 뭔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담요원 선생님 보다는 먼저 자립을 한 자립 선배가 훨씬 더 도움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제

가 생각할 때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나보다 1년 2년 그러니까 너무 또 차이 나면 정책적으로 다르니까 안 되고 ‘1년 2년 정도 먼저 자립한 선배를 매칭해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현재도 하고 있고요. (참여자7)

(3) 스스로 서는 것(自立)의 어려움

① 갑자기 얻은 자유와 혼란

퇴소한 후 청년들은 ‘자유로움’을 가장 크게 느꼈다. “혼자 살 때 좋았던 거는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고(참여자1)”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설에서 살 때는 그 소음(참여자1)” 때문에 힘들었지만 혼자 살게 되니 조용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곧 혼란스러움으로 바뀌기도 했다.

대학을 가고 나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고 대학을 가고 나니까, 막상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중략) 그런 생활을 하고 밖에 나왔을 때 어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너는 뭘 좋아해? 너는 뭘 하고 싶어?’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할 수 없던 게 정체감에 혼란이 왔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참여자14)

자립 이후에는 선택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자립 이후에 주거 선택부터 내가 지금 당장에 뭘 할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자기만의 판단과 의지로 결정하고 해야 된다는 점이 자립 이후에 어려우면서도 저는 실제로는 어렵긴 했지만 좀 좋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립 이후에 선택할 것이 많고 깊어져야 할 책임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참여자7)

이러한 마음이 생긴 데에는 자립 후에는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게 작용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은 힘들어도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상황에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다.

‘뭘 해먹고 나는 이제 살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걱정이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취업, 그리고 나의 일 나의 직업에 대한 걱정이 많이 컸었어요. (참여자4)

딱 졸업하고 시설 정문이 나가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끼이끼이 올라가 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설에 부탁할 수도 없고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이 아는 분 동원해가지고 차에 이렇게 실어줘가지고 약간 시설이 좀 좀 냉혹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많은 짐들을 이제 내가 하고 상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딱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딱 그때 느꼈죠. ‘차갑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많은 애들이 그냥 이제 딱 스트레스 타고 본인들 취업한 회사에 가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죠. (참여자16)

보육원이나 시설에 있을 때는 다들 혼자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것들이 위로가 되거든요.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진짜 자립을 하게 됐을 때는 물론 자립 전담 요원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일상 시간을 혼자서 감내해야 되거든요. (참여자7)

홀로 독립하여 살아가게 되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매우 소소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은 그때그때 물어볼 곳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몸이 아픈데도 돌봐줄 사람이 없이 홀로 병원에 가야할 때 힘들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고장난 물건을 수리해야 할 때 어려움을 크게 느꼈다.

조금, 조금 서럽기도 하고 사실 그동안에는 어쨌든 병원비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도 몰랐는데 아프면 병원비에 대한 걱정도 하면서 이제 당장 몸도 아픈데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때 조금 약간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9)

이제 힘든 거는 똑같이 집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다 보니까 힘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전 잘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

자립준비청년들은 나를 지지해 주고 조력해 줄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굉장히 장기적으로 부재했잖아요. (참여자4)

“자립 전에는 실수를 해도 수용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단계(참여자4)”가 있었지만, 자립 후에는 성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늘 긴장한 상태로 지내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그래서 그때 내면을 좀 키워야겠다 내가 나의 어른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지지해줄 부모가 없으니 난 내가 내 스스로의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참여자7)”을 하기도 했다.

자립 후에 좀 특별한 점은 어른으로서의 행동이나 태도 방향성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점차 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주변에서 나의 이제 인적 지지 자원들이 ‘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 깊이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4)

② 홀로 있는 고독과 외로움

퇴소한 후 청년들은 혼자 사는 집에 흐르는 적막감을 견디기 어려웠다. 청년 중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TV를 켜고 자거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홀로 있으면서 공허함과 고독감을 느꼈다.

싸했습니다. 싸했고요. 그리고 저는 tv를 틀고 잤어요. 왜냐면 그날 자취방에 모든 짐을 풀어놓고 딱 앉아 있는데 그 흐르는 적막감 있잖아요. ‘뻘~’ 하면서 그 흐르는 적막감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제 나는 진짜 혼자구나! 나는 이제 진짜 혼자구나!’ 해서 근데 그 적막감 그 이명이라든가 그 적막감 엄청 조용한 거 있잖아요. 30명이 한 방에서 이렇게 시끌시끌하면서 막 싸우고 웃고 했던 그 19년이 하루 만에 뒤집혔잖아요. 이제 딱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누군가 떠드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TV를 틀어 놓고 한 3~4개월을 TV를 틀어 놓고 잤어요. 그래야 잠이 오더라고요. (참여자16)

저는 되게 저도 퇴소하고 난 뒤에는 되게 공허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단체 생활을 하다가 혼자서 생활을 하니까 사실 그거를 되게 꿈꾸긴 했었거든요. 시설 안에 있었을 때는 나도 내 혼자만의 있는 공간 내가 원하는 음식 내가 원하는 삶을 뭔가 꿈꾸고 싶었는데 막상 진짜 집에 혼자 그렇게 덩그러니 있으니까 되게 공허한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참여자15)

이러한 감정이 깊어지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우울증은 자립 직후보다 2~3년이 지난 시점에 더 크게 나타났고, 어떤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여 소속이 없어지면서 드러나기도 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립하고 1년 차까지 굉장히 우울증과 싸웠어요. 원래는 우울증과 거리감이 있는 성향이거든요. 제가 되게 쉽게 힘든 거 잊어먹는 성향인데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됐다’라는 그 고립감이 엄청났습니다. (참여자7)

제가 3~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과 뭔가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참여자6)

‘이제 혼자’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2년간 대학 생활하면서 친구들로 인해서 조금 많이 매꿔졌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제 진짜 내가 혼자가 되는구나’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로서 학교가 존재했는데 그것마저 이제 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대학교 4학년 기말고사를 끝난 시점부터 심각하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잠을 자려면 소주 3병에서 5병 정도는 있었어야 했고, 그래서 눈 뜨면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사람들 만나서 축구만 맨날 하러 다니고 운동하면 그 체력을 체력 소진한 거에다가 소주 힘을 빌려서 또 자고 이 생각을 한 두세 달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거치면서 저 스스로가 망가진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참여자14)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한번 쌓아둔 감정의 탑이 “무너지면 탑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참여자4)”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들의 회복력은 다른 청년보다 더딘 편이고, 어떤 경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때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넘어진 상황에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줄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청년들에 비해서는 조금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중략) 짧게는 3년 5년 길게는 20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아예 없거나 부재했거나 그런 조력을 받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버텨온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죠. (참여자4)

한 번 무너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무너지면 돌아갈 집이 있거나 도와줄 부모님이 있거나 이러한 곳이 있지만, 저희는 무너지거나 아니면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는 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여자5)

③ 잦은 이사, 불안정한 주거

청년들이 자립하여 가장 처음 겪는 어려움은 집을 구하는 문제다. 연구참여자들은 퇴소 후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어렵게 집을 구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높은 월세로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은 거의 매해 이사를 했는데, 이는 높은 주거비 때문이기도 하고 학교나 일자리를 따라 이동할 일이 잦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들의 주거 환경은 매우 ‘불안정’ 했다.

디딤씨앗통장이라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들어주는 통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금액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당장 보증금이 5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집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돈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고 ‘진짜 이걸 혼자다. 나는 이제 누구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럴 여력이 안 되셨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저한테는 어른이 없어서 서러운 순간. (참여자6)

주거지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다니면 이제 학교 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거의 뭐 서울에서 태어난 애들도 이제 인서울 학교 쪽으로는 가기가 좀 힘들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권으로 많이 빠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자취방 구하려고 이제 글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한 번 중간에 중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이직할 때마다 좀 옮겼던 것 같아요. (참여자2)

처음에는 대학 기숙사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녁 이후에는 디딤씨앗 돈으로 원룸 월세 들어갔다가, 뒤늦게 그냥 친구 주변 친구들이 LH 전세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알게 되어서 LH 찾아서 하게 되었거든요. (참여자5)

이들은 공공임대나 전세비 지원제도 등을 통해 ‘살만한 집’을 얻어 살게 된 상황에서도 언제까지 그 집에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느꼈다.

그냥 불안감 계속 그 LH에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보증금 이런 거. (참여자12)

계속 계속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의 보증자리가 있는 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자10)

④ 돈 없는 서러움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언급한 자립 생활의 어려움은 바로 ‘돈 없는 서러움’이었다. 생활비가 부족해 먹을 것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경우도 많았고, 식비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은 보호 종료가 되면서 내가 이제 사회인으로 나서야 되니까 막연한 경제적인 부분 돈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 있었어요. 막연한 돈의 걱정. (참여자4)

저는 돈이 없을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딱 도움받을 사람. 밥은 먹어야 돼. 모르겠어요. 그때는 밥을 한 끼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아침 점심에 안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왜 제 수중에 계속 없으니까 일도 하고 하는데 돈은 없고 밥은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대학교 가는데 또 옷은 또 입어야 되고, 그런 게 처음에 처음에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밥 같이 먹자고 해도 근데 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그냥 밥을 먹었다라고 한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10)

저도 먹는 게 가장. 의식주가 가장 필수적이고 거기서 먹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제가 그 국을 사가지고 그걸 불러서 먹었던. 그냥 시장에서 반찬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양을) 불러서 먹을 수 있거든요. 국 한 번 사면 한 최대 5번에서 4번까지 수 있는데 그걸 20살 초반 때 계속했었고, 그게 가장 어려웠던 기억에 남았어요. (참여자13)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돈을 벌어야 했다. 2~3가지 아르바이트는 기본이었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학기 중에 쓸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생활은 지금 아직 수급자 보호 종료되면 학교 졸업하면서 수급자 유예기간 2년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수급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종료가 되면서 자

립수당 받고 있고, 그 외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잠깐잠깐 점심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또 생활비를 벌고 있어. (참여자5)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없었고, 그래서 대학교 때는 항상 어디든 가도 다 아르바이트 일을 해서 술집도 하고 하던데, 노가다가 돈을 제일 많이 줬어요. (중략)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는 보통 방학 때는 그냥 막노동을 다 했던 것 같아요. 4년 한 1년 넘게 2~3개월 나눠서 계속 또 다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 저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졸업을 해도 직장을 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참여자10)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돈은 자립 시기나 지역에 따라 지원 범위, 액수에 편차가 컸다. 최근 자립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자립할 때 2~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전에 자립한 청년은 이에 대해 괴리감을 느끼기도 했다.

저는 막 나와서 400만 원 간간히 받았는데 애들은 막 최소 1800만 원씩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니까 조금 많이 차이를 느끼긴 했어요. (참여자14)

자립 지원금을 많이 받은 청년들 중에는 갑자기 생긴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손에 쥔 목돈을 계획 없이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거나 주식, 도박, 사기 등에 연루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금방 나온 애들 금방 나오는 애들 사실은 저도 사실은 20살 때 뭐 워낙 자유분방하게, 이제 워낙 이제 자유를 너무 달콤하게 맛봤으니까. 1년 동안 이제 폭주 기관차처럼 이제 막 술 마시고 노는 거죠. (참여자2)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이나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조금 늘어난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 좀 사용해야 될지’ 사실 이거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예금 적금을 해서 착실히 이제 미래 생활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 또 그거는 이제 주변으로부터 어떤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또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고. (참여자6)

정착금 300만 원 받고 나왔는데 300만 원으로 집안에 가구 채우는데 끝났거든요. 맞아 일단 그러니까 저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2천만 원이고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5년을 주면 이것도 돈이 꽤 되는 건데 5천만 원 정도 생기는 건데, 5년 동안 숨만 쉬어도 근데 이것을 그냥 다 탕진을 하고 ‘난 이제 지금 돈이 충분히 있는데, 왜 내가 알바를 해야 되고 왜 계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많고. 내가 왜 적금을 들고 예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명품은 왜 사면 안 돼? 왜 중고차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나가는 생각. (참여자14)

2) 사업 참여 과정

(1) 끊임없는 탐색과 도전

① 노력한 만큼 획득하는 정보

연구참여자들은 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정보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채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1,500명 정도 모여 있는 온라인 대화방이었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청년도 있었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이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접근이 쉬웠다.

이제 자립정보온이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정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함께만드는세상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 참여했던 사업이 이제 (사)함께만드는세상이나 한화생명이라 같이 하는 긴급 지원 사업. 50만 원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해서 이제 그때 (사)함께만드는세상을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해서 이제 자립정보원이나 (사)함께만드는 세상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좀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참여자17)

인터넷으로 찾는데 지금은 자립 준비 청년들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통이 좀 많아가지고 ‘자립정보온’이나 그런 데 홈페이지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홈페이지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사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찾으려면은 오픈채팅방이 가장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참여자15)

거기 워낙에 준비 자립 준비 청년한테 대상 지원들이 다 올라온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하루에 한두 개씩 올라오는 거 보고 내가 해당되면 지원하고 아니면 나는 해당 안 되지만 내가 아는 애가 해당되면 그거 보내주고. 그리고 저도 제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너무 좋잖아요. 한 플랫폼에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참여자1)

이들은 자립과 관련한 지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신청하기를 반복해왔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신청을 하는 청년도 있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부분 공공이나 민간사업에 신청과 선정 경험이 많았고, 사업 지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은 혼자서 모든 것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는 과정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다(참여자5)”고 여겼다.

격주로 복지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해서 계속 준비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공유도 하고요. (참여자13)

현재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모르고 남들은 내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니까는 내가 계속 남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곳에서 지원해보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야. 이제서야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두 개씩 더 생기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뭔가 생겼을 때 요청하고 도움받고. (참여자5)

② 후원도 부익부 빈익빈

대부분 자립과 관련한 지원은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이때 자기소개서 쓰기와 면접심사는 거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자기소개서 준비와 면접은 글쓰기나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한 청년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은 이러한 경험과 역량이 큰 청년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자연스럽게 대학생이나 대졸 이상의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지곤 했다.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시설에서 이런 지원 경험이 많았던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이 수월하고,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자주 선정이 된다고 했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장학금을 많이 받은 모범적인 애들은 그게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하고요. 또 하나는 ‘좀 영리하다 해야되나? 약삭빠르다 해야되나?’ 불법적이진 않아요. 그런 애들이 잘 타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막 중복 수혜받죠. 못 받는 애들이 있어요. 못 받는 애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계속 한두 번 떨어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설에서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자1)

결국은 본인이 자기소개서 쓰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애들은 아예 안 하죠. (중략) 그렇죠 그게 좀 어렸을 때 역량도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시설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애들도 많으니까 계속 줄을 세운단 말이에요. 애들 각 반에 한두 명만 이제 어떤 장학금 혜택이나. 이게 좀 어렵죠. 왜냐면 20살인데 자기소개서 솔직히 써본 적도 없고 저는 그나마 이제 그런 걸 쓰는 걸 원래 좀 원래부터 많이 잘했다 보니까 쓰는데 몰랐던 친구들은 써서 넣어봤자 떨어지죠. 글이 엉망이니까. (참여자2)

상대적으로 지원 사업에 탈락한 청년들은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런 기회가 있어도 도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즉, 글쓰기와 발표능력, 의사소통 역량이 낮은 청년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이러한 자원을 획득하기 어렵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이러한 자원의 쏠림 현상이 불공평하므로 사각지대 청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더 소외된 애들한테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못 쓰거든요. 개네들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개네들은 애초에 삶의 의지가 좀 더 낮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개네들도 계속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결과가 실패 될 것이 예상돼도 ‘개네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1)

또 다른 청년은 자기소개서 쓰기는 어떤일을 하던 지 매우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심사에서는 글쓰기나 면접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절실함과 열정, 삶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이므로 이런 심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사)함께만드는세상의 담당자도 (사)함께만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신뢰’이고 사업참여자를 선발할 때도 이 가치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개인적인 자립 의지랑 뭔가 자아를 탐구하려고 하니까, ‘강한 의지, 이런 탐색 자기만의 탐색’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 (참여자12)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사실 저는 뭔가 글을 쓰는 솜씨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그리고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뭔가를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잘 드러나면 상관없는데, 그냥 사실 지원금을 따내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그래서 이걸 뭔가 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진짜 본인의 의지와 내가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미래의 계획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적어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15)

정말 ‘우리는 사각지대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어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정말 필요하다면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이 좀 약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의지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러면서 본인들 계속 피해자라고 하고 그렇게 조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이 좀 강해져서 시도해보고 부딪혀서, 그래서 안 된다 하면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거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 주변에 들리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중략) 저는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 일단 무조건 부닥쳐보고 좀 번거롭더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해서 좀 좋은 인연들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계속 언저리에서 놀지 말고 사실 지원받는 것도 내가 얼마나 하느냐인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16)

(2) 긴 호흡으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

① 저축보험: 천천히 쌓아가기

연구참여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한 이유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목돈을 마련한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WE CARE_DREAM 저축보험은 3년간 납입을 완료해야 보험금을 찾을 수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매우 새로웠다.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신청과 선발을 마치면 바로 돈을 지급하거나, 먼저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한 후 영수증 등으로 지출을 증빙하면 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하고 3년간의 기다림도 필요하다.

이 사업이 사실 아마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이거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어쨌든 목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메리트가 있어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참여자9)

② 영상제작: 나의 비전 나의 꿈 알아가기

제1기에 진행한 영상제작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은 꿈과 비전 찾기에 관한 특강을 듣고 집단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단 활동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탐색하는 질문들이 주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하게 된다. 이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가 집단 활동에 배치되었으며, 청년들은 영상제작과 촬영기술 등을 배웠다. 연구참여자는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에 대해 아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가장 저도 여러 지원 사업에 참여해 보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멘토링이라든지 진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고, 그 도움들 가운데 제가 정말 이제 ‘좋아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6)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참여자마다 평가가 엇갈렸는데, 한 참여자는 영상편집 기술을 배우는 것과 자신의 꿈을 찾는 것 어느 쪽도 충분히 경험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③ 봉사활동: 다른 사람을 살피고 배워가기

2기 참여자들은 참여자들끼리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봉사활동은 주로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한 팀도 있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시설에 사는 아동을 만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나눌 기회라

고 생각했다. 이들은 먼저 자립한 청년들이 시설 아동에게 “버팀목(참여자5)”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시설 친구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저희 조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봉사하면서 또 아이들의 이야기도 또 들어보고, 또 이 아이들을 또 우연치 않게 또 다른 행사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또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고 자립을 커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참여자6)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받은 만큼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뿌리는 약간 그런 강제적으로 약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귀찮으면서도 하면서도 귀찮지만 오히려 근데 저희는 이런 것을 남들한테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조금 있다 보니까는. 그런 욕구도 좀 충족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이 친구들이 앞으로 나갔을 때 좀 더 저희한테 ‘버팀목’ 그러니까 저희한테 멘토로서 의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자5)

④ 멤버십: 나를 보여주며 다가가기

청년들은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자립준비청년을 만나 “가족처럼(참여자6)” 지내게 되어 좋았다고 했다. 이들은 시설을 퇴소 한 후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 사업 만난 참여자들과 교류하면서 현실적인 도움을 얻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의지하기도 하였다

커뮤니티 활동에서는 모르는 친구들이었지만 그래도 한 명씩 한 명씩 알아가면서 같이 워크숍도 가고 명절 나들이도 가고 이러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돼서 저한테는 그게 너무 좋았어. (중략) 저는 나왔을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짜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같은 지역에서 우리 ○○형을 만나가지고 제 첫 자립준비청년 선배이자 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런 활동을 같이 하면서 만나게 돼서 저한테 그게 너무 뜻깊었고. (참여자6)

멤버십은 마치 ‘상조회’처럼 운영되는데, 모든 멤버십 회원은 생일과 명절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결혼이나 출산, 입학 시에 추가로 축하금을 받는다. 멤

버십에 참여한 청년은 생일이나 명절을 홀로 지내야 했는데, 그런 날들을 서로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된다고 했다.

제가 신청을 했던 이유는 사실 그런 생일이나 명절 이런 것들을 저희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챙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생일인 친구들이 챙겨주지만 명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뭔가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날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런 날들을 뭔가 이렇게 소정의 돈이라도 뭔가 이렇게 챙겨줌으로써 같이 뭔가 기뻐해 주고 뭔가 응원해 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유로 저는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15)

근데 이제 학교라는 게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생일이나 입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선물도 주고 그리고 누군가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인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각자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끼리 상조회를 해보자 우리도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참여자14)

저희 오프라인 모임 하시는 회원분들 중에 결혼을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 내년 1월에 뭔가 그런 것들을 ‘같이 갈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축하하는 저희는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좀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뭔가, ‘가서 응원을 해준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참여자15)

회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관리하고 있다. 청년들은 매달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후원기관에서 1만원을 기부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고정 경조사 지원금은요. 생일이나 명절 관련해서 따로 신청자를 받고 있지 않고요. 회원분들의 정보를 제가 네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현재 그걸 보고서 그 생일에 맞게 월별 신청을 따로 연대 은행 관계자분들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때마다 그 기간에 맞춰서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 달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명절은 5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1인당 생일은 10만 원 맞아요. 10만 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다거나 입학을 한다거나 그

런 경우들은 개인 구비 서류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 금액에 맞게 좀 해줘요. 결혼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주고요. 출산도 10만 원을 해주고 취업은 5만 원, 입학도 5만 원 이렇게. (참여자15)

멤버십 활동이 되게 처음 보면 이 회비를 내면서까지 멤버십 활동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회비로 되게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거에 대한 멤버십에 참여를 했을 때 되게 좋은 활동들이 오고 갈 거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리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없기 때문에 전 이런 자리가 되게 기대되는 편이고 부담은 되지 않아요. (참여자12)

제3기가 출범하면서 멤버십 회원들 간의 첫 오프라인 모임도 열렸다. 이날은 멤버십 회원들이 인사 나누고 음식과 놀이를 즐기는 것을 구성되었으며, 이 행사의 전체 기획과 진행을 멤버십 회원인 자립준비청년이 맡았다. 멤버십을 창립하면서 4명의 리더를 선발하여 이들이 경조사비 관리와 활동 진행을 주도하도록 하였으며,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이들의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처음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멤버십 하는 분들끼리 만나서 얼굴 보고, 이제 좀 친해지고 그런 시간도 갖고. 저희가 추후에 오프라인 활동을 1년에 세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약정식을 제외하고 약정식 포함해서 두 번째 오프라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끼리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자 한 2시간 정도 레크레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레크레이션 진행하고 이제 지역별 모임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이제 공지하고 설명 안내드리고 그리고 각 조끼리 모여서 이제 모든 인원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우선은 이제 대략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작성해서 발표하고 그게 넘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저녁 식사하시면서 이제 다 같이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14)

온라인 공간에도 모임이 있다. 네이버 카페에는 멤버십 회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멤버십 활동과 관련한 공식적인 안내와 자료 공유도 이루어지지만, 자유게시판이나 정보 공유란을 통해 다른 기관의 정보나 개인적인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하기도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을 시상하여 활동을 독려하려는 계획도 있다.

지금 온라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온라인 활동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 카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진행 현황이랑 이제 앞으로 우

리가 2차 오프라인 활동 3차 오프라인 활동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도 다른 라인 다음 오프라인 활동을 조별로 이가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조별이 각 지역별로 좀 쪼갠 거거든요. 월별 활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6월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6월에는 이제 자기소개 7월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소개, 8월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 소개 이런 식으로 매월 이제 주제가 바뀌게 돼. (참여자14)

이게 추후에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둘 다 합쳐서 활동을 제일 많이 활발하게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상금도 지금 드리거든요. 1등 35만 원, 2등 25만 원, 3등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이 돼 있어서 그런 걸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의 그런 활동을 좀 재미있어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100%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50% 이상은 좀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여자14)

저희는 사실 멤버십 운영이 그냥 소통만 하고 친해지자고 하는 그런 또 사업 그 취지가 아니고 뭔가 활동을 같이 하고 뭔가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그런 또 유지되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적절 지금 저도 저는 근데 지금 적절한 건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냥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들어갔어라고 하더라도 이 모임이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창구는 아무래도 네이버 카페나 그런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15)

3) 사업 성과와 성과의 맥락

(1) 나를 챙기고 보살핌

① 목돈 마련

WE CARE_DREAM 사업의 가장 큰 차별성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1천만원 정도의 큰 돈을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청년은 앞으로 주택 마련이나 결혼준비 등 큰 돈을 써야 할 일이 예상되지만, 그동안은 이런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참여자 5)”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일단 보험 형식인 것 자체도 없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만큼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도 없었어요. (중략) 3년짜리 사업이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잖아요. 돈이 어떻게 보면 조금 모이면 쉽게 모이고 조금 모이니까는 쉽게 써요. (참여자5)

‘그걸 통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요. 차별성은 우선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해서 어찌됐건 결혼, 그다음에 주거지 마련해서 시드머니를 종잣돈을 써야 되는 순간이 그래도 한 두 번 정도는 30대 초중반 까지 해서, 대한민국 청년의 나이가 만 34세잖아요. 그 시기까지 한 두 번 정도는 쓸 것 같은 그런 종잣돈을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참여자6)

그리고 이 돈은 활용의 자유가 보장된다. 많은 사업에서 현금을 지원하더라도 미리 계획한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거나 사용처에 제한이 있었으며, 돈을 사용하더라도 지출한 영수증으로 지출 결과를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저축보험은 만기되어 수령하면 개인이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보통은 대부분이 뭐냐 교재비 사고 생활비 쓰고 영수증 증빙하고, 아니면 뭐 교육비에 쓰고 영수증 증빙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목적이 있게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주는 장학금이 많았거든요. (참여자1)

② 든든한 보장

WE CARE_DREAM 저축보험은 저축에 초점을 둔 상품이지만,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낯선 일이었다. 물론 3년 만기의 기간이지만, 청년들은 자신이 앓을 때를 대비했다는 것 자체로 든든함을 느꼈다. 청년들은 3년이 지난 후에도 보험을 유지하거나 갱신하기를 바라기도 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또 아플 때 이 보험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저한테 진짜 너무 제일 다른 거. 다 단발성이더라도 이걸 3년이라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한 그런 버팀목 같은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참여자6)

보험이라는 것도 봤을 때 안 좋은 날에도 챙겨주고 조금 사고가 있거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참여자9)

그러나 이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절차가 개인보험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점도 있었다. 그리고 이 보험 자체가 이 사업을 특정하여 개발한 상품이므로, 상품의 내용과 수령방식에 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어떤 경우는 보험금 수령 절차를 알아보기 어려워 수령이 지연되기도 했다.

단체 계약 보험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 단체보험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그러니까 보험금을 제가 타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엄청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담당자분들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고 그쪽 한화생명 쪽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보험금을 수령하러 못 갔거든요. (참여자5)

③ 저축 습관을 키움

이 사업의 지원금은 선발하자마자 바로 지급하지 않는다. 3년을 기다려 만기가 되어 지급하고, 참여자들도 일부 기여금을 납부해야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연구참여자들도 본 사업의 긴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는 규칙에 관해 공통으로 이야기하였다.

저도 처음에는 결국은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저축해서 도움은 확실히 됐고 그런 성취감을 되게 많이 느끼긴 했는데. 3년을 했다는 게 사실은 3년 하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참여자2)

다른 사업은 돈을 ‘쓰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사업은 ‘돈을 쓰는 사업이 아니라 모으는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3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시간도 짧기도 하고 성숙해 지기가 힘들 거죠. 근데 이거는 장기적이다 보니까는 모으는 과정은 힘들지언정 그게 바라보는 게 좀 멀어서 당장은 크게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는 힘들지언정 그 모으는 과정에서 그 참는 것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5)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WE CARE_DREAM 사업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사업이라고 평가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은 갑자기 얻은 큰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돈을 한꺼번에 다 쓰고 신용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들은 천만원이라는 돈을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3년의 기다림 가운데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사)함께만드는세상 담당자는 경제적 자립은 ‘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사)함께만드는세상에는 본 사업 외에 금융 멘토링을 통해 청년의 지출관리를 코칭하고 있었다.

직간접적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5년째 됐는데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 단체들 중에서 이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한 이해도가 저는 제일 높은 기관 그리고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4)

1년 동안 우선은 계속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조금 반강제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느끼기에는. 근데 결국은 본인이 달성한 목표를 위해서 돈이 든지 아니면 계획이든지 이렇게 좀 강제되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중략) ‘참여를 하게 되지 않으면은 뭐야 저축한 금액을 못 받는다’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참여자2)

3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어요. (참여자1)

이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함께만드는세상과 후원기관인 한화생명의 의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많은 기관과 후원기관들은 1년 정도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고, 사회적 관심이 사라지면 다른 이슈화된 사업으로 지원의 초점을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사)함께만드는세상과 한화생명은 오랜 기간 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왔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부 다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으로 조금씩 경제 교육 조금씩 하면서 단기적으로 한 6개월이나 조금 모으고 그만큼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먹게 해주거나 하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은 없거든요. (참여자5)

(한화생명에서) 꾸준히 (지원)해주시는 거에 되게 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연대 선생님들한테도 좀 감동을 많이 받았죠. (참여자2)

메이저 단체들 많은데 ‘그냥 그런 단체들하고는 다르게 어느 정도 조금 더 자립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좀 더 약간 체계적으로 뭔가를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는 걸 보면서 좀 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좀 더 섬세한 단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참여자16)

사업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은 (사)함께만드는세상과 한화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돈 말고도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이제 (사)함께만드는세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한화생명도 되게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또 한화생명에 대한 이미지도 좀 더 좋아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함께만드는세상이 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거를 알아가지고, (사)함께만드는세상도 이제 또 알게 되고 또 ‘굉장히 좋은 단체고 여러 군데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참여자17)

한화생명에서는 그냥 이게 보험사라고만 솔직히 알고 있었고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정말 정말 당장 필요하고 멀리 봤을 때도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들을 후원을 해 주셔서 이미지가 정말 모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알면서 하게 되니까 너무 좀 좋은 이미지로 진짜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6)

④ 경제 계획을 구체화함

천만원의 돈을 사용하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다. 특히, 매월 생활비를 아껴 보험료를 납부하며 마련한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매우 귀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청년들은 목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청년들이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더 큰돈을 모으는데 재투자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더 큰돈을 마련해 주택을 마련하거나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에 쓰겠다고 했다.

앞으로 진로 이러한 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달 그러면은 이거 ‘고정비로 저축이 얼마큼 나가야 돼 적금을 얼마큼 넣을 수 있겠다.’ ‘나는 이런 게 생기고 이만큼 빼고 이제 내 생활비를 여기서 안에서 어떻게 해나가야겠다.’ 약간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소비도 한번 돌아보고 저축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미래를 꾸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참여자5)

WE CARE_DREAM이 3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3년 뒤에 그러면 내가 이걸 계속 냈을 때 3년 뒤에는 이 정도 내고 3년 뒤에 천만 원이 생기고 근데 또 다른 청년 내 저축 계좌나 이런 걸 가입하게 돼서 또 이런 걸로 해도 천만 원 나오고 (디딤돌) 계좌도 한 천만 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모으다 보면 ‘나중에 몇 년 뒤에는 나 한 5천만 원 정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는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돈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저축했을 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 이걸로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참여자5)

(사)함께만드는세상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사업의 청년들은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 준비를 단단하게 해나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은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시니어 멘토를 통해 자산 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별적인 상황에 맞춤형으로 진행된다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제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게 진짜 뭐라해야 되지? 좀 약간 일대일 약간 맞춤형으로 뭔가 해주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진로 교육이든 경제 교육이든 그런 거를 조금 더 개개인한테 잘 맞춰지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 나를 찾음

① 나를 더 알게 됨

본 사업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어떤 청년은 그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몰랐는데 본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시설에 살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말할 기회가 없었다. 아무도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바라는 것을 말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했다.

자립 이후에 이런 것들을 검사나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제대로 처음으로, 항상 좀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좀 더 진지하고 그다음에 진로랑 관련해서 좀 더 제대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략)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뭐 할 때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행복한 것들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자5)

시설에 살았을 땐 원하는 게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때 원하는 게 특별히 없었고 원하는 것들을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는 조금 뭔가 수동적인 자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자립 혼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자립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여자15)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관해서 떠올려보고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네트워킹 활동으로 자기가 되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콘텐츠로 교육을 구성했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내 미래, 5년 계획, 10년 계획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했어요. 한 3~4시간 동안 1년에 한 두세 번 했는데 그 두세 번 할 때마다 3~4시간씩 있었거든요. 그런 걸 계속 고민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좀 좀 귀찮긴 했는데 도움은 됐어요. (참여자1)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이면서 동시에 이제 한 청년으로서 이제 진로적인 고민이라든지 당장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을 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부분들도 조금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저희 제가 그러가고 싶은 저의 모습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저는 그 점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6)

② 안정감을 느낌

청년들은 이러한 깊이 있는 성찰 속에서 “내면적으로도 성숙해진(참여자5)” 느낌을 받았다. 물론 이러한 안정감은 자기에 대한 성찰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감이 컸던 자립준비청년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된 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지지체계가 생긴 것도 영향을 주었다.

심리적인 거나 그런 것도 좀 많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이상적인 이상형을 꾸릴 수 있어가지고. (참여자5)

저는 그래도 지금이 최소 제 인생에서 가장 좀 안정적이고 좀 보람찬 인생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집도 LH 이제 거의 4년째 지내고 있고 주거 관리도 꽤 잘 하고 있고 그다음 회사도 정규직이면서 많은 월급을 받고 저축도 잘하고. (중략) 작년 4월 5월부터 제가 작년 3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참여자1)

③ 삶의 동기와 열정이 생김

청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삶에 대한 더 큰 동기와 열정이 생겼다고 했다. 일례로 한 청년은 음악을 전공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기가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한화생명에서는 대규모 행사에서 이 청년이 연주를 할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했는데, 이 기회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다시 도전하는데 동력이 되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제일 재밌고 말했던 것처럼 모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사실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냥 막 막연한 건 아니지만 의지 없이 사는 분들은 사실 이런 데에 노출이 잘 안 되고 조금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도 사실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저렇게 살면 나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저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사실 큰 것 같아요. (참여자9)

많이 밝아지고 그리고 부딪혀보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혀보면서 사회성도 다시 좋아지고 그리고 성취감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며 음악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에 뒤집히는 일들이 사건들 이벤트들이 일어나면서 음악도 오히려 같이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자산 형성 사업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데 이제 커뮤니티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축도 더 하고 싶었던 찰나에 마침 이걸 한대요. 그래서 'WE CARE_DREAM을 그래서 이거는 운명이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참여자16)

청년들은 성공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사업은 그러한 경험을 제공해주기에 충분했다고 이야기했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 것이 스스로의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경험을 많이 늘려라' 했는데 그냥 실패의 경험을 많이 쌓고 성공의 경험을 많이 누리는 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통 경험하면 되게 좋은 쪽으로 성공 이런 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패의 경험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저는 되게 이거 해볼까 주저했던 날들이 조금 많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기회에 그런 것들을 잘 잡고 그렇게 해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후에 그런 자기와 관련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을. (참여자12)

'많이 누리고 많이 요구해라.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항상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코멘트를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데 다들 조금 탈출하고 싶어 하고 내가 살아왔던 환경을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저도 막 다 드러내고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조금 내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는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저는 누려봐야 우리가 더 뛰가 필요한지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9)

(3) 타인을 통한 배움과 나눔

① 다른 사람을 돌아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청년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길 원했다. 그리고 자신이 온몸으로 겪으며 체득한 자립생활의 노하우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나 갓 자립한 어린 청년들에게 전달해주겠다고 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움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큰 변화이자 의미가 있는 일이다.

어렸을 때 그 느꼈던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함 그리고 내가 당사자임을 늦게 인지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활동의 원천요.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 또래들을 돕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참여자4)

왜냐하면 LH가 40살이면 끝나거든요. 40살이 끝나고부터 애들은 무주택자예요. 집이 아예 없어.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현실 감각 있게 하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때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말 사회 밑바닥 계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죠. 40살까지는 정부의 제도적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애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참여자1)

②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움

연구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이기도 하고,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된 변화이기도 하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것도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공과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조금 기술을 키운다고 해야 되나 이런 책임감 이런 걸 해야 돼 알려 주는 것도 좀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참여자9)

저 저는 되게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참여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진짜 재네도 열심히 산 ‘재네도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좀 약간 위로. 그리고 약간 동질감 그런 거 느끼는 건 있어요. (참여자1)

③ 청년 주도로 활동함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배우기도 했다. 이 사업에서는 청년 스스로 기획하는 환경과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계획하거나 청년들이 만날 때, 청년들은 자유롭게 내용을 구상하고 실현해볼 수 있었고, 영상제작이나 멤버십 활동도 청년 중심으로 진행하는 활동들이었다.

커뮤니티 활동에서 조별 나눠가지고 돈을 쥐서 한 10만원씩 쥐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고 모임하고, 그거 영수증 증빙하고, 근데 그게 뭐 강제된 게 아니라 자기네들 약속을 다 잡으라고 해가지고. (참여자2)

멤버십이 그래서 하나의 자립 준비 청년들의 당사자 조직 이 친구들이 이제 외부에서 뭐라 그럴까 푸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연대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지만 나중에는 당사자들 중심 주도적으로 조금 운영이 되는 조직. (참여자4)

이를 위해 사업 담당자는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청년의 요구와 욕구를 민감하게 보며 반응했다. 담당자의 이런 진심 어린 태도는 청년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고, 담당자의 배려 속에서 청년들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담당자분들이 진짜 이 일에 진심이시고 저희를 대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그냥 정말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다른 사업에 참여해보면은 그냥 뭔가 돈을 지원을 해주니까 너네가 이만큼 해야 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느낄 수 있을 만하게 약간 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참여자3)

((사)함께만드는세상 직원은) 누구든 다 소통을 하니까 너무 진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 늘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그런 이미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편안하게 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런 두 분들이 저희는 되게 가족 같다고 느껴졌고요. (참여자6)

지속적으로 저를 기억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시고, 어떤 지원 같은 게 있을 때도 또 제가 그거 받고 또 연대은행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받았어요. 보통 근데 한 명이 그걸 수혜를 받으면 이제 형평성의 문제로 ‘너는 해봤잖아. 너는 탈락’ 이렇게 시키는데 여기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인연을 맺은 거를 되게 소중히 여긴다고 해야 되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해볼래?’ 이렇게 제의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한 3년 지난 것 같거든요. 그 혜택 받은 지 근데 또 계속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참여자1)

(4) 청년이 함께 섬

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만남

청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다른 자립준비청년을 만나거나 소통한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 사업에서는 의도적으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함께 밥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었다.

저는 뭐 같이 이게 활동 지원금이 나와 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여기 참여하는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랬던 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요. (참여자3)

이들은 처음 만나더라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황에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은 너무 밀착되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 모임 참여나 관계 맺는 정도는 청년들의 선택을 존중하였고, 이를 통해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느슨한 연대’가 형성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런 거를 다 어쨌든 어느 정도는 알고 이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가끔씩. 근데 가족 얘기들을 가끔씩 하게 될 때는 그냥 그런 걸 약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냥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중략)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이해하니까 그게 뭔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참여자3)

처음부터 거리감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들 이런 모임 말고 다른 일반 모임 갔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자 마음이 가까이 가잖아요. 이제 좀 내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그럴 때 이제 마음이 가는데 이제 우리 모임에서는 일단 마음이 먼저 가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참여자14)

저는 그냥 유대감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좀 더 마음이 마음의 거리가 많이 좁혀진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좁히기까지가 참 쉽지가 않은데 공통점들이 있고 그리고 사는 환경이 비슷하고 하다 보면은 고향이 같으면은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16)

이들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서로 도우려 했으며,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청년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편안함을 느꼈다.

제가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도 느끼고 한다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저도 다양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점점 해결을 어느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한 것 같아. (참여자3)

내가 같이 살았던 과거에 같이 이렇게 그래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좀 좋았어요. 다른 사업이랑 좀 비교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참여자 15)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사자들끼리의 멤버십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적 지지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자4)

② 더 넓은 관계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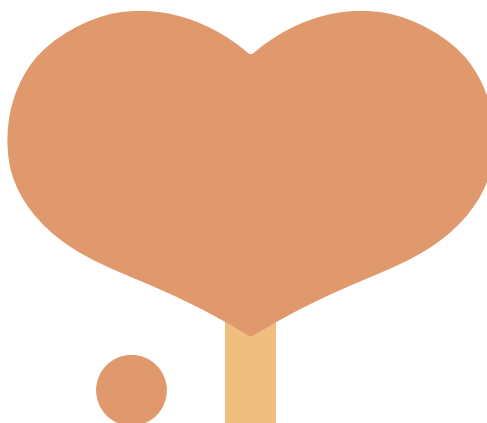
청년들은 자신의 지역이나 생활세계에서 더 넓게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기도 했다. 이들은 이 사업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간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저희 지역에 이런 당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나 어떤 모임이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속성을 발휘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당사자 단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거를 나서지 않아서 그냥 ○○랑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하자. 우리가 당사자 모임 만들어서 하자.’ (참여자4)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과 요약
2. 함의와 제언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WE CARE_DREAM 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함께만드는 세상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제언하려는 목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현행 정책과 서비스를 조사하였으며, WE CARE_DREAM 사업 1기부터 3기까지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적연구 결과

조사 참여자의 84.1%가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는데 이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63.1%에 그치고 있었다. 한편 현재 취업 중인 경우가 36.3%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 중>재학 중> 아르바이트 중>진학 준비 중의 순이었으며, 하는 일이 없다고 한 경우는 1명(1.3%)였다.

조사 참여자가 보호종료 당시 받은 지원금은 평균 704만 원이었고, 그 중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도 12.1%(8명)이었다. 사회보장급여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도 18.3%였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58.6%), 만기퇴소한 경우(50.5%), 보호종료 후 기간이 오래된 경우(50.0%)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않고 있었다.

현재 근로 중인 조사 참여자 중 정규직 임금근로자(25.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28.4%)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최근 3개월간 평균약 소득은 월 평균

1,685천원(최소 0원~최대 600만원)이며 2022년 기준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월 평균 소득액 2,286천원(청년일보, 2024. 9. 26.)¹¹⁾의 73.7%에 그쳤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6.1%(4명)이었다. 소득의 주요 지출 항목은 식비·생활 품비(38.4%), 주거비(28.3%), 교육비(15.1%)의 순이었다. 총 저축액은 평균 1,630만원으로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의 결과 902.9만원에 비해 약 1.8배 더 많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WE CARE_DREAM 사업의 저축보험 가입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재 취업 중인 참여자는 36.3%였고, 취업을 준비 중인 참여자 중 67.7%는 직업훈련 등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현재 자립 준비청년을 위한 학비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 1년간 사회적 박탈을 경험한 조사 참여자는 49.3%(33명)이었다. 최종보호유형 중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보호를 받았던 청년, 만기퇴소한 청년, 보호 종료 후 5년 초과~10년 이하인 경우 사회적 박탈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조사 참여자의 주거지는 대부분 LH·SH를 포함한 본인 명의로 구한 집(89.6%)이었으나 나머지 11.4%는 시설, 기숙사, 친구나 지인의 집 또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등 주거 불안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또한 주거 구조·성능 및 환경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경우도 20%에 불과했다. 월 평균 주거비용은 28만 원으로 2022년 아동통합패널 결과인 14.4만 원(월세 평균)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59.7%가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58.2%가 평소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정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는 참여자는 35.4%(17명)이었는데 대체로 만성적인 증상을 갖고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질병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6.40(총 10점)이었고, 자신의 미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6.04(10점 만점)이었고 이는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 조사 결과에 비해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울 및 불안 정도가 평균 10.19(총 27점)로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 조사 결과보다 우울 및 불안 정도가 다소 높았다.

11) 2022년 기준, 수도권으로 이동한 19세~34세 이하 청년 연간 총소득은 2,743만 원,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은 2,034만 원인 것으로 조사됨(<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66059>)

조사 참여자는 원가족(38.8%), 시설 선생님 및 위탁부모(28.5%)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연락을 하는 경우 일상적인 안부 전달이 주를 이루어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의논할 성인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립 후 어려움을 주로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11.66(총 18점)이었고 여자 청년, 중도퇴소한 청년, 보호종료 후 10년이 지난 청년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더 낮았다.

조사 참여자가 자립 후 겪는 어려움은 생활비·학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부족(26.1%)이었고, 취업정보·기술·자격 부족>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지역자원 정보부족>아프거나 긴급할 때 도움 청할 곳 부족>인간관계 어려움>돈 관리 어려움>음식 만들기·빨래·장보기 등 일상생활 어려움>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의논하는 상대는 시설이나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지인(13.9%)이 가장 많았지만, 의논 상대 없이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40.8%나 되어 자립준비청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절대 부족함을 보여 주었다. 자립 후 이용했던 자립지원서비스는 주로 디딤씨앗통장(77.6%), 자립정착금(74.6%), 자립수당(71.6%), 국민기초생활보장(70.1%) 등이었다. 이처럼 조사 참여자들은 직접적인 경제지원과 같은 가시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사례관리, 멘토링, 심리상담 등의 비가시적 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참여자는 WE CARE_DREAM 사업 전반에 대해 86.6%가 만족하였고,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저축보험료는 적절하다고 하였고, 저축보험금은 주거비, 교육비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보험 외 프로그램 중 멤버십 온라인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다른 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20~27% 수준이었다. 그 중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는 멤버십기금조성 및 지원이었고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멤버십 온라인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사업 지원 및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수행의 전문성·일관성·지속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2) 질적연구 결과

질적연구의 결과는 시간 흐름에 따라 ‘사업 참여 전’과 ‘사업 참여 과정’, ‘사업 성과와 성과의 맥락’의 세 가지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사업 참여 전의 상황은 자립하기 전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경험과, 자립준비 경험, 자립 직후의 삶으로 구성된다. 자립하기 전 보호대상아동으로서의 삶은 ‘탈출을 꿈꾸며 막연하게 그려보는 자립’으로 의미화된다. 이들이 탈출을 꿈꾸는 이유는 시설에서의 복잡한 집단생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은 다수의 낯선 이들과 생활해야 하며, 집단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규칙도 매우 엄격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규칙이 빽센 학교’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엄격한 규칙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욕구나 요구가 제한된 채 살아왔다. 그리고 시설 안에서는 종사자와 선배로부터의 폭력이 흔한 일이었다. 폭력이 반복되었지만 어른들은 방관했고 아동들 역시 폭력의 문화에 익숙하게 길들여졌다. 원가족이 그리웠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고 시설에 입소하면서 그나마 맺었던 관계마저 끊어지거나 소원해졌다. 가정에서도 시설에서도 안정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시설 밖의 학교나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이중적인 잣대에 휘둘리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자립준비는 복불복, 케바케’이었다. 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자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낸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시설에서 살 때부터 종사자와 함께 차근차근 자립준비를 해서 독립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시설의 분위기나 어떤 종사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사전에 ‘자립’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청년이 많았고 심지어 자신이 ‘보호대상아동’이고 ‘가정외보호’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불복, 케바케’인 상황에 따라 정보가 부족한 청년은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때도 있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기간 중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고 그 내용 중 자립 후 받을 혜택에 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시설에서 이루어진 자립 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자립에 대한 기술은 자립 후 현실에서 ‘부닥치면서’ 배웠다고 했다. 자립준비의 필요성

을 미리 인식한 청년들은 시설에 있을 때 선생님들의 생활모습을 보면서 ‘어깨 너머로’ 자립생활을 익혔으며, 자립생활을 익히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먼저 자립한 선배의 경험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자립 후 갑자기 얻은 자유에 대한 기쁨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긴 데는 자립 후에는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게 작용했으며, 힘들어도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상황에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물어볼 곳조차 없었다. 이러한 감정이 깊어지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우울증은 자립 직후보다 2~3년이 지난 시점에 더 크게 나타났고, 어떤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여 소속이 없어지면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의 주거 환경은 매우 ‘불안정’했다. 퇴소 후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어렵게 집을 구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높은 월세로 이들은 거의 매해 이사를 해야 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언급한 자립 생활의 어려움은 바로 ‘돈 없는 서러움’이었다. 생활비가 부족해 먹을 것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경우도 많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돈을 벌어야 했다.

둘째, 청년들이 (사)함께만드는세상의 WE CARE_DREAM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은 ‘끊임없는 탐색과 도전’, ‘긴 호흡으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은 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정보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이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쉬운 접근이다. 이들은 이 사업 외에도 그동안 자립과 관련한 지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신청하기를 반복해왔다.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부분 공공이나 민간사업에 신청과 선정 경험이 많았고, 사업 지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었다. 사업 선정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잘 수행하는 대학 학력 이상의 청년에게 매우 유리해서 이런 청년에게 지원이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결국 후원도 ‘부익부 빈익빈’이었다.

사업에 선정된 후 청년들이 가장 처음 안내받고 참여한 것은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일이었다. 본 사업은 기수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용했는데, 저축보험은 모든 기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었다. 저축보험 외 프로그램으로는 제1기에 진행한 ‘나의 비전 나의 꿈 알아가

기'라는 영상제작 프로그램이 있었고, 제2기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제3기는 자립준비청년의 상조회와 같은 '멤버십'에 가입하여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였다.

셋째, 사업 성과와 성과의 맥락은 '나를 챙기고 보살핌', '나를 찾음', '타인을 통한 배움과 나눔', '청년이 함께 걸음'의 네 가지 성과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들은 본 사업을 통해 목돈 마련을 하고 의료보장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축습관을 기르고 경제 계획도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경제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통해 자기 몸을 챙기고 내실화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자기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했다. 청년들은 그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이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몰랐는데 본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자기를 알고 성찰하는 것은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이 안정감은 물론 경제적 변화나 지지체계가 생긴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삶에 대한 더 큰 동기와 열정이 생겼다고 했다. 이러한 성장은 타인을 통한 배움과 나눔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특히,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청년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길 원했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움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책임감과 성실함, 주도성을 배웠다고 했는데, 이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이기도 하고,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된 변화이기도 하다. 청년들은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며 거리감 없이 만날 수 있었고 이 관계는 다른 청년이나 이웃까지 더 넓은 관계로 확장되어 갔다.

2. 합의와 제언

연구 결과로 토대로 합의를 찾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청년의 자립을 위해 장기 저축이 중요한 마일스톤(milestone)이 되었다는 것이다. 2024년 현재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만 8천원이지만, 본 사업 참여자의 월 소득은 급여와 사회보장급여, 민간의 지원금 등을 모두 합쳐도 평균 160만원 수준으로 1인 가구 평균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들은 보증금이 낮은 대신 월 임대료나 관리비가 높은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가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더 적은 상황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생활비와 주거비에 지출하고 있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도 주거비 마련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청년세대는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것이 필수지만 생활에 쫓기다보면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이들의 경제적 안정은 아직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상황은 조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WE CARE_DREAM 사업 참여 청년의 총 현금자산은 평균 1,600만원 선으로 900만원 정도를 보유한 타 자립준비청년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WE CARE_DREAM 저축보험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돈을 쓰는 사업이 아니라 모으는 사업’인 WE CARE_DREAM 사업은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특별하다. 어려운 가운데 적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저축을 시작한 이들은 자기를 위한 장기 플랜의 첫발을 이미 내딛은 셈이다.

둘째, WE CARE_DREAM 사업은 돈뿐만 아니라 사람도 모으는 사업이었다. WE CARE_DREAM 사업에서는 저축보험과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의 기저에는 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자립준비청년은 살아온 배경과 현재 상황이 유사하므로 처음 본 사이에서도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식적 관계는 사적인 관계로도 변모해갔다. 이들은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꺼이 자신이 지닌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WE CARE_DREAM 사업 내부뿐 아니라 외부로도 확장되

었다. 청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만나 도움을 주기 원했고, 활동을 마친 후에도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준비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통하면서 삶의 반경을 확장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향후에도 WE CARE_DREAM은 사람을 모으는 노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시작한 멤버십 활동은 매우 적절한 시도로 여겨진다. 자립을 위해 먼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한 후에는 그들이 지역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으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적자본의 힘이다.

셋째, WE CARE_DREAM 사업은 회기를 거듭하면서 청년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왔고, 여기에는 시행기관과 후원기관의 끝없는 관심과 노력이 존재했다. WE CARE_DREAM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들은 저축보험의 납입 기간인 3년간 지속되는데 한 청년에 대한 사업을 3년간 지속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청년의 욕구를 시시각각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놀랍다. 1기부터 3기까지 진행된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해마다 그 초점과 의미가 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저축보험, 의료보장, 긴급 지원은 ‘나를 챙기고 보살피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꿈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나를 돌아보고 더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며,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살피고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 사이사이, 혹은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는 간담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의 시간들은 ‘타인과 함께 일어서고, 함께 나아가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청년의 성장과 변화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기획, 투입되었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은 담당자들의 섬세한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함께만드는세상과 한화생명은 사업의 중심에 늘 청년을 두고 청년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보고자 노력하였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변화가 실무자의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넷째, WE CARE_DREAM은 청년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며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갔다. 1기의 경우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청년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기에는 위탁가정 보호종료 청년과 청

소년쉼터 퇴소 청년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아동복지법상 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된 청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지원법이나 소년법상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모두 20대 초반의 청년 초기에만 집중되고 있어 모든 지원이 끊긴 채 실질적 자립을 실행하게 되는 대학 졸업 이후 후기 청년들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WE CARE_DREAM 사업에서는 멤버십 활동을 통해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초기에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지역 범위도 전국 단위로 확장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언제, 어디에 있던지 누수 없이 지원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민간 기관이 가진 최대의 강점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기관은 늘 현장과 당사자 가까이에 있으면서 공공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을 선도해 왔고, (사)함께만드는세상의 발자취를 보더라도 언제나 세상에 없는 일은 발굴하고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WE CARE_DREAM 사업에 참여 중인 자립준비청년들의 기초선은 다른 청년보다 낮고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수준과 비교해도 취약한 편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보호기간 중 매우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고, 자립 준비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나온 경우가 많았다. 보호 종료 시 수령한 지원금, 현재 소득, 주거 환경과 비용, 사회적 관계망 등을 양적으로 살펴봐도 다른 자립준비청년보다 더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신의 미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고, 삶에 대한 높은 동기와 열정도 인터뷰 결과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경제적 회복과 지지체계의 구축이 결합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저축보험 유지와 오프라인 활동 참여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보험료를 지속해서 지원받으려면 제시된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다양한 활동의 참여 경험은 어려운 가운데도 보험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섯째, WE CARE_DREAM 사업은 당사자 중심의 사업이었기에 당사자의 큰 호응과 지속력을 이끌 수 있었다. 이 사업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해가 갈수록 당사자가 주도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자립’은 말 그대로 ‘스스로 서는 것’이지

만, 지금까지의 자립 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자립프로그램 안에서조차 ‘자립’을 경험하지 못한 채, 바깥에서 ‘자립’하라는 것은 모순된 말이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WE CARE_DREAM의 장점을 자율성과 주도성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의 초점이 온전히 당사자 중심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당사자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의 변화, 즉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당사자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믿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자세’로부터 비롯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강점관점’이라고 하며, 강점관점은 당사자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근본적 원리가 될 수 있다.

일곱째, WE CARE_DREAM 사업은 자발성뿐 아니라 책임감도 강조하는 사업이다. WE CARE_DREAM 저축보험은 3년간 납입을 완료해야 보험금을 찾을 수 있으며, 청년들은 이러한 경험이 매우 새로웠다. 보통의 사업들은 ‘주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이 사업은 청년들도 일정 부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기여해야 했으며, 이것은 의외의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청년들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서 인내심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 3년간 만족을 지연시킨 채 매월 의무를 다하는 경험은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으며, 이를 완수한 것은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다. 청년들은 이 경험을 적용해 인생의 다음 스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여덟째, 청년들은 WE CARE_DREAM 사업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성장은 이들이 ‘도움받는 자에서 도움주는 자’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한 법이다. 그것은 시간과 경제적 여유일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다. 늘 앞만 바라보고 쫓기듯이 살아온 청년들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비로소 자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립의 시작’이고 ‘다른 사람을 돕게 된 것’이 자립의 완성일 수 있다. 즉, 자립은 ‘홀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WE CARE_DREAM 사업은 이러한 성과와 의미가 있음에도 몇 가지 개선할 점도 있다. 첫째, WE CARE_DREAM 사업 참여 전후의 브릿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함께만드는세상에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청년기를 지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WE CARE_DREAM 사업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청년들이 발판을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때 (사)함께만드는세상에 이미 있는 사업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은 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채투자하고 관리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이 있었다. 사업 참여가 끝나더라도 청년들이 어떻게 성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을 활용해 한화생명이 지닌 자산관리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고안해 볼 필요도 있다.

둘째, 사업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청년들은 WE CARE_DREAM 사업을 ‘자립준비의 끝판왕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를 후원하는 한화생명을 ‘국뽕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에게는 이러한 성과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에는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변화 사례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을 완수해가는 과정이었다면, 제1기 사업이 종료되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현재부터는 청년들의 성과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성과는 사업과 기업 홍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자립준비청년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사후관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WE CARE_DREAM 사업의 핵심 성과는 저축보험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만든 것과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된 것이다. 저축보험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욕구를 해결하는 사업이지만, 3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든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근 청년 자립지원의 범위와 수준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이 지원은 대부분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현장에서는 물질적 지원보다 인적자본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본 확대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단지 사람을 연결했다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이 지속해서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매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맘스케어 저축보험은 이런 만남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저축보험과 네트워크 구축하고 확대하는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작된 멤버십 활동은 청년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선도할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WE CARE_DREAM 사업은 장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타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었다.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 이는 후원기업인 한화생명의 비전과도 일치하는 일이므로, 더 중점을 두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WE CARE_DREAM 사업은 자립준비청년과 (사)함께만드는세상, 한화생명의 강점을 결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대한 개선 의지와 자생력에 초점을 두고, (사)함께만드는세상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활용했으며, 국내 최초, 최대 보험사인 한화생명의 자산 관리 전문성을 접목하였다.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된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이 사업을 자립준비청년 뿐 아니라 돌봄 청년이나 금융위기 청년, 은둔·고립 청년 등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에서 드러난 (사)함께만드는세상과 한화생명의 파트너십 및 혁신적 실천은 다른 기관이나 분야에도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영(2009). 질적사례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 권지성·정선옥(2009).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 (3), 229-253.
- 김경민·정익중(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 93-119.
- 김진숙·정선옥·최경옥(2020).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의 원가족복귀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24-3), 381-407.
- 김희진(2020).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유엔 국제연구를 중심으로-. 2020 국제심포지움 발표자료집.
- 노혜련·김미원·조소연(2021). 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 사회연대은행(2024).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20주년 기념 백서.
- 사회연대은행 무지개가게 사람들(2008). 무지개 가게. 깔리온.
- 신혜령·박은미·강현아·이현주·한규제·김경희(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2023).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VIII: 자립준비청년.
- 조소연·노혜련(2018). 공동생활가정 아동-친가족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 사례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4), 65-106.
- 정선옥(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4:145-168.
- 정원철·이화영(2014).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시설 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1(3), 243-265.
- 심채연·정준호(2024).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 48-63.

한화생명(2024).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Davis, I. P., Landsverk, J., Newton, R., & Ganger, W. (1996). Parental visiting and foster care reunific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4/5), 363-382.

Leathers, S. J. (2002). Parental visiting and family reunification: How inclusive practice makes a difference. *Child Welfare*, 81(4), 595-616.

Petr, G. (2004). *Social work with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ragmatic foundation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Stake, R.(2000). *질적 사례연구*. 홍용희·노경주·심종희 역. 서울: 창지사.

Thoburn, J.(1994). *Child plac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Ashgate Publishing.

Yin, K.(2005). *사례연구방법*. 신경식·서아영 역. 서울: 한경사.

부록(설문지)

A. 기초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성
- ② 여성

2. 귀하의 생년월일은 언제인가요? ※ 숫자로만 기입

_____년 _____월 _____일

3. 귀하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중복 응답)

- ① 대학 재학 중(휴학 중 포함)
- ② 진학 준비 중
- ③ 근로 중(아르바이트 제외)
- ⑤ 아르바이트 중
- ④ 취업 준비 중
- ⑥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냄
- ⑦ 기타 _____

4. 귀하의 학력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초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5번으로 이동
- ② 중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5번으로 이동
- ③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5번으로 이동
- ④ 대학교 재학중(휴학 중 포함) ➡4-1번으로 이동
- ⑤ 대학교 졸업 ➡4-2번으로 이동
- ⑥ 대학원 재학중(휴학 중 포함) ➡4-1번으로 이동
- ⑦ 대학원 졸업 ➡4-2번으로 이동
- ⑧ 기타 _____ ➡5번으로 이동

4-1. 귀하는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나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중복 응답)

- ① 국가 지원(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활용 포함)
- ② 민간단체 지원
- ③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 ④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⑤ 학교 장학금
- ⑥ 근로 소득(취업이나 아르바이트)
- ⑦ 금융기관이나 타인을 통한 대출
- ⑧ 부모/형제자매/조부모/친인척 지원
- ⑨ 기타_____

5. 귀하가 보호기간 중(보호종료 전까지) 살았던 곳(보호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중복 응답)

- ① 아동양육시설(보육원)
- ②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③ 대리위탁가정(조부모가 양육)
- ④ 친인척위탁가정(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양육)
- ⑤ 일반위탁가정(혈연이 아닌 위탁부모가 양육)
- ⑥ 청소년쉼터
- ⑦ 보호치료시설
- ⑧ 기타_____

6. 귀하가 자립하기 전 마지막 살았던 곳(보호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① 아동양육시설(보육원)
- ②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③ 대리위탁가정(조부모가 양육)
- ④ 친인척위탁가정(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양육)
- ⑤ 일반위탁가정(혈연이 아닌 위탁부모가 양육)
- ⑥ 청소년쉼터
- ⑦ 보호치료시설
- ⑧ 기타_____

7. 귀하가 자립하여 살기 시작한(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 숫자로만 기입

_____년

8. 귀하가 보호 종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만기퇴소(18세가 되었거나 고등학교 졸업)
- ② 연장보호 후 보호종료(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재학, 취업 훈련 등으로 연장 보호 후 퇴소)
- ③ 중도퇴소(①, ②가 아닌 경우) ➡ 8-1번으로 이동
- ④ 기타_____

8-1. [중도퇴소의 경우] 귀하가 시설에서 중도퇴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어서
- ② 친척과 함께 살게 되어서
- ③ 취업이나 군입대
- ④ 다른 아동이나 양육자와의 갈등 때문에
- ⑤ 혼자 살게 되어서
- ⑥ 친구와 함께 살게 되어서
- ⑦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되어서(청소년쉼터 등)
- ⑧ 기타_____

B. 경제적 상황

9. 귀하의 현재 고용 형태는 어떠한가요?

※ 정규직: 고용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무기한 고용계약인 경우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1년, 2년 혹은 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임시, 일용직 포함)

- ① 임금 근로자(정규직)
- ② 임금 근로자(비정규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 ③ 자영업자(창업 등)
- ④ 일하지 않음
- ⑤ 기타_____

10. 귀하가 현재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중복 응답) ※ 과거에는 받았지만 현재 받지 않는다면 체크하지 말 것.

- ① 없음
- ② 생계급여
- ③ 의료급여
- ④ 주거급여
- ⑤ 교육급여
- ⑥ 위기지원금
- ⑦ 자립수당
- ⑧ 기타 _____

11. 귀하는 보호 종료 당시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CDA), 후원금 등으로 총 얼마를 받았나요?

- ※ 숫자로만 기입, 없는 경우, '0'으로 기입
- ※ 자립정착금: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디딤씨앗통장(CDA): 시설 입소 중이거나 가정위탁보호 중 본인(또는 후원자)과 정부가 일정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함
후원금: 자립정착금이나 디딤씨앗통장 외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

약 _____ 만 원

12. 지난 3개월간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인가요?

- ※ 소득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정부보조금(기초생활보장급여, 자립수당 등), 민간보조(가족의 지원, 후원금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의미
- ※ 숫자로만 기입, 없는 경우, '0'으로 기입

약 _____ 만 원

13. 월 소득은 주로 어디에 지출하나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2개를 선택해 주세요. (중복 응답)

- ① 주거비(월세 등)
- ② 교육비(등록금, 학원비,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등 포함)
- ③ 의료비
- ④ 식비 및 생필품 구입
- ⑤ 의복 구입 및 미용관련 지출
- ⑥ 여가 문화비
- ⑦ 기타 _____

14. 귀하는 현재(오늘을 기준으로) 재산(전·월세 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등에 적립한 금액 모두 포함)이 얼마 정도 있나요?

※ 숫자로만 기입, 없는 경우, '0'으로 기입

※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 포함

약 _____ 만 원

15. 귀하가 지난 1년 간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모두 답해주세요. (중복 응답)

- ① 2개월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② 공과금(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한 적이 있다.
- ③ 건강보험 미납으로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적이 있다.
- ④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사지 못한 적이 있다.
- ⑤ 교육비(학비, 학원 수강료 등)를 내지 못한 적이 있다.
- ⑥ 냉방이나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⑦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⑧ 카드비가 연체되어 정지된 적이 있다.
- ⑨ 은행이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 ⑩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다.
- ⑪ 해당 없음

16. 귀하가 취업을 하려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① 취업 정보 부족
- ② 적성을 잘 모르겠음
- ③ 직종 관련 경험 부족
- ④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⑤ 보수가 안 맞아서
- ⑥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 ⑦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 ⑧ 기타 _____

17. 귀하가 현재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직업 훈련(기술 습득이나 자격증 취득)
- ② 어학 공부
- ③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 관련 경험 쌓기
- ④ 구직정보 찾기
- ⑤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음
- ⑥ 기타 _____

C. 주거 상황

18.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곳)은 누구의 집인가요?

- ① 시설(양육시설, 그룹홈, 자립생활관 등)
- ② (회사나 학교 등) 기숙사
- ③ 본인 명의로 구한 집
- ④ 부모님의 집
- ⑤ 친척의 집
- ⑥ 친구 또는 지인의 집
- ⑦ 주거가 일정하지 않음
- ⑧ 기타 _____

19. 현재 매월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숫자로만 기입, 없는 경우, '0'으로 기입

※ 친구·친척·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자신이 부담하는 월세나 관리비 기입

매월 약 _____ 만 원

20. 현재 주거비용 지출은 어느 정도 부담되나요?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②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
- ③ 약간 부담이 된다
- ④ 매우 부담이 된다

21.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만족한다

22.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은 어떠한가요? 모두 답해주세요.
(중복 응답)

- ①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관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 ③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에 노출되지 않아 생활하기 적절하다
- ④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 ⑥ 해당 없음
- ⑦ 기타 _____

D. 건강 및 일상생활

23.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 ① 전혀 건강하지 않다
-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건강한 편이다
- ⑤ 매우 건강하지 않다

24. 귀하는 진단받은 장애나 질병이 있나요?

- ① 예 ➡ 24-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25번으로 이동

24-1. 진단받은 장애명이나 질병명을 적어주세요. (중복 응답가능)

<장애명 예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25. 귀하는 평상시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나요?

- ① 거의 먹지 않는다
- ② 주 2-3회 정도는 먹는다
- ③ 항상 먹는다
- ④ 그때그때 다르다

26. 귀하는 평상시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하나요?

- ① 거의 먹지 않는다
- ② 주 2-3회 정도는 먹는다
- ③ 항상 먹는다
- ④ 그때그때 다르다

27. 귀하는 평상시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나요?

- ① 거의 먹지 않는다
- ② 주 2-3회 정도는 먹는다
- ③ 항상 먹는다
- ④ 그때그때 다르다

E. 심리정서적 상황

28. 귀하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최악의 상태다가 0’, ‘최고의 상태다가 10’일 때 자신에게 해당하는 점수를 기입해 주세요. ※ 0부터 10까지 숫자로만 기입

_____ 점

29. 귀하의 미래는 얼마나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가 0’, ‘매우 안정적이다가 10’일 때 자신에게 해당하는 점수를 기입해 주세요.

※ 0부터 10까지 숫자로만 기입

_____ 점

[30-1~30-9] 다음의 각 항목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30-1.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30-2.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30-3.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30-4. 나는 수줍거나 소심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30-5.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30-6. 나는 자주 뻘로통해진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30-7. 나는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30-8.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30-9. 나는 위축되어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F. 사회적 관계

31. 귀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나요? 본인을 포함하여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써주세요. ※ 숫자로만 기입 (혼자 사는 경우 '1', 둘이 살 때 '2')

총 _____ 명

32-1~32-6] 다음의 각 항목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32-1. 내 주위에는 직접 나를 도와 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있는 편이다
- ④ 매우 많다

32-2. 내 주위에는 꼭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큰 돈이라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있는 편이다
- ④ 매우 많다

32-3. 내 주위에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있는 편이다
- ④ 매우 많다

32-4. 내 주위에는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있는 편이다
- ④ 매우 많다

32-5. 내 주위에는 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있는 편이다
- ④ 매우 많다

32-6. 내 주위에는 내가 기분이 언짢았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있는 편이다.
- ④ 매우 많다.

33-1. 원가족(조부모, 친인척 포함)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 ① 전혀 만나지 않는다.
- ② 1년에 한번 정도 만난다.
- ③ 6개월에 한번 정도 만난다.
- ④ 3개월에 한번 정도 만난다.
- ⑤ 1개월에 한번 이상 만난다.

33-2. 원가족(조부모, 친인척 포함)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지내나요? _

- ①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34-1번으로 이동
- ②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한다. ➡33-3번으로 이동
- ③ 6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33-3번으로 이동
- ④ 3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33-3번으로 이동
- ⑤ 1개월에 한번 이상 연락한다. ➡33-3번으로 이동

33-3. 원가족(조부모, 친인척 포함)과는 주로 어떤 이유로 연락하나요?

- ① 일상적인 안부 전달
- ②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고민 상담
- ③ 정보 공유
- ④ 현금, 현물 지원
- ⑤ 기타()

34-1. 시설의 선생님이나 위탁부모(조부모, 친인척 제외)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나요?

- ①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35번으로 이동
- ②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한다. ➡34-2번으로 이동
- ③ 6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34-2번으로 이동
- ④ 3개월에 한번 정도 연락한다. ➡34-2번으로 이동
- ⑤ 1개월에 한번 이상 연락한다. ➡34-2번으로 이동

34-2. 시설의 선생님이나 위탁부모(조부모, 친인척 제외)와는 주로 어떤 이유로 연락하나요?

- ① 일상적인 안부 전달
- ②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고민 상담
- ③ 정보 공유
- ④ 현금, 현물 지원
- ⑤ 기타 _____

G. 자립지원 상황

[35-1~35-3] 귀하가 자립 후(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써주세요.

※ ⑪ 기타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세요.

35-1. 1순위 _____ ()

35-2. 2순위 _____ ()

35-3. 3순위 _____ ()

[보기]

- ①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
- ② 인간관계의 어려움
- ③ 거주할 집 문제
- ④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 문제
- ⑤ 지역 자원과 정보 부족
- ⑥ 아프거나 긴급사고 시 도움을 청할 곳 부족
- ⑦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름
- ⑧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 ⑨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 부족
- ⑩ 외로움이나 심리적 부담
- ⑪ 기타 _____

[36-1~36-3] 귀하는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주로 누구와 상담하고 해결합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써주세요

※ ⑨기타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세요.

36-1. 1순위 _____ ()

36-2. 2순위 _____ ()

36-3. 3순위 _____ ()

[보기]

- ① 도움 받을 사람이 없어 혼자 해결
- ② 원가족(부모님, 친형제 혹은 친자매, 조부모, 친인척 등)
- ③ 시설 또는 시설퇴소 자조모임 등의 친구나 선후배
- ④ 사회(학교)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
- ⑤ 이성친구나 배우자
- ⑥ 현재 거주하는 기숙사, 자립생활관 등의 선생님
- ⑦ 과거 거주했던 시설의 선생님
- ⑧ 위탁부모(조부모, 친인척 제외) 또는 후원자
- ⑨ 기타 _____

37. 다음 중 자립 후(보호종료 이후) 이용한 서비스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중복 응답)

※ 한번이라도 이용했으면 모두 체크해주세요.

※ (사)함께만드는세상의 'WE CARE_DREAM 사업' 내 서비스는 제외하고 답해 주세요.

- ① 자립수당
- ② 자립정착금
- ③ 디딤씨앗통장(CDA)
- ④ 청년자산형성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 ⑥ 긴급 지원금(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한시적 지원)
- ⑦ 등록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국가장학금, 민간장학금, 교내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 ⑧ 임대주택 및 주거지원(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공동주택 등)
- ⑨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등)
- ⑩ 진로탐색 및 상담
- ⑪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창업 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 ⑫ 멘토링 프로그램(바람개비 서포터즈, 자립선배와의 만남, 자립 선배와 멘토-멘티 등)
- ⑬ 사례관리(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 ⑭ 심리상담(심리상담센터 연계, 심리치료 비용 지원 등)
- ⑮ 문화 지원(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바우처 등)
- ⑯ 법률 지원(무료소송, 법률 상담 또는 상담비용 지원)
- ⑰ 각종 교육
- ⑱ 정보 제공
- ⑲ 기타_____

H. '맘스케어 DREAM 사업' 에 관한 의견

38. 귀하가 'WE CARE_DREAM 사업'에 참여한 시기(기수)는 언제인가요?

- ① 1기(2021년~2024년)
- ② 2기(2023년~2026년)
- ③ 3기(2024년~2027년)

39. 'WE CARE_DREAM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만족한다

39-1. 39번에서 그렇게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40.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의 보험료(8만 원)은 적절했나요?

-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다
- ⑤ 매우 적절하다
- ⑥ 기타 : 타사업 참여자

40-1. 40번에서 그렇게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1. 귀하는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의 보험금(1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또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 ① 주거비(보증금, 월세 등)
- ② 교육비(등록금, 학원비,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등 포함)
- ③ 의료비
- ④ 식비 및 생필품 구입
- ⑤ 의복 구입 및 미용관련 지출
- ⑥ 여가 문화비
- ⑦ 기타 _____

42. 다음 중 귀하가 'WE CARE_DREAM 사업'에서 저축보험 가입 외에 이용한 서비스를 모두 체크해주세요. (중복 응답)

※ 한번이라도 이용했으면 모두 선택

- ① 1기, 2기, 3기) 비전 특강(자기발견 워크숍 - 버킷리스트)
- ② 1기) 나의 꿈 이야기(나의 비전 스토리, 꿈/비전 촬영, 꿈 영상 제작)
- ③ 2기) DREAM-LOG 봉사활동
- ④ 2기) DREAM-LOG 네트워크 활동(소그룹 활동)
- ⑤ 3기) 멤버십기금 조성 및 지원(생일, 명절, 취업 등 상조금 지원)
- ⑥ 3기) 멤버십 커뮤니티 활동(문화 활동, 소풍, 송년회 등)
- ⑦ 3기) 멤버십 온라인 월별 활동(네이버 카페)
- ⑧ 1기, 2기) 격려지원(연간 보험료 납입 완료 시 리워드 지원)

43. 다음 중 귀하가 'WE CARE_DREAM 사업'에서 저축보험 가입 외에 이용한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1기, 2기, 3기) 비전 특강(자기발견 워크숍 - 버킷리스트)
- ② 1기) 나의 꿈 이야기(나의 비전 스토리, 꿈/비전 촬영, 꿈 영상 제작)
- ③ 2기) DREAM-LOG 봉사활동
- ④ 2기) DREAM-LOG 네트워크 활동(소그룹 활동)
- ⑤ 3기) 멤버십기금 조성 및 지원(생일, 명절, 취업 등 상조금 지원)
- ⑥ 3기) 멤버십 커뮤니티 활동(문화 활동, 소풍, 송년회 등)
- ⑦ 3기) 멤버십 온라인 월별 활동(네이버 카페)
- ⑧ 1기, 2기) 격려지원(연간 보험료 납입 완료 시 리워드 지원)

43-1. 43번에서 그렇게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4. 다음 중 귀하가 'WE CARE_DREAM 사업'에서 저축보험 가입 외에 이용한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 ① 1기, 2기, 3기) 비전 특강(자기발견 워크숍 - 버킷리스트)
- ② 1기) 나의 꿈 이야기(나의 비전 스토리, 꿈/비전 촬영, 꿈 영상 제작)
- ③ 2기) DREAM-LOG 봉사활동
- ④ 2기) DREAM-LOG 네트워크 활동(소그룹 활동)
- ⑤ 3기) 멤버십기금 조성 및 지원(생일, 명절, 취업 등 상조금 지원)
- ⑥ 3기) 멤버십 커뮤니티 활동(문화 활동, 소풍, 송년회 등)
- ⑦ 3기) 멤버십 온라인 월별 활동(네이버 카페)
- ⑧ 1기, 2기) 격려지원(연간 보험료 납입 완료 시 리워드 지원)

44-1. 44번에서 그렇게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5. 사업 참여 전 한화생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 ① 전혀 몰랐다
- ② 거의 모르는 편이었다
- ③ 알고 있는 편이었다
- ④ 매우 잘 알고 있었다

46. 사업 참여 후 한화생명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했나요?

- ①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
- ② 조금 부정적으로 변했다
- ③ 거의 변하지 않았다
- ④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다
- ⑤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

46-1. 46번에서 그렇게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7. 사업 참여 후 함께만드는세상((사)함께만드는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했나요?

- ①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
- ② 조금 부정적으로 변했다
- ③ 거의 변하지 않았다
- ④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다
- ⑤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

47-1. 47번에서 그렇게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8. 'WE CARE_DREAM 사업'을 위한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입해 주세요.

끝.

- 발 주 처 :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 후 원 처 : 한화생명,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손해보험
- 연구기관 :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 연 구 원 : 조소연 책임연구원, 강미경 공동연구원
- 발 행 일 : 2024년 12월 30일